

제 1 부 주제발표

2:30~ 3:10	발표 1. 무용공연부상예방프로그램 현황 및 컨디셔닝프로그램 적용 발표자: 방유선 (서울대학교) 토론자: 송인아 (국민대학교), 이선영 (성균관대학교)
3:10~ 3:50	발표 2. 로이에스콧의 테크노에틱 아트와 세계예술양상 발표자: 태혜신 (경희대학교) 토론자: 윤수미(동덕여자대학교), 정옥희 (성균관대학교)

무용수 부상예방프로그램 현황 및 컨디셔닝 프로그램 적용 : 무용수 건갑골 익상과 안정화 운동 프로그램

방유선* (서울대학교)

【국문초록】 본 연구는 현장에서 무용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상체근력 중 흉견갑관절을 둘러싼 근육들이 약하여 견갑대의 움직임이 원활하지 못한 현상에 대한 해결하고자 무용수 견갑골 익상에 대해서 이론적 고찰 및 무용수 컨디셔닝 프로그램을 분석을 통해 무용수의 견갑골을 안정화 시킬 수 있는 운동을 제안하고자 한다. 무용수의 부상 재활운동 혹은 부상예방 프로그램 등은 무용수의 부상은 하지 중심으로 발생이 되므로 하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체 근력의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나 견갑골의 움직임은 언제나 견갑골 운동을 동반하여 견갑골을 둘러싼 근육이 약하면 견갑골 움직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견갑골 익상을 보이는 무용수들에게 견갑골 안정화 운동 프로그램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현장에서 어린 학생과 무용수 스스로 적용할 수 있는 컨디셔닝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훈련체계가 갖추어 진다면 무용수들의 부상 두려움을 줄이고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기대한다.

주요어 : 견갑골, 견갑골 익상, 견갑대 안정화 운동, 등척성운동, 등장성운동, SPS운동

I. 연구의 필요성

신체를 도구 삼아 무용활동을 하는 무용수들은 끊임없는 신체활동으로 인해 많은 부상에 시달리게 되면서 무용수로서 한창 활동할 나이에 때 이른 은퇴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지속적인 교육 및 컨디셔닝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결과 특히 국외에서는 부상으로부터 무용수를 보호하고 무용수의 직업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다양한 치료방법과 컨디셔닝 프로그램이 적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트레이너 도입 및 전문무용수 지원사업 등이 진행되면서 전문 무용수들이 부상으로 인해 겪는 신체적 고통 경감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도 도움을 받고 있지만 무용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 대상으로의 컨디셔닝 프로그램 적용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무용수의 부상은 하지중심으로 발생이 되므로 부상 재활운동 혹은 부상예방 프로그램 등은 무용수의 하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체 근력의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Twitchett(2009)의 연구에 따르면 무용수의 상체 및 체간 근력이 떨어져있음을 밝혔다. 운동선수들 대상으로 견갑골과 견봉하 관절에 대한 연구는 전세계적으로 매우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지만 무용수에 관한 어

* wellness-care@naver.com

개 연구는 상대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어오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현대사회의 기계화의 발달로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으로 발생한 스트레스가 신체에 축적되어 상지통증이 발생된다고 밝혔다(권미희, 2004). 이러한 현상은 무용수들에게서 거북목, 둥근어깨 자세, 견갑골 익상 증상등으로 나타난다. 현장에서 무용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상체근력 중 흉견갑관절을 둘러싼 근육들이 약하여 견갑대의 움직임이 원활하지 못한 현상을 종종 발견하게 된다.

이번 연구는 선행연구들과 무용수들을 위한 킨 디서닝 프로그램 등을 분석하여 그 중 무용수의 상체근력을 발달시키며 견갑대를 안정화 시킬 수 있는 운동 등을 제안함과 더불어 이러한 운동 등을 어린 연령의 학생들부터 체계적으로 적용하여 무용수들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예술활동을 영위하도록 돕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견관절은 4개의 관절들로 이루어져 서로 상호적인 작용에 의하여 움직임이 일어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Cools et al., 2001). 그 중 견관절의 흉견갑관절은 운동과 안정성을 제공한다(Peat, 1986). 견관절의 기본적인 움직임은 항상 견갑골과 함께 수행하도록 되어있고, 견갑골의 움직임에 이상이 나타나면 견관절의 운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박진영 등, 2009).

견갑골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견갑골은 3차원 운동을 모두하는 만큼 흉견갑관절은 6방향의 자유도(6-degree freedom)를 가지는 매우 넓은 움직임이 가능한 관절이며, 동시에 우리 몸에서 가장 불일치(incongruent)한 관절이다. 기본적으로 견갑골은 견관절 및 상지운동이 일어날 때 그 받침점이 되는 stabilizer로서의 역할을 제공한다. 그러나 정적인 고정자(stabilizer)가 아니라 견관절 운동(glenohumeral motion)에 맞춰서 움직이는 동적 고정자(dynamic stabilizer)로 작용하는 것이다.

무용수의 어깨에서 나타나는 증상 중에서 견갑골 익상 (winging scapular)이란 견갑골 주위의 외상, 수술, 감염, 간전 그리고 다양한 스포츠 관련 부상 등으로 인해 장흉신경(long thoracic nerve)이 손상되어(Elders et al., 2001; Fiddian과 King, 1984; Oakes 와 Sherwood, 2004), 견갑골 내연 (median border)이 뜨고 하각(inferior angle)이 후방으로 돌출되는 증상으로 정의된다(Decker et al., 1999; Gregg et al., 1979; Haymarker와 Woodhall, 1953; Hollinshead와 Jenkins, 1981; Ludewig et al., 2004; Wiater와 Flatow, 1999). 임상적으로 견갑골 익상은 정적 견갑골 익상(static winging)과 동적 견갑골 익상(dynamic winging)으로 분류되며, 정적 견갑골 익상은 견갑대(shoulder girdle), 척추 또는 늑골의 고정된 변형으로 생긴 것으로 휴식시 후방 돌출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수동 운동에 의해서만 돌출이 더 심해지며 능동적 혹은 저항운동으로는 돌출이 심해지지 않으며 사라진다. 동적 견갑골 익상은 근, 신경 이상이 원인이 되며 근불균형때문에 능동 및 저항 운동에 의해 변형이 나타나며 휴식 시에는 사라진다(Fiddian과 King, 1984). 또한

이학적 검사를 통하여 전거근 약화(serratus anterior weakness)와 승모근 약화(trapezius weakness)로 인한 견갑골 익상을 구분할 수 있다(Fiddian과 King, 1984; Kibler, 1998). 견갑골 익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견갑상완리듬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관절가동범위의 감소를 보이며, 견갑골의 상방회전이 제한되기 때문에 견관절 기능부전이 야기될 수 있고(Paine와 Voight, 1993), 견관절 충돌 증후군(glenohumeral impingement syndrome) 및 건별증(tendinopathy), 활액낭염(bursitis), 회전근개 파열(rotator cuff tear), 흉곽출구증후군(thoracic outlet syndrome), 그리고 신경포착(neural entrapment)등이 발생할 수 있다(Gregg 등, 1979; Sahrmann, 2002). Sahrmann(2002)은 견갑골의 비정상적 움직임과 비정상적인 상완의 움직임으로 인한 견갑골의 운동손상 증후군(movement impairment syndrome)의 특징으로 특정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며, 관절가동범위가 증가 혹은 감소되어, 운동이 쉽게 일어나는 방향(directional susceptibility to movement: DSM)이 발생되므로 특정 방향으로 스트레스가 가해지거나 특정 방향에서의 보상운동이 나타나며, 근력감소가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 Mottram(1997)은 견관절의 안정성에 관여하는 근육들은 능형근, 소원근, 대원근, 견갑하근 등 많은 근육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견관절 안정성에 작용하는 주요 근육은 전거근과 하부승모근이라고 하였고, Lear와 Gross(1998)는 견갑골의 상방회전 시 두 근육은 회전근개(rotator cuff)와 함께 짝힘(force couple)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하부승모근의 약화현상은 견관절 관련 질환을 지닌 환자들에게서 나타난다고 하였다(Chester et al., 2010; Lin et al., 2005; Ludwig와 Cook, 2000). 특히 전거근은 견갑골의 운동과 조절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다른 어떤 견흉관절의 근육들보다 견갑골의 상방회전과 후방경사를 일으키는 지레팔이 길기 때문에 이러한 견갑골 운동의 주동근으로 분류되며, 견갑골의 익상(winging)을 방지하는 작용을 한다(Ellenbecker, 2004; Inman et al., 1996). 실제로 특정 근육의 선택적 강화훈련을 위해서는 근육의 적절한 길이-장력 관계가 필요하며, 최적의 근육길이, 근력, 움직임을 유도하기 위하여 적절한 자세가 요구된다(Chang et al., 1999).

약화된 하부승모근을 선택적으로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다양한 운동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많은 연구들에서 견관절 외전 90-145도 사이의 운동이 하부승모근을 활성화시킨다고 하였다(Ekstrom et al., 2003; Hislop & Montgomery, 2002; Tucker et al., 2010). Ludwig 등(2004)은 전거근을 강화하는 대표적인 훈련은 푸쉬 업 플러스(push up plus) 운동이라고 하였는데, 이 운동은 과도한 상부승모근의 활동으로 인해 승모근과 전거근의 불균형한 활동을 보이는 환자들에게 상부승모근의 활동은 최소화시키면서 전거근의 활동을 증가 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또한 푸쉬 업 플러스 운동은 팔을 90도 거상한 상태에서 견갑골의 전인을 시키는 운동으로 전거근의 전인 활동을 강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 Hardwick et al.(2006)의 연구에서는 푸쉬업 플러스 운동과 견갑골면으로 벽 미끄럼(wall slide)운동, 견갑골면을 따라 움직이는 견관절 외전(scapular plane shoulder elevation)운동을 비교한 결과 벽 미끄럼 운동과 견갑골면을 따라 움직이는 견관절 외전 운동이 전거근의 강화훈련에 더욱 효과적이며 벽 미끄럼 운동의 잠재적 이점은 푸쉬 업 플러스 운동의 자세를 사용하여 상완골을 90도 이상 올리는 것을 실시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때 팔의 거상 각도는 90, 120, 140도 중에서 140도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Nancy와 Dexter(2013)의 연구에서는 견관절을 120도 굴곡하여 저항을 주지 않은 것과 여러 가지 저항을 준 상태에서 전거근 강화훈련을 비교하였는데 이때 3파운드의 저항을 주었을 때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다른 연구에서는 견갑골 후인 후 프레스업동작이 전거근의 활성도를 증가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이며 소프트 볼 누르기 동작은 하승모근의 활성도를 증가시키는데 효과적인 동작으로 나타나 견갑골의 재위치와 견관절의 정상적인 움직임을 제공하여 견관절 손상예방과 기능을 향상시키는 재활 운동프로그램의 동작으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홍은아, 신윤아, 홍애림, 2014).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 제안한 등척성운동 및 매트운동 등을 결합하여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무용수들의 견갑골 안정성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Ⅲ. 무용수들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

기초훈련

1) 호흡 (breathing)

대상자의 양다리를 의자 위에 올린 후 양팔을 외전하여 손바닥은 바닥에 위치한다. 복식호흡하면서 양팔을 양쪽 방향으로 신전시키면서 상완관절을 이완, 신전시킨다.

2) 벽미끄럼 운동 (wall slide)

대상자는 벽을 바라보며 서며 우세측 발은 벽에 대고 반대측 발을 어깨 넓이로 벌려서 우세측 발 뒤에 두고 서며 시작위치는 벽에 척골면을 접촉시키고 견갑골면으로 팔을 거상시키며 견관절로 주관절은 90도 상태를 유지한다. 이때 대상자들에게 “팔을 벽에 대해 위쪽으로 미끄러지듯이 올리세요” 라고 신호하며 이때 운동시작과 동시에 비우세측 발에서 우세측 발로 체중이동을 실시하라고 한다. 마지막 자세의 견관절 각도는 140도에서 멈추게 한다(Hardwick et al., 2006)

3) 견갑골면을 따라 움직이는 견관절 외전 저항운동

대상자의 우측 손은 3파운드(약 1.4kg) 아령을 손에 들고(Nancy와 Dexter, 2013), 벽을 바라보고 양 발을 어깨 넓이만큼 벌리며 견관절은 견갑골면에서 140도 만큼 외전시킨다. 이때 대상자들에게는 “손으로 벽을 쓸듯이 위로 올리세요” 라고 지시한다(Hardwick et al., 2006)

등척성 운동

1) 푸쉬업 플러스 운동 (push-up plus)

양 손과 양 발을 어깨넓이로 벌려 네발기기 자세를 취하여 양손과 양무릎으로 체중을 지지하게 한 후, 주관절의 최대 신전에 이어 견갑골 전인을 추가로 시행한다(Decker et al., 1999)

2) 소프트 볼 누르기

대상자의 측면에서 팔을 90도로 외전시킨 후 손바닥밑에 의자를 위치하게 한 후 손바닥 밑에 소프트 볼을 위치하여 손바닥으로 볼을 누르는 운동을 시행한다.

3) 견갑골 후인 후 프레스 업

의자를 대상자 등 뒤에 위치하고 대상자는 어깨를 뒤로 당겨 흉곽을 열고 견갑을 뒤로 모으는 동작을 실시 후 의자의 모서리부분을 잡는다. 팔꿈치는 90도정도까지만 굽히고 삼두근 저항을 느끼면 팔을 편다.

4) 프랭크 (plank)

대상자의 양쪽 아래팔과 발끝이 땅에 닿게 한 후 몸통과 다리가 일직선으로 만들어 버틴다. 약 30초간 (최대 120초까지) 버틴다. 운동을 실시할 때는 복부를 수축하여 복부가 아래로 쳐지지 않도록 한다.

5) 사이드프랭크 (side plank)

오른쪽 팔과 오른쪽 발 옆부분이 땅에 닿게 한 후 몸을 일직선으로 만든다.

반대편도 실시한다. 약30초간 (최대 120초까지) 버틴다.

6) 프론 프레스 업 (prone press up)

엎드린 자세에서 손바닥은 어깨 옆 바닥을 짚고, 팔꿈치는 천장을 향하게 한다. 이마는 매트 위에 공중 정지한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렬을 맞춘 후 손바닥을 바닥을 미는 힘으로 천천히 흉골을 들어 올리면서 흉추를 신전시킨다. 이때 하부 늑골은 매트에서 들리지 않게 유지한다.

7) 다트 (dart)

엎드린 자세에서 팔은 몸통을 따라 뒤로 뻗어 바닥과 평행이 되게 하고 손바닥은 위 혹은 아래로 향하게 한다. 상완골을 바닥에서 들어 쇄골을 뒤로 밀어서 끌어내린다. 이마를 매트에서 3-5인치 정도 들어 공중정지하고 척추는 중립을 유지한다. 호흡과 같이 견갑대에서 멀리 정수리를 길게 늘이고 팔은 천천히 펌프하는 동작을 반복한다.

등장성 운동 : SPS 탄성밴드 운동

무용수들이 필라테스(Pilates), 자이로토닉 (Gyrotonic), 펠덴크라이스(feldenkrais) 등과 같이 잘 알려진 운동들은 코어 안정성을 확보하거나 신체의 사용을 보다 강화하는 것 등이다. 필라테스

와 자이로토닉은 매트운동과 기구운동으로 구성되어 운동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대부분 학교에서는 기구설치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매트운동만 진행하여도 무관하지만 테라밴드 등 저항밴드를 이용하면 신체를 보다 강화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나온 운동법 중에서 소개할 새로운 운동법인SPS (SPiral Stabilization) 운동은 사선근육 안정화 운동법의 약자로 근막경선의 사선근육을 활성화시켜 척추의 동적안정화(Dynamic Stability)를 만들어주는 운동법이다. 체코의 의학박사 리차드 스미섹에 의해 고안된 이 운동은 근막경선 이론에 근거한 사선라인의 활성화를 통해 척추주위 근육의 안정화 및 통증 완화에 탁월한 임상 결과를 보여주는 유럽식 신개념 운동법이다. 이때 사용하는 운동도구는 탄성밴드를 이용하는데 30여년간의 임상을 통해 척추관련 질환 (디스크, 척추측만)은 물론 전문선수들의 상해예방 및 컨디셔닝, 사지관절 질환의 재활운동, 보행교정, 하지교정운동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SPS에서는 근막을 수직라인과 사선라인 두가지로 나누고 있다.

수직라인 (vertical line)은 정적인 상태에서의 안정성을 만들어주고 사선라인 (spiral line)은 동적인 상태에서의 안정성을 만들어주는데 SPS 운동은 이 두가지 라인을 상호적으로 잘 활성화될 수 있게 만들어 일상생활에서의 동작이나 격렬한 동작에서 체간을 안정화시켜 우리몸을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준다.

SPS 운동의 효과는 크게 3가지가 있다. 첫번째, 우리의 몸을 감싸고 있는 사선근육을 활성화시켜 몸통에 머슬코르셋 (muscle corset)을 만들어 척추의 안정화를 만들어 준다. 두번째는 머슬코르셋의 활성화는 척추를 견인 (traction) 시켜 척추사이의 간격을 넓혀주는 효과가 있다. 세번째는 척추의 중앙화 (centralization) 효과로 척추의 불균형을 교정해주는 동시에 어깨 가동성 및 안정성에도 좋은 효과가 있다.

탄성밴드의 끝은 고정바에 걸고 반대끝 두 줄에 달린 손잡이를 손에 완전히 넣은 후 정면, 측면, 후면으로 신체 방향을 바꿔가면서 운동을 실시한다. 어깨 외회전 운동, 전거근 견인운동, 견갑대 안정화 및 강화운동을 실시한다.

IV. 사례 연구

나이는 만 13세 발레 전공하는 여학생이며 2016년 7월에 처음 센터에 방문하였을 때 양쪽 어깨 동근어깨 양상이 나타났고 견갑골 익상 및 좌우 견갑골 높이가 다른 상태였고 발목의 불안정성이 같이 동반되었다. 어깨에 동반되는 통증은 나타나지 않았다. 어린 시절 무용을 처음 접하면서 선생님께 항상 듣는 말 중 하나는 “어깨내려” 였다고 한다. 사실상 무용을 구현할 때 솜은 어깨를 유지한 채 동작을 구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배워서 대부분의 무용수들이 팔동작 2번 자세를 취할 때는 어깨를 내리면서 팔을 좌우로 들고 버티게 된다. 이 학생도 어깨를 내리는 과정에서 특히 5번 자세에서 2번 자세로 옮길 때는 양쪽 견갑골을 척추 양쪽 내측면으로 모으면서 견갑골 익

상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많은 무용수들이 정면에서 팔을 올리고 내리는 연습과 훈련은 하지만 후면에서의 견갑대의 움직임 평가 및 훈련은 소홀한 것이 현실이다. 즉, 정면에서는 어깨를 내리고 있지만 후면에서는 견갑골의 움직임이 정상범위가 아닌 내측으로 모아서 쓰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통증을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무용수들이 어깨의 문제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도 현실이다. 무용수들의 상체 컨디셔닝 훈련 및 강화운동을 할 때는 호흡법부터 시작하여 견갑대의 움직임의 이해 및 훈련을 동반해야 한다. 대상자는 콩쿨과 학교레슨 시간 때문에 지속적인 방문이 어려웠으나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숙지하여 꾸준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의 운동 프로그램으로 훈련하여 견갑대의 안정과 상지의 움직임이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V. 제한점 및 결론

어깨 및 견갑대 안정화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일반인과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고 무용수들을 대상으로 견갑대 안정화 운동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제한점으로 정량화된 수치를 제시하지 못하였지만 무용수들과 지도자들이 상체근력 중요성과 견갑대 움직임 개념의 변화와 함께 지속적인 안정화, 가동성 그리고 강화운동을 병행한다면 무용수의 상체의 움직임이 향상될 것이라 예상된다.

참고문헌

- 김명진, 이유진, 김지혁, 배원식. 견갑골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운동의 비교연구. **대한통합의학회지**. 2013;1(3):51-62.
- 김선엽, 송우리, 장현정. 하승모근 등척성 운동방법에 따른 근두께 변화량 비교 및 초음파 영상의 신뢰도 연구.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지**. 2012;19(3):31-39.
- 김지혁, 이진철, 박준혁. 지지면에 따른 Push-up plus 운동이 견갑골 안정화 근육에 미치는 영향. **대한건강과학학회지**. 2010;7(1):1-11.
- 박승욱, 백용현, 서지수, 이지현, 임상현, 이주은, 배원식. 어깨 안정화 운동과 맥켄지 신장운동이 전방머리자세에 미치는 영향. **대한통합의학회지**. 2015;3(4):61-67.
- 박준상, 전해선, 권오윤 등. 푸시업플러스(Push-up plus) 운동 시 견갑골 익상 유무에 따른 어깨안정근의 근활성도 비교.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지**. 2007;14(2):44-52.
- 박진영, 이상훈, 오정환, 김홍겸. 견갑골 운동장애. **대한견주관절학회지**. 2009;12(2):271-277.
- 정연우, 배성수, 장원석 등. 견갑대 안정화 운동이 상지 근력에 미치는 영향. **대한물리치료학회지**. 2007;2(1):11-20.
- 홍은아, 신윤아, 홍애림. 견갑골 안정화 운동이 야구선수의 견갑골 관절가동범위, 근력 및 근 활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2014;57:779-791.
- Decker MJ, Hintermeister RA, Faber KJ, et al. Serratus anterior muscle activity during selected rehabilitation

- exercise. *Am J Sports Med.* 1999;27(6):784-791.
- Hardwick DH, Beebe JA, McDonnell MK, et al. A comparison of serratus anterior muscle activation during a wall slide exercise and other traditional exercises. *J Orthop Sports Phys Ther.* 2006;36(12):903-910.
- Hawkins RJ, Montadi NG. Clinical evaluation of shoulder instability. *Clin J Sports Med.* 1991;1:59-64.
- Inman VT, Saunders JB, Abbott LC. Observations of the function of the shoulder joint. *Clin Orthop Relat Res.* 1996;330(9):3-12.
- Janda V. *Muscles and motor control in low back pain: Assessment and management.* In Twomey LT(ed). *Physical therapy of the low back.* New York : Churchill Livingstone, 1987.
- Janda V. *Muscles and Cervicogenic Pain Syndromes.* In *Physical Therapy of the Cervical and Thoracic Spine,* ed. R. Grand. New York : Churchill Livingstone, 1988.
- Lear LJ, Gross MT. An eletromyographical analysis of the scapular stabilizing synergists during a push-up progression. *J Orthop Sports Phys Ther.* 1998;28(3):146-157.
- Mottram SL. Dynamic stability of the scapula. *Man Ther.* 1997;2(3):123-131.
- Nancy RT, Dexter WW. Ultrasound imaging of the serratus anterior muscle at rest and during contraction. *Clin Physiol Funct Imaging.* 2013;33(3):192-200.
- O'Sullivan C, Bentman S, Bennett K. Rehabilitative ultrasound imaging of the lower trapezius muscle: Technical description and reliability. *J Orthop Sports Phys Ther.* 2007;37(10):620-626.
- Tucker WS, Armstrong CW, Gribble PA, et al. Scapular muscle activity in overhead athletes with symptoms of secondary shoulder impingement during closed chain exercises. *Arch Phys Med Rehabil.* 2010;91(4):550-556.

Abstract

Injury Prevention Program and Application of Conditioning Program for Dancers: Effects of Scapular Stability Exercise in Dancers With Winging Scapular

Bang, You Su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ability to position and control movements of the scapular is essential for optimal upper limb function. The inability to achieve this stable base frequently find in dancers. The scapular musculature is often neglected in the evaluation in dancer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study the effect of scapular stability exercises training on scapular position in dancers with winging scapular. The author describes the importance of scapular motion and suggests the exercises of scapular stability which consisted with basic, isometric and isotonic exercises. Knowledge of how the scapular muscles influence function at the shoulder builds a strong foundation for dancers and dance teachers to develop conditioning program for the shoulder.

Key Words : scapular, winging scapular, scapular stability exercise, isometric exercise, isotonic exercise, SPS exercise

로이에스콧의 테크노에틱아트(technoethic arts)와 세계예술양상*

태혜신** (경희대학교)

【국문초록】 우리사회는 미래 4차 산업혁명시대 예고에서 나아가 현실화 및 상용화 시점에 있다. 이러한 미래사회의 변화를 로이에스콧은 이미 50년 전 예술의 영역에서 테크노에틱아트(technoethic arts) 개념으로 설명하고 예측하였다. 즉, 그의 테크노에틱아트(technoethic arts) 예술철학은 현재 도래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예술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그 방향성 및 방법론 탐색에 기반지식이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의 예술철학을 바탕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테크노에틱아트(technoethic arts) 형태의 세계예술양상과 특성을 연구하였다. 첫째, 모이스미디어(Moist Media)의 영역에서는 식물과 기계와의 연결에서 나아가 인간신체와 기계가 융합되어 다양한 예술세계를 창조하고 있었다. 둘째, 생물학, 물리학, 유체역학, 양자 역학 등 최첨단 과학지식을 활용한 새로운 혁신적 예술들이 등장하였다. 셋째, 로이에스콧이 주장한 생물학적 텔레마틱스 예술(Bio-telematics Emergence Art) 개념이 실험을 통해 현실화되고 있었다.

주요어 : 로이에스콧, 테크노에틱 아트, 모이스미디어, 생물학적 텔레마틱스 예술, 세계예술양상

I. 들어가는 말

커뮤니케이션 학자 피에르 레비(Pierre Levi)는 문명화 과정을 다름 아닌 '인간화 과정'으로 보고 있다. 이는 인간의 잠재적 역능이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의해 구성되는 거대한 사이버 공간에 모아지고 통합되는 과정이다. 사이버 공간은 마치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우주의 인드라망과 같은 것으로 탈 중심적이고 모든 존재가 상호 연결되어 상생하고 있는 공간이다. 그가 조어한 디지털 세계의 인드라망, 누스페어(noosphere :정신의 대기권)는 단순한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으로 쌓아 올린 집단지성과 기독교, 불교적 지혜가 한데 어우러지는 정신적, 영성적인 세계이다(레비, 1999; 로이에스콧, 2002: 60 재인용).

한편, 디지털화는 다양한 콘텐츠가 자유롭게 이동하여 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 이미지와 사운드와 데이터와 텍스트는 모두 자유롭게 이동하고 편집되고 압축되고 재생되는 혼용의 세계를

* 본 연구는 2016 이대무용학연구소 국내학술심포지엄 발제 “모이스트미디어(moist media)와 미래예술패러다임”을 수정·보완한 연구임을 밝힙니다.

** thspjk@hanmail.net

조합해 낸다. 기존의 아톰의 세계가 비트의 세계로 편입되면서 단지 수단의 변화뿐 아니라 일종의 변종을 위한 자유로운 교배를 이룬다. 앤드류 달리(Andrew Darley)는 이런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이 기존의 예술을 '해독'과 '해석'의 체험에서 '감각적 충족', '놀이적 체험'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피에르 레비(Pierre Levi)의 견해에 따르면 사이버 문화의 많은 작품은 한계가 선명하지 않은 '열린 작품'이라는 특징을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개방', 즉 작품이 교류와 상호 연결 그리고 집단 창작의 기제를 통해 제공된 가능성들을 개발하면 할수록, 그것은 사이버 문화의 전형이 될 것이고, 이는 고전적인 의미의 '작품' 개념에 이의를 제기한다. 사이버 문화의 작품이 통신망의 편재성, 다른 작품과의 동시적 연결성, 그리고 물질적 개방성에 의해 보편성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디지털 매개 예술이 창출하는 작품을 고전적 의미의 예술작품과 다르다고 말한 로이 애스콧(Roy Ascott)의 '테크노에틱 아트(technoethic arts)' 개념은 디지털 매개 예술의 현상론을 설명하는데 풍부한 아이디어를 주고 있다. 그는 '생물학적 지평을 넘어서 미디어 아트(월간 미술 2000년 1월호)' 라는 글을 통해서 21세기 디지털 세상은 인공 생명체나 연결 의식, 생물학적 텔레매틱 개념이 도입되면서 다시금 물질화의 경향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예견했다(최효민, 2006, p10-13). 텔레매틱 예술은 하이퍼미디어, 비디오텍스, 팩스밀리, 인터랙티브 비디오, 컴퓨터 애니메이션, 시뮬레이션, 원격회의, 텍스트 교환, 이미지 전송, 음성 합성, 원격 측정이나 원격 센서, 가상공간, 사이버네틱 구조체 그리고 인텔리전트 건축 등 광대한 미디어를 포괄하고 있다. 이는 인간의 지각을 증폭시킬 뿐 만 아니라, 지각 그 자체를 변화시켜 가고 있다. 텔레매틱 예술의 내용은 거의 인터페이스적 성격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다. 인터페이스의 핵심은 그것의 잠재적인 유연성에 있다. 정지화상이나 동화상, 구조화된 사운드와 합성음, 샘플링 된 소리, 기록되거나 말하여진 텍스트, 그 어느 것도 수신 혹은 발신을 할 수 있게 된다. 나중에는 뜨겁게 신체에 감응하고 신체적인 반응을 하는 등, 환경을 각성하는 능력을 가지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발걸음이나 무용수의 아라베스크 또는 관객의 시선 방향에 대해 대응할 수도 있다. 움직임, 소리, 빛을 동반하는 물리적인 환경을 표현할 뿐 만 아니라 인터페이스 자체가 하나의 환경이며, 데이터베이스의 장인 것이다(로이에스콧, 2002: 60-63).

이미 50년 전에 이같이 주장한 로이에스콧의 예술개념, 테크노에틱아트(technoethic arts)를 통한 '생물학적 텔레매틱스의 출현(Bio-telematics Emergence)'은 현재 4차 미래산업시대에 들어선 우리사회에서 실현되고 상용화되어 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의 테크노에틱아트(technoethic arts)의 개념과 특성을 살펴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의 다양한 테크노에틱아트(technoethic arts) 양상들을 살펴봄으로서 4차산업시대를 활용한 새로운 예술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그 방향성 및 방법론 탐색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II. 로이 에스콧(Roy Ascott)의 기본 예술개념 : 나비철학

로이 에스콧은 1934년 10월 영국 바스 태생으로, 사이버네틱스, 텔레커뮤니케이션과 인터랙티브 미디어를 사용한 창의적 작업을 해온 예술가이자, 이론가이면서, 전지구적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텔레마틱스(telematics), 인터랙티브 미디어 분야의 개척자이다(아트센타 나비, 2016). 이를 반증하듯이 미디어학자인 프랭크 포머는, 로이 에스콧을 예술에 관객 참여를 가져온 최초의 예술가로 평가하고 있다.

그의 철학을 이해하기 위한 몇 가지 기본 개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텔레메틱스(telematics)¹⁾는 데이터 처리시스템과 원격 센서 장비, 큰 용량의 데이터 뱅크 등을 통해 연결되어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개인이나 조직을 연결하는 전화나 케이블, 위성 등이 컴퓨터에 의해 중개되는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둘째,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²⁾는 인간과 기계, 장치 등간의 관계를 새로운 방향으로 검토해 보고 체계를 세워서 만든 이론이다. 이는 곧 제어와 통신에 대한 학문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인터랙티브(interactive)는 말 그대로 상호작용성을 뜻한다. 넷째, 테크노 에틱스는 기술과 의식의 합성어다, 이 용어는 테크노로지의 발전에 따른 현대 예술의 진보적 복잡성을 이해하고 하이퍼 미디어(hypermedia)³⁾를 매개로 고유의 영역에서 벗어나 확장되어 가는 예술과 과학, 의식의 관계를 고찰해보기 위해 로이 에스콧이 만들어 낸 단어다(지식노트, 2013).

그에 의하면, 디지털 상호작용 예술(interactive art)의 가장 큰 5가지 특징은 접속성·몰입·상호작용·변형·발생이다. ‘접속성’은 개인, 혹은 시스템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인터넷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 ‘몰입’은 사용자가 멀리서도 몰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하는데, 가상현실에서는 특히 심오한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사용자의 몰입 반작용하고 있는 것이 ‘상호작용’이며 이러한 상호작용 예술에서는 이미지와 시스템, 구조, 환경이 모두 변한다. 그중에서도 사용자의 의식 ‘변

1) 텔레메틱스는 '통신'과 '정보'의 합성어로 무선을 이용한 음성 및 데이터 통신과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치정보 시스템을 기반으로 자동차 내부와 외부 또는 차량 간 통신시스템을 이용해 정보를 주고 받음으로써 텔렉스, 비디오 텍스트, 팩시밀리 등과 같은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이다.(2017, ITS 용어사전, 다음백과,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62XXXXXX1144>)

2) 사이버네틱스 또는 인공두뇌학은 일반적으로 생명체, 기계, 조직과 또 이들의 조합을 통해 통신과 제어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예를 들어, 사회-기술 체계에서 사이버네틱스는 오토마타와 로봇과 같은 컴퓨터로 제어된 기계에 대한 연구를 포함한다. 사이버네틱스라는 용어는 고대 그리스어 퀴베르네테스 *Κυβερνήτης* (kybernetes, 키잡이, 조절기(governor), 또는 방향타)에서 기원한다. 예로부터 현재까지 이 용어는 적응계, 인공지능, 복잡계, 복잡성 이론, 제어계, 결정 지지 체계, 동역학계, 정보 이론, 학습 조직, 수학 체계 이론, 동작연구(operations research), 시뮬레이션, 시스템 공학으로 점점 세분화되는 분야들을 통칭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다(2017,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82%AC%EC%9D%B4%EB%B2%84%EB%84%A4%ED%8B%B1%EC%8A%A4>).

3) 문자, 음성, 영상, 애니메이션 등 형태가 다른 여러 가지 미디어를 같은 환경에 연결시켜 조작이 가능하도록 한 새로운 미디어 시스템이다. 전자매체 이용자가 본문 중에서 한 단어를 선택하면 그 단어와 관련된 추가 정보를 얻도록 해주는 컴퓨터 프로그램 특성 가운데 하나가 하이퍼 링크이다. 하이퍼 링크를 통해 얻어지는 추가적인 정보로는 그 단어의 정의나 같은 문서 안에서의 관련 참조 등이 있다. 이때 연결되는 추가적인 정보가 텍스트뿐만 아니라 다른 미디어 형태인 사진이나 소리 혹은 동영상과 연결되기도 하는데 이를 하이퍼 미디어라 한다. 즉 하이퍼 미디어는 서로 다른 미디어가 같은 환경에서 이용될 수 있도록 연결된 미디어 시스템이다(2017, 다음백과,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v050ma712a23>).

형'이 가장 중요하다. '발생'은 사용자들이 이 시스템을 통해 볼 수 있는 시각적 발생물들을 의미한다(안진석, 2011).

로이 에스콧은 19세기 사람들은 불확실성을 혐오했지만, 현대인들은 거기서 기쁨을 찾는다고 강조했다. 과거에는 화가나 조각가가 고정불변의 작품을 만들어서 관람객에게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오늘날 미디어 아트가 발전하면서 관람객의 참여에 따라 작품 내용이 달라지는 미술작품들이 나오고 있다. 로이 에스콧이 말한 즐거움은 바로 이런 것들이다. 따라서 그는 인간이 나비처럼 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비가 이 꽃에서 저 꽃으로 날아다니며 꽃가루를 퍼뜨리고 꿀을 얻듯 인간도 현실세계와 인터넷에서 다양한 네트워크에 접속하며 정보와 의미를 퍼뜨리고 축적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텍스트의 주름(1983, 파리 근대미술관)」은 전세계의 사람들로부터 이야기가 들어 있는 전보를 받아 그것들을 가지고 이어 붙여 만든 그의 대표작품이다. 중요한 점은 예술작품에 있어 감상자와 예술가가 동등한 위치를 점하며, 감상자와 작품의 상호작용만이 의미를 생성한다는 자신의 생각을 투입한 것이다. 그런 까닭에 로이 에스콧은 전 세계에 작가를 배분하고, 전 지구적 동화를 만들어내고자 시도했다(지식노트, 2013).

로이 에스콧은 이외에도 「행성 네트워크(1986, 베니스 비엔날레)」, 「예술의 정체성/사이버 정체성(1999, 브라질)」 등의 전시에 참여했으며, 「레오나르도 저널 (Leonardo journal)」, 「디지털 크리에티비티 (Digital Creativity)」의 편집위원을 역임하는 등 세계를 무대로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1970년대 온타리오 예술대학, 샌프란시스코 아트 인스티튜트의 학장을 거쳐 현재 CaiiA-STAR의 학장으로 재직중이다(아트센타 나비, 2016).

Ⅲ. 테크노에틱 아트(Technoetic Arts)의 개념

로이 에스콧이 새 패턴과 환경의 도래와 함께 요구되는 신조어로 제시한 '테크노에틱스(Technoetics)'는 어원상 기술과 정신의 희랍어에 각각 해당하는 'noetic'과 'nous'의 결합을 의미한다. 이런 정신(con-sciousness)과 기술(technology)이 결합된 예는 단순히 근대적 관점에서 찾기보다는, 고대의 주술적 의식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테크노에틱스의 관점에서는 정신적인 것과 인공적인 것을 동시에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물질과 기술적 측면으로만 기우는 위험을 피하고 인간 정신의 총체적 표현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새로운 정신적 자세에 필연적으로 새로운 성격의 미디어가 나타나는데 그는 이 새로운 미디어의 특징을 지적하여 '모이스트 미디어(Moist Media)' 라고 한다. 즉, 테크노에틱스(Technoetics)'는 정신적인 부분과 기술적인 부분의 결합을 상징하는 말로서, 인간이 물질과 기술적인 것에 치우치는 것을 피하고, 정신적인 것까지 포함해 균형있게 발달해 가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표현매체(미디어)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 그는 '테크노에틱스'를 추구하면 기계가 중심이 된 컴퓨터 미디어의 '건조함'을 극복하고, 인간의 냄새가 나며 생명의 기운이 느껴지는 '촉촉한' 미디어

(Moist Media)를 개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wild9s, Naver). 즉, 이 미디어는 ‘유선의(wired)’, 그리고 ‘건조한(dry)’ 세상과 생물학적(bio-technology)이고 유기체적인 ‘젖은(wet)’ 세상이 합쳐지면서 탄생한 개념으로 예술의 재물질(re-materialization)을 전망하는 용어이다. 이러한 변화는 예술가들에게 디자인의 진화 과정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대신, 형태가 자연스레 진화될 수 있도록 씨를 뿌리는 사람의 역할을 하도록 요구된다고 로이에스콧은 주장한다(최효민, 2006).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디지털매체와 융합된 무용에서 모이스트미디어의 ‘유선의 (Wired)’ 그리고 ‘건조한(dry)’ 세상이 디지털 기술이라면, 생물학적 (bio-thechnology)이고 유기체적인 ‘젖은 (wet)’ 세상은 바로 신체움직임인 ,무용 그 자체라는 점이다. 즉 디지털무용은 이미 모이스트 미디어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디지털 공연예술에서 최첨단 하이테크놀지와 멀티 미디어적 속성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바로 무용이기 때문이다. 디지털 기술의 가상공간은 그 자체로서는 테크놀로지가 지배하는 유선의 건조한 세상이지만 신체움직임과의 융합을 통해 가변성과 역동성을 지니게 되며, 자연과 인공의 혼성 프로세스의 부산물로서 모이스트 미디어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일찍이 미디어의 생물학적 텔레마틱 개념을 강조한 로이 애스콧(Roy Ascott)은 건조한 디지털 세상이 생물학적이고 유기적인 세상과 접촉한 ‘모이스트 미디어(Moist Media)’를 새로운 미디어의 특징으로 보고 이것이 예술 영역에서 새로운 배양기의 역할을 해낼 것이라 주장한 바 있다. 테크놀로지로 인한 새로운 미디어가 인간의 범주에만 속한 것은 아니다. 새로운 미디어는 이 세계에 존재하는 애매모호한 존재, 비단 박테리아와 같이 인간이 하등한 생물이라 치부하는 존재들에서 유기적인 세계와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이것은 그간 침단을 향해서만 나아간 테크놀로지가 환경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다. 다양한 생물학적 자료들이 올라온 유기체 블로그는 예술이 기술과 자연, 물질과 정신, 인간과 동물 등 서로 이질적으로 구분된 경계를 넘어서서 상호 소통을 가능케 하는 실험의 장임을 우리에게 보여준다(심소미, 2006).

IV. 세계의 테크노에틱아트(Technoethic Arts) 양상과 특성

로이 애스콧이 제시한 테크노에틱아트(technoethic arts)은 크게 3가지의 특성으로 범주화될 수 있다.

첫째, 모이스트 미디어는 인공적인 것과 자연적인 영역을 연결하며 의식과 유형적 세계의 관계에 변화를 가져온다. ‘자연=인공적 공간(natrificial space)’은 자연과 인공의 혼성 프로세스의 부산물로서 모이스트 미디어의 영역이기도 하다(로이에스콧, 2002: 185-188).

미국의 경우, 1990년대 후반부터 컴퓨터를 이용한 미디어 댄스의 인터페이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을, 실재현실과 가상현실을 오가는 형태까지 실험되고 있다. MIT 미디어 랩 (MIT Media Lab)

의 연구진들 보고에 의하면 미디어 아트 프로젝트 중 '댄스 스페이스(Dance Space)'는 단지 가상현실과는 다른 확장된 공연(augmented reality)을 보여주고 있다(F. Sparacino, G. Davenport, and A. Pentland.). '댄스 스페이스(Dance Space)'는 가상현실과는 다른 확장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보조안무가로서 컴퓨터의 위치를 설정하고 가상의 연주자들을 프로그램에 넣은 후 무용수들의 손, 발, 몸통 등을 맵핑하여 음악에 따라 무용수가 다른 움직임을 보일 때마다 공간 안에 커다란 스크린에 다양한 빛깔의 트레일이 남겨진다. 이러한 실험은 현재 실제 무용 현장에서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으며, 미디어 댄스의 시각적 이미지에 천착해 비디오로 소개하는 무용영상축제 등을 통해 비디오 댄스 등 독립장르로 선보이고 있다. 국내에서는 서울세계무용축제(SIDance)의 일환으로 2004년부터 디댄스(DIDance: Digital Dance Festival)를 통해 다큐멘터리, 미디어아트, 혹은 영화나 CF처럼 편하게 감상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로 바뀌 무용인과 인접분야 예술인을 비롯하여 영상 매체에 익숙한 관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가 열리었다(최효민, 2006: 22).

일본의 경우, 테크놀로지와 자연 그대로의 솔직함이 뒤섞여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는 다른 사운드 작업으로는 모토미야 가오루의 「캘리포니아 레몬은 노래를 한다 : california lemon sings a song」가 있다. 강력한 산이 전기를 발생시킨다는 단순한 과학적 지식을 이용해 미디어 아트에서 필수적인 전기 소켓을 없애버리고도 사운드, 즉 레몬의 노래를 만들어 냈다. 복잡한 인터페이스와 컴퓨터회로를 숨기고 있는 작업들 보다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수단'을 앞세우는, 즉 새로운 테크놀로지 자체를 이용하는데 경도되어 그 예술적 목적을 상실하거나 이를 전달하는데 실패하는 경우들 때문이다. 또한 다양한 인터랙티브 설치작업들 가운데서도 컴퓨터의 마우스나 키보드, 기계적 인터페이스에서 벗어나 직접 우리의 몸(만지기, 움직임, 소리내기 등)을 이용하고 통감을 확장시키는 작업이 더 친화적으로 다가갔다. 그 외에도 연상 작용을 이용해 각기 다른 소리와 색채를 연결시킴으로써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온라인 작업인 '넌섹션(nonsection)'의 「색깔듣기:hearing colors」나 닫힌 언어체계를 좀 더 본능적이고 직관적인 방식으로 재구성하는 마사키 야마베의 「새로운 히라가나를 위한 실험 : an experiment for new hiragana」등은 관람자의 능동적인 참여와 상상력을 통해 완성되는 작업들이었다(<http://www.nabi.or.kr>: 박명숙, 태혜신, 오하영, 2014 재인용).

한국의 경우, 「S.U.N」은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현대무용 안무자 남영호의 작품으로 프랑스 과학 예술가들과의 협력으로 만들어진 무용과 뇌과학의 접목 작품이다. 세계적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인 '뽕 뉴메리크 극장'의 2011년 시즌 오프닝 작품으로 공연되었던 이 작품은 남영호가 한국 고유의 전통 무예를 기반으로 안무하고 프랑스 무용수들과 프랑스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스테판 쿠조(Stephane Cousot), 세계적인 뇌 생리학자 프랑시스 레스티엔느(Francis Lestienne) 등이 참가해 무용수들의 움직임을 첨단 과학 기술인 EMG 시스템(근육활동 신호녹화기)을 이용해서 투시하는 과정을 관객에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현대무용가 남영호는 인터뷰에서, “무용수들이 하루에 2번 연습을 하는데, 첫 번째 연습을 할 때는 기계에서 작고 잔잔한 소리만 들렸어요. 그런데 한참 쉬고 나서 오후에 연습을 시작하려는데 기계에서 시끄럽고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분명 쉰

다고 쉬었지만 우리 몸은 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계가 소리로 들려준 셈이었죠.”라는 그녀의 생생한 경험을 전한다. 음악 역시 무용수들의 근육이 움직임에 따라 즉석에서 신디사이저가 음악을 만들어 낸다. 무대도 무용수의 숨소리에 따라 부풀어 오르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다(김연희, 2011: 박명숙, 태혜신, 오하영, 2014 재인용) 한마디로, 인간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기계활용을 목표로 삼고 있는 미래기술, 뇌생체역학이 무용예술로 한국에서 탄생한 것이다.

최근에는 뇌파전위기술(EEG)을 이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소리로 만든 연주가 시도되었다. 분노, 슬픔, 미움, 욕망, 행복 등 감정이 연주된 것이다. 미디어아티스트 리사박(Lisa Park)은 작품 「유노이아(아름다운 생각)」에서 물이 담긴 그릇과 연결된 스피커를 매체로 삼아 자신의 신체상태를 물로 표현하였다. 그녀가 움직이면 신비로운 음들은 물의 파동을 형성하였는데, 이는 그녀가 퍼포먼스를 하는 동안 모인 뇌파 정보로 음의 속도, 크기, 높낮이를 조정했기 때문이다. 즉, 머리에 쓴 헤드셋을 통해 그녀의 생각이 뇌파로 측정되고 그 뇌파가 소리의 음량과 높낮이, 속도를 조정하여 물결을 일으킨 것으로, 그녀의 생각이 물방울을 진동시킨 것이다. 악기없이 생각만으로 음악이 연주되고, 음악이 시각화된 이 공연은 인간의 생각과 감정이 기계와 의사소통하는 4차 산업혁명의 예술로 평가받고 있다(KBS 미래기획 2030, 2016).

이제 모이시트미디어를 통해 예술은 인간을 넘어서 모든 생명체가 기계 혹은 기술과 의사소통하며 하나로 진화되어 가는 살아있는 제2의 자연미디어 예술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테크노에틱아트(technoethic arts)는 디지털 시스템의 정보 단위인 비트와 생명체의 원자·신경·유전자로 이루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호주의 에드워드 퀸크 작업은 살아있는 조직체의 생성구조를 가지고 현미경으로 들여다 보면서 이루어지는 작업인데, 그의 작품은 수소원자 구조를 소위 벅키 볼(Buck Ball)이라고 불리는 인공 피스톤 형태 속에 넣어 재구성하여 수소원자구조들을 시각화한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10-15년 내에 나노테크놀로지의 발전에 의해 예상되는 예술의 한 예라고 할 것이며, 물질구조를 극소 단위까지 접근하여 시각적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이다(안진석, 2011).

일본의 경우, ‘유체역학의 시각화로 창조된 뉴미디어 아트’를 들 수가 있다. 일본 교토대학교의 토사 나오키 교수와 나카츠 료헤이 교수의 협업연구팀에 의해 탄생된 새로운 비디오 아트 「제네시스」는 물리학의 오랜 연구주제인 유체메카닉스 혹은 유체역학이 예술 창작의 주된 컨셉으로 삼고 있다. 이 연구팀은 예술 작품창작을 위해 불안정하거나 예측불가능한 다양한 유체 움직임을 생성해 내는 방법으로, 액체속에 페인트 주입, 드라이아이스의 사용, 그리고 폭발효과를 내기 위한 에어건(air gun)의 사용을 시도했다. 즉, 유체 경로상에 이 3가지 장애물질이 투입될 때 생성되는 아름다운 유체의 움직임을 초고속카메라로 촬영하여 편집하여 새로운 유형의 미디어 아트를 창작한 것이다. 이는 규칙과 패턴을 찾는 ‘기계적’ 과학이 불규칙성의 ‘자연미’를 탐구한 예술작업으로, ‘무작위성’이라는 물리적 현상의 근본 속성을 예술의 ‘순수미’로 환원(토사나오, 나카츠 료헤이, 팡유난, 와타나베 케이스, 2016: 63-75)한 물리학의 미디어아트로 볼 수 있다

양자 텔레포테이션이란, 한 개체의 양자⁴⁾가 다른 개체로 전자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하며, 1997년 로마·인스브룩·칼 테크의 실험실에서 처음 실현되었다. 일본의 ATR에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소머리와 미노노의 작품 「발브(A Volve)」는 90년대에 매우 중요한 작품으로 부각되었다. 이 작품의 관객, 즉 사용자가 모니터 위에 그림을 그리면 시스템이 그 모양의 살아있는 생물 형태를 만들고, 그 형태들은 물 안에서 움직이면서 사용자의 손동작을 따라 움직인다. 그러면서 각 자 독립적인 생명체로서의 생명주기를 그리면서 서로 잡아 먹거나 교미하며 주기도 한다(안진석, 2011). 유사한 예로 크리스타 좀머러와 로랭 미그노뉴의 「라이프 스파시즈(life species)sms」을 들 수 있다. 「라이프 스파시즈(life species)sms」는 온-오프의 플레이어와 상호작용하는 동시에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해 생성된 종들 스스로 상호작용하며 진화해가는 생명시스템이다. 이로써 창조과정을 예술가의 내적 창작의 표현으로 한정짓지 않고 하나의 생명계의 역동적인 과정으로 포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컴퓨터 과학과 생물학에서 생명체에 대한 개념이 많이 진척됨으로서, 기본적으로 생명체가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 그 미세단위인 살아있는 작은 형태의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여 생명체의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지 하는 문제들이 예술에서도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다. 생명체와 인공생명체에 대한 여러 발견에서 예술가와 건축가, 디자이너 등에게 시사되는 점은 예전의 ‘위부터 아래로’ 진행되는 디자인의 패러다임이 이제는 ‘아래로부터 위로’변하고 있다는 방향의 변화다. 이 변화는 예술가들에게 디자인의 진화 과정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대신, 형태가 자연스레 진화될 수 있도록 씨를 뿌리는 사람의 역할을 하도록 요구될 것이다(한 21008, 2008).

셋째, 모이스트미디어는 생물학적 텔레마틱스를 통해 궁극적으로 인간의식의 분산과 연결 그리고 무한대의 자유를 실현시키고 나아가 무의식의 세계까지 분석하고자 한다. 로이 에스콧은 브라질 비엔날레에서 최근 웹 작품, 「예술의 ID/ 사이버 ID」을 출품하였다. 모니터에는 참여한 예술가들을 의미하는 정사각형 로고들이 있는데, 이 작품은 모호하고 주관적인 작가들의 정체성을 같은 준거 기준으로 측정하여 한자리에서 비교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 작품을 위해 먼저, 로이 에스콧은 초대된 작가들에게 84개의 주요 단어 목록을 보여주고 자신의 예술가적 정체성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9개의 단어들을 선택하게 했다. 그 선택된 단어들로 그에 연결된 이

4) 양자(量子, quantum)란 에너지의 덩어리를 뜻하며, 양자론이란 에너지가 덩어리 또는 알갱이로 존재한다는 개념을 기본으로 하는 이론이다. 일반적으로 자연 현상은 연속적으로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소립자 차원에서는 에너지가 불연속적인 값을 갖는다. 미시 세계에서 입자들은 파동처럼 움직이며 이때 입자의 에너지는 어떤 진동수의 정수 배로 나타나는데, 이것을 에너지의 양자화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전자 한 개가 가지고 있는 전기량을 전하라고 하며, 어떤 물체의 전기량은 전자의 전하에 정수배를 곱한 값으로 나타난다. 이것을 전하의 양자화라고 부른다. 양자역학은 하이젠베르크의 행렬역학과 슈뢰딩거의 파동역학을 통해 미시 세계의 현상들을 성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행렬역학이 물체의 위치와 운동량 같은 입자성을 이용했다면, 파동역학은 전자처럼 작은 입자의 파동성을 이용했다고 할 수 있다. 하이젠베르크는 원자 내의 궤도를 돌고 있는 전자의 위치를 숫자의 배열로 바꾸었다. 이러한 숫자들의 배열을 행렬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전자는 어떤 특정한 점이나 궤도에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으며,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 같은 물리량은 행렬의 곱으로 표현된다(2017, 세상을 움직이는 수학, 다음백과,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48XX48500020>).

미지 데이터들이 뜨게 되면 각 예술가는 자신의 예술적 정체성을 말해주는 9개의 이미지, 음향 데이터 조합을 받게 된다. 그 이미지들을 누르면 다른 종류의 음향과 이미지들이 몇 단계 걸쳐 열리며 사이버 공간상에서 정체성을 풀어 설명해 주는 것이다. 텔레마틱 연결망은 본질적으로 개개인 정신간의 관계를 맺어주기 위해 탄생한 것이다. 그리하여 일단 우리가 텔레마틱 연결망(mind on line의 상태)상에 의식을 분산시키면 인간 두뇌의 주성분이 지닌 물리적 한계를 넘어서 정신이 자유로워지는 단계에 도달하게 된다(안진석, 2011).

한편, 에드워드 켄의 작품은 종(種)간의 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미국 서부에 있는 나무와 미국 동부에 있는 새를 텔레마틱 시스템으로 연결하여 새의 노래와 식물의 성장이 일정한 기호 데이터로 전달, 해석되어 상호 성장과 감정을 교환하게 하였다. 혹은 박테리아로 한 작업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해 박테리아 조직이나 세포의 정보를 바꾸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척 데이비스는 특별히 고안된 접속 매체를 사용하여 인체의 내면 구조나 메커니즘에 따라 개인이 가상공간에 몰입하게 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관객이 마구처럼 생긴 장비를 머리에 쓰면, 그의 호흡에 맞춰 가상공간 중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도록 되어 있다. 가령, 숨을 들이쉬면 시야에 보이는 가상공간에 본인이 뜨는 장면을 보게 되고, 숨을 내쉬면 몸이 가라앉는 것을 보게 된다. 이 경우는 관객이 몰입과 상호작용을 전혀 의식하지도 못하는 상이 이루어지는 등 밀접하고 친근한 장점이 있다. 일본의 미디어아티스트 케이츠마츠다는 작품 「하이퍼리얼리티(Hyper-Reality)」라는 영상을 만들어 앞으로 우리가 직면하는 중첩의 증감현실을 미디어아트로 보여주고 있다. 한 사람이 버스를 타고 내려 거리를 걷는 동안 내내 뷰파인더나 전자표시장치를 통해 보이는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서 광고를 보거나, 영상통화와 게임을 하고, 건물 주소와 부동산 동향, 소매 판매 할인, 식당 이용 후기 같은 정보를 본다. 슈퍼에 다다르면 카터위에 사이버 애건을 띄우고 물건을 사며 함께 대화를 한다. 슈퍼를 거닐면 진열된 상품의 정보들이 눈 앞에 펼쳐지고, 슈퍼의 사이버 매니저에게 상품에 대한 영상문의를 한다. 슈퍼에서 물건을 사는 도중에 갑자기 어디가 아픈지 신체상태에 대한 정보와 경고가 띄워지고 가장 가까운 약국의 위치를 알려준다. 길안내에 따라 약국에 도달하고 십자가 모양의 영상을 클릭하면 신심안정의 상태를 수치로 제시해준다(류운, 2016). 이 모든 것이 미래 한사람이 기계와 의사소통하며 살아갈 증감현실 세계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런 배경 하에서 예술가들은 생물학적 텔레마틱스라는 매트릭스에 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이 환경에서는 본인이 'hypercortex' 즉, '하이퍼 대뇌피질'이라고 명한 분산된 의식 상태가 요구된다, 이 의식은 그것을 담는 적절한 '하이퍼 신체(일종의 아바타)'를 필요로 하는데, 이것 또한 인간의 의식을 재고하여 새로운 분산된 의식 상태를 이끌어낸 것에 비견되는 신체에 대한 재고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재고와 발견이 가능한 미래예술은 전통적인 영역만을 고집하는 순수예술 비했을 때, 아마도 더욱더 '미묘한 예술'로 보이게 될 것이다. 예술로서 미묘하다고 밖에 불릴 수밖에 없는 까닭은 그것이 생물학, 예술, 인간의 의식 연구, 인공생명, 공학, 신비주의, 컴퓨터 과학 등 전혀 연관이 없어 보이는 상이한 분야들이 미세한 고리로 모두 연결되어 있

는 종류의 예술이기 때문이다. 분산된 의식을 갖는 예술가들이 연결망 속에서 다양한 활동을 벌여 ‘텔레노닉(telenonia)’라는 사고방식을 공유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개방되고, 포용적이며, 협조적이고 건설적인 사고방식으로서, 온 지구상의 개개인들이 의식을 분산시켜 모두 연결되어 있음을 환영하는 마음가짐이라 할 수 있다. 이 사고 방식은 19세기적 산업시대의 편집증적 성격(paranoia)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도출된 것이다. 또한 이런 환경 속에서 예술가들이 개념(conception)을 잡는 마음가짐도 달라지게 되는데, 이 새로운 환경에의 개념을 ‘사이버개념(cyberception)’이라고 칭한다. 기술은 단순히 어떤 문제를 더 깊이 볼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지방법, 즉 생각하는 방식이나 시스템 차원의 변화를 야기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인지방법, 즉 패러다임을 총체적으로 사이버개념이라 불러야 할 것이다. 이것은 다소 해부학적이거나 존재론적인 영역도 포괄하면서 신종 사이버 인간의 주요한 새 신체 기능 중의 하나로 부상하게 된다(안진석, 2011).

V. 맺음말

우리 주변의 기계와 사물이 학습하는 능력과 지능을 갖게 되고 500억 개의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초지능 초연결 사회로의 진화’라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삶에 가장 큰 혁명을 일으킬 것은 최첨단 기술을 통해 인간과 기계의 경계, 그리고 가상과 현실의 벽이 무너지는 세상이다. 생각만으로 자동차가 움직이고, 컴퓨터에 있는 전문지식을 두뇌로 다운받는 이런 공상과학소설에서만 일어날 것만 같은 일이 이미 상용화되기 시작했고, 우리도 이런 초연결사회를 대비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현재 감정에 따라 뇌파를 읽어 자동으로 음악을 틀어주는 뇌파 헤드셋과 어플이 출시됐고, 중국의 난카이대학 연구팀과 자동차제조사 ‘그레이트월모터스’는 운전자의 뇌파를 읽는 자동차를 개발 중이다. 바야흐로 아무런 작동없이 단지 생각만으로 기계를 작동시킬 수 있는 세상이 눈앞에 다가온 것이다. 국내 연구진에 의해서 뇌파로 움직이는 휴먼로이드, 로봇팔 등도 개발되고 있고 소비자의 마음도 읽어내는 기술도 연구 중이다. 이는 인간이 무엇을 느끼고 생각하는지를 기계에 전달하는 BCI(Brain Computer Interface/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BMI(Brain Machine Interface/뇌 기계인터페이스)기술을 통해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KBS미래기획 2030, 2016).

로이에스콧은 이미 20년전에 4차 산업혁명을 통한 미래사회의 변화를 ‘모이스미디어’라는 ‘생물학적 텔레마틱스의 출현(Bio-telematics Emergence)’⁵⁾의 예술개념으로 예견하였다. 생물학적 텔레마틱스의 출현은 미래사회인 초연결사회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5) 모이스미디어는 여러 형태나 경험이 텔레마틱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제공받은 분자구조 형태로 존재하게 해줄 것이며, 이러 현상을 로이에스콧은 ‘생물학적 텔레마틱스의 출현(Bio-telematics Emergence)’으로 명명했다(2011, 안진석, <http://ironyfunny.tistory.com/161>)

로이에스콧(2002)에 의하면, 바이트(bits), 원자(atoms), 뉴런(neurons), 그리고 유전자(genes)의 결합에 의해 생성된 빅뱅(Big b.a.n.g)은 ‘반은 사이버 공간에, 나머지 반은 현실세계에 있는 네트워크’에서의 삶을 성찰하게 한다. 기술은 우리로 하여금 자연에 보다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고, 반대로 자연은 후기 생물학적 자각에 대해 새롭게 정의되고 인식될 것이다. 이 새로운 제2의 자연이 예술가의 활동 영역이 되며, 이 안에서 리얼리티는 단순히 반영되거나 표현되거나 새롭게 창조된다. 또한 모든 모이스트미디어의 출현과 새로운 예술이 도래한 결과, 필연적으로 예술과 건축과 같은 분야간의 경계가 없어지고, 각 분야의 원칙들은 모두 통합될 것이다. 이에 따라 예술은 새로운 학습의 패턴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새로운 미디어로 설계한 건축은 보는 이와 상호작용을 통해 사고하고 느끼며, 보는 이의 반응을 반영한 후 자신의 반응도 되돌려 줄 수 있는 건축이 될 것이다. 이러한 건축물이 들어선 도시 자체는 새로운 형태의 의식과 후기 생물학적 개념이 도입된 사회구조를 표현해주는 하나의 거대한 매트릭스가 될 것이다(안진석, 2011).

로이에스콧이 예견한 미래예술개념, 양자 컴퓨테이션과 양자 텔레포테이션 및 사이버 개념은 가상 현실을 넘어서 최근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⁶⁾ 기술을 통해 현재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 증강현실은 현실에 존재하는 이미지에 가상 이미지를 중첩시켜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는 기술이다. 즉 일본의 미디어아티스트 케이즈마츠다는 작품 「하이퍼리얼리티(Hyper-Reality)」에서 보여준 세상과 같이, 증강현실은 ‘현실’이라는 거시세계와 ‘가상현실’이라는 미시세계가 중첩됨으로서 존재하는 인간이 창조한 ‘가상’과 ‘현실’의 ‘중첩세계’인 것이다.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술가들의 지적, 창의적 개척 활동에서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그들의 의식이다. 21세기를 맞아 우리가 다루게 되는 공간은 르네상스부터 지난 20세기까지 줄곧 의식의 저변에 깔려 있던 유클리드⁷⁾적 공간이 아닌 사이버 공간이다. 유클리드적인 공간이 시점이

6)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영상 및 사진을 보여줄 때 컴퓨터가 만들어낸 유용한 정보를 이미지에 겹쳐서 결합하거나 늘리는 과정을 말한다. 현실에 존재하는 이미지에 가상 이미지를 겹쳐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 주므로 가상현실보다 현실감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컴퓨터 프로세서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전방표시장치를 이용해 정보 디스플레이와 실시간 영상이 결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증강현실을 가장 먼저 적용한 것은 계기판 형태의 전방표시장치(HUDs)로 알려졌다. 전방표시장치란 군용 비행기와 탱크에 사용되는 머리에 쓰는 형태의 컴퓨터 화면 장치다. 일일 중 한 명이 실제의 외부 환경을 살펴보게 되면 조종석 뒷거나 뷰파인더 위로 같은 정보가 나타난다. 미래의 증강현실은 구글 글래스처럼 가벼운 선글라스에 정보 표시를 추가하거나 개인 식별 태그 정보를 추가하는 형태로도 발전될 전망이다. 구글 글래스는 구글이 개발한 웨어러블 기기로 2013년 개발자용 제품 판매를 시작하며 주목받았으나 기술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2015년 판매를 중단했다. 한편, 2016년에는 닌텐도가 증강현실 기술을 적용한 게임인 '포켓몬 고'를 출시하여 큰 인기를 얻기도 했다(2017, 다음백과,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b20j0390n10>)

7) 유클리드(Euclid)는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이다. 이집트의 왕 프톨레마이오스의 초청으로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 연구하였던 알렉산드리아에서 활약하였다. 기하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그는 그리스와 로마 시대를 통틀어 최고의 수학자이다. 고대 문명 국가에서는 토지 측량의 필요성에서 도형의 성질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였다. 유클리드는 삼각형이나 사각형의 특징을 체계적으로 다루었다. 예를 들어, 삼각형 모양의 구조는 안정적이고 견고하기 때문에 건축물이나 시설물 또는 놀이기구 등의 설계 및 설치에 많이 이용된다. 또한 사각형 구조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출입문, 화면 등이 사각형 모양을 띠고 있다. 그가 쓴 책 〈기하학 원론〉은 당시의 수학을 집대성 하였으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책으로 후대에 많은 영향을 끼치며 20세기까지 수학 교과서로 활용되었다. 유클리드가 편찬한 〈기하학 원론〉이 역사상 가장 유명한 수학의 고전이 된 이유는 명제에 대한 논리적인 증명 과정을 통하여 이론을 전개한 특징 때문이다.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기하학은 곧 유클리드 기하학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이후 헝가리의 볼리아이, 러시아의 로바첵스키 등에 의해 타원기하학, 쌍곡기하학 등이 연구되면서 기존의 기하학과는 다른 기하학이 탄생하게 되었다.(2017, 수학교과서에 나온 인물사전, 다음백과,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24XXXXX77058>).

나 원근법 등 우리의 몸을 단위로 측정해 온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몸과 분할, 확실성과 같은 가치가 지배하는 공간이었다면, 사이버 공간은 이와는 대조적으로 정신·불확실성·연결성이 두드러지는 공간이라 말할 수 있다. 현재 예술가나 철학자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직면해 있는 현실은 모호하고 불확실한 무엇으로, 해석자의 은유에 따라 변하는 것이다(안진석, 2011). 심광현(2002)이 지적했듯이, 문제는 사이버문화가 기존의 예술에 대해 던지는 긍정적인 자극들을 오프라인에서의 창작작 중심의 텍스트 생산과 일방향적 전달이라는 제도적 절차에 익숙해진 예술가들이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참고문헌

- 로이 에스콧, 이원권 역 (2002). **테크노에틱 아트**.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 박명숙, 태혜신, 오하영(2014). 감성논리 관점에서 본 국내 최근 융복합 무용작품분석. **한국체육학회**53(5), 393~409
- 최효민(2006). **디지털 매개 공연예술에서의 '몸'의 재 해석과 감성적 소비코드 연구**. 연세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토사나오코, 나카츠 료헤이, 팡 유난, 와타나베 케이스(2016), 제네시스: 유체역학의 시각화로 창조된 뉴미디어아트. 2016 한양대학교 제10회 우리춤연구소 국제학술대회 <융복합 교육시리즈 I> Art&Technology 융복합 교육과 실천을 위한 미래담론, pp. 63-75, 2016년 11월 5일.
- 그냥그냥, 의식의 연결다리 - 로이에스콧 강의중에서. 2017. 01. 10.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xenamc21&logNo=70006480113>. 2006.07.23. 1
- 다음백과. 2017. 01. 05.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v050ma712a23>,
- 다음백과 2017. 01. 10.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b20j0390n10>,
- 류운, 2016, VR | 호접지몽-인문학에서 본 VR(1), Ryuun JYP. 2017. 01. 10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inguk2016&logNo=220873540198>,
- 세상을 움직이는 수학, 다음백과. 2017. 01. 08.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48XX48500020>.
- 수학교과서에 나온 인물사전, 다음백과. 2017. 01. 10.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24XXXXXX77058>
- 심광현, **사이버 시대의 문화와 예술방향** 2007. 01. 29.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oyslee77&logNo=140034007327>, 2017.01.07.
- 아트센타 나비. 2016. 12. 01.
http://nabi.or.kr/archive/creator_db_read.nab?idx=17&pg_page=12&category=&keyword=. 2016
- 안진석, **로이에스콧의 모이스트미디어 그리고 의식**. 2011. 04. 05.
<http://ironyfunny.tistory.com/161>. 2016. 12. 01
- 위키백과. 2017. 04. 30.

<https://ko.wikipedia.org/wiki/%EC%82%AC%EC%9D%B4%EB%B2%84%EB%84%A4%ED%8B%B1%EC%8A%A4>
지식노트, 로이엑스콧, 인간은 이제 나비처럼 살아야 한다. 2014. 11. 14.

<http://namwiya.blog.me/14020296653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다음백과. 2017. 01. 08.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68948>,

한212008, [교육]예술의 테크놀로지화...생명으로 진화, 미국여행자 카페. 2008. 12. 10.

<http://cafe.daum.net/WehGukBang/JOw6/156?q=%B7%CE%C0%CC%20%BF%A1%BD%BA%C4%E0>,

ITS 용어사전, 다음백과. 2017. 01. 05.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62XXXXXX1144>

KBS미래기획 2030(2016). 2부작 4차산업혁명, 경계를 무너뜨리다 : [2부] 인간의 뇌에 접속하라. 2016. 11.27
방영.

TTA정보통신용어사전, 다음백과, 2017. 01. 07.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55XXXXX27047>

Abstract

Roy Ascott's Techno-ethic Arts and World Art Tendencies

Tae, Hye-Shin

Kyunghee University

Our society is in the midst of actual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the future 4th industrial revolution. Roy Ascott already predicted and explained the change of future society with concepts of techno-ethic arts in the area of arts 50 years ago. This study examine the world art tendencies and characteristics of techno-ethic arts proceeding based on his artistic philosophy. Firstly, in the area of the Moist media, It advanced from the connection with the plant and machine and the various worlds of art were created with the fusion of human body and machine. Secondly, the new innovative arts utilized the most advanced scientific knowledge such as the biology, physic, fluid mechanics, quantum and mechanics were emerged. Thirdly, the concept of Bio-telematics Emergence Art advocated by Roy Ascott is being realized through experimented.

Key Words : Roy Ascott, technoethic arts, Moist Media, Bio-telematics Emergence Art, world arts trend

제 2 부 주제발표

4:00~ 4:40	발표 3. 문화예술교육의 수혜적 관점과 공적 가치의 전환 발표자: 홍애령 (상명대학교) 토론자: 임수진 (국민대학교), 전미라 (세종대학교)
4:40~ 5:10	발표 4. 전문무용 교육의 현황과 과제 발표자: 이미하 (국민대학교) 토론자: 홍미성 (우석대학교), 윤혜선 (동덕여자대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수혜적 관점과 공적 가치의 전환

홍애령* (상명대학교)

【국문초록】 본 발표는 지난 12년간 우리나라의 문화예술교육에서 나타난 문화예술교육의 공공재적 특성, 문화복지로서의 수혜적 관점을 점검하고 문화예술교육이 지닌 공적 가치는 무엇인지에 관한 기초적인 개념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기존의 문화복지로서 행해진 문화예술교육과 수혜적 관점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짚어보고 문화예술교육의 공공재적 특성과 공적 가치는 무엇인지 탐색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의 문화예술교육은 문화복지로서 행해지면서 대중성에는 크게 기여했지만 다수의 학습자에게 문화예술을 교육을 통해 널리 보급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공급자(교육자, 예술가)와 수요자(국민)를 구분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이 수혜적인 관점에서 행해지게 되는 단초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초기 단계적 문화복지로서의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교육의 태동기에는 충분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으나 도약기, 확장기를 거쳐 과도기에 이른 현 시점에서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이제 문화예술교육의 수요자들은 단순히 수혜에 머무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문화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실행을 위해 문화수요자들의 문화향유욕구를 지원하고 소통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문화예술교육은 경제적 효과성을 논하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공공재이자 가치재이며 정부나 지역사회단체 등의 개입과 지원을 통해 공고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예술교육의 공공재적 특성은 문화예술교육이 지향해야 할 교육목표 및 교육가치를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모든 이들이 향유하는 공공재로서 문화예술을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는 그 참여자이자 주체자인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용인할만한 가치가 담겨 있어야 하며, 그것이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교육의 공적 가치를 구체화, 명료화할 수 있는 현장연구와 실천, 공적 가치에 근거한 교육과정 설계와 교수학습지도안의 개발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교육의 양적 팽창과 더불어 질적 성숙을 이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문화예술교육, 수혜적 관점, 공적 가치, 문화복지, 공공재, 가치재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문화예술교육은 생경한 개념이 아니다. 불과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기존의 예술교육과 다른 ‘문화’라는 개념이 선행되어있는 ‘문화예술교육’이 무엇을 지칭하고 어떻게 실행해야 그 명칭에 걸맞는 것인지에 대해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다. 비록 2005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 innodance@naver.com

제정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예술교육이 태동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사실 문화예술교육의 태동은 IMF 직후 예술인들의 고용 불안이 지적되고 일자리 창출의 논의가 거세지면서 한편으로는 국악교육의 정상화 논의 끝에 마련된 1999년 국악강사풀제 시범 도입부터라고 볼 수 있다. 국악 분야(1999년)를 필두로 연극(2002년),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2004~2005년)으로 ‘예술강사풀제’가 확장되었으며, 2006년 그 명칭이 ‘예술강사 지원사업’으로 변경되었다. 2010년 디자인, 사진, 공예 분야가 신설되면서 현재까지 총 8개 분야(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디자인, 사진, 공예)에서 예술강사를 선발, 희망학교를 선정하여 파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공교육의 영역에서 기본 교과뿐만 아니라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후 학교, 동아리활동 등 다양한 비교과활동 속에 예술을 만날 수 있는 접근성을 확대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고,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이라는 문화예술교육의 커다란 두 개의 축을 구축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2011년에는 문화예술교육사 제도가 도입되어 예술강사뿐만 아니라 예술 분야 전공생 및 문화재 전수자들 또한 문화예술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국가자격을 취득하여 각 시도 문화시설에서 이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기 위한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그 결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만 15세 이상 국민 10,7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문화향수실태조사에 따르면 1년 이내 학교문화예술교육 외 문화예술교육이 10.6%로 2014년에 비해 3.7%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지난 1년간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률은 2014년 71.3%보다 7.0% 증가한 78.3%로 나타나 학교문화예술교육 외에도 사회 전반적으로 문화예술을 즐기고 관람하는 활동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알 수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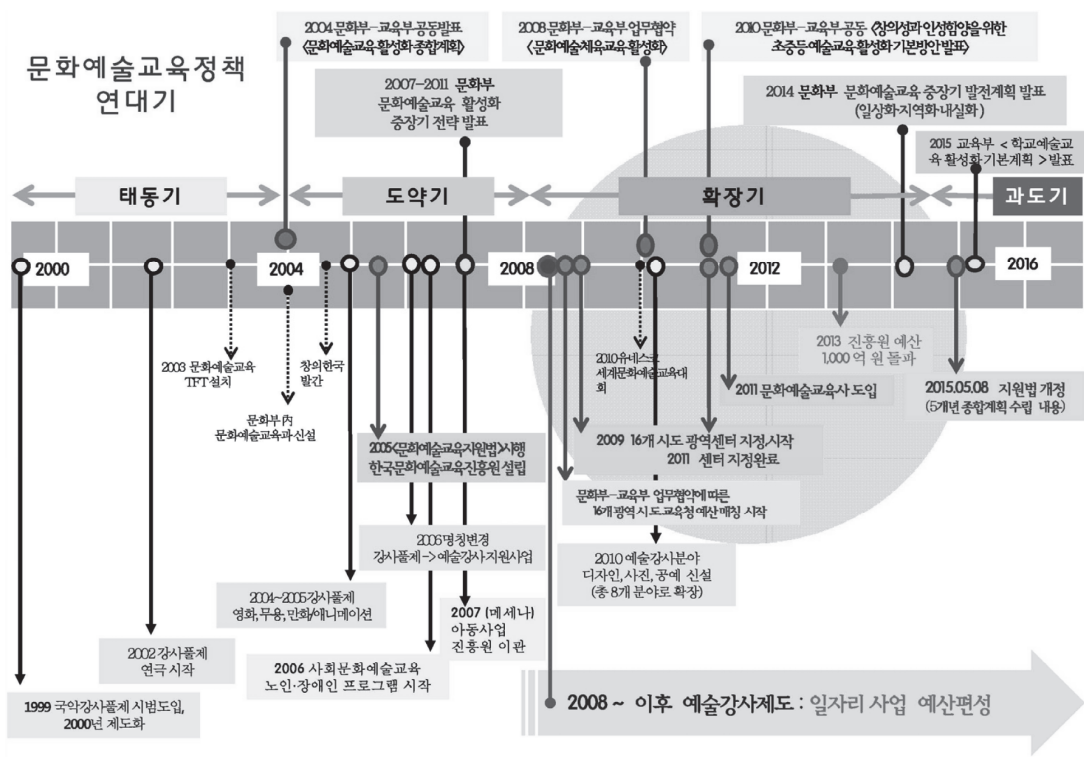


그림 1. 문화예술교육정책 연대기(최보연, 2016)

2016년 기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따르면 문화예술교육정책 예산규모는 총 1,295억에 이른다. 12년전에 비해 비약적으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문화예술교육은 [그림 1]에서 제시한 것처럼 태동기, 도약기, 확장기를 거쳐 현재 과도기에 도래한 것으로 보인다. 즉 2005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과 더불어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 영역의 교육 사업이 문화부(현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의 주도하에 시행되어 점차 지역자치단체 및 민간으로 확대되었으며, 2015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을 기점으로 문화예술교육의 현황과 비전을 재점검하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그렇다면 문화예술교육은 어떻게 걸어왔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그동안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중심으로 각 지역문화재단 및 민간단체에서 행해진 문화예술교육 사업들을 살펴보면, 주로 공모지원 방식의 사업이 이루어졌다. 즉 문화체육관광부 및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주요부처의 예산들이 학교문화예술교육,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영역에서 세부 대상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으로 소요되었으며, 개별 예술강사 및 문화예술단체들이 이에 지원하여 선정되면 시행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 www.arte.or.kr). 이러한 사업구조의 특성상 문화예술교육은 주로 연령, 성별, 지역 등의 차이를 두지 않고 모든 이들을 두루 즐길 수 있는 교육의 형태로 행해지게 되었으며, 자연스럽게 문화복지 및 교육복지의 차원에서 시행되었다.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 문화소외계층이라는 명칭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는 농어촌, 산간지역의 시민들, 군인, 교정시설 수감자,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을 문화예술교육의 수혜자(수요자)로 포함시키고 일반 시민에 대한 문화예술교육과 더불어 이를 점차 보강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때문에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등의 형태로 교육사업의 접근성을 높이고 특정 학습자 집단의 꾸준한 교육이나 참여보다는 많은 학습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향을 취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의 주체는 문화예술교육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되어야 함에도 현재까지는 정부주도하의 공급자 중심의 교육, 수요자를 위한 수혜적 관점을 취하고 있다는 점은 여러 현장 실천가들에게도 비판받고 있다(황경희, 한경원, 김성혜, 김재경, 2016). 이처럼 문화예술교육의 양적 성장 내지는 공급자 중심의 사업 운영을 지양하고 문화예술교육 수요자의 요구와 교육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지향점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발표에서는 그동안의 문화예술교육에서 중심이 되어왔던 수혜적 관점을 비판하며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누려야 할 가치(공적 가치)는 무엇인지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문화복지로서 행해진 문화예술교육과 수혜적 관점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짚어보고 문화예술교육의 공공재적 특성과 공적 가치는 무엇인지 탐색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논의가 문화예술교육의 과도기를 긍정적으로 타계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어떠한 의의가 있는지를 다루며 마무리하겠다.

2. 주요 화두

본 발표의 연구문제 혹은 주요 화두는 다음과 같다.

- 첫째, 현재까지 행해진 문화예술교육은 문화복지로서 어떠한 수혜적 관점을 취해왔는가?
 둘째, 문화예술교육의 공공재적 특성을 무엇이며 어떠한 공적 가치를 지향할 수 있는가?
 셋째, 수혜적 관점을 지양하고 공적 가치를 지향하는 것은 향후 문화예술교육에 어떠한 의의를 줄 수 있는가?

II. 문화복지로서의 문화예술교육과 수혜적 관점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3조는 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으로서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국민의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5, 27-28). 이처럼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명시된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국민의 권리로서 문화예술교육을 인정하고 평생교육으로서의 기회 보장을 의미하고 있다. 이는 문화복지로서 문화예술교육의 대중성에는 크게 기여했지만 한편으로 다수의 학습자에게 문화예술을 교육을 통해 널리 보급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공급자(교육자, 예술가)와 수요자(국민)를 구분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이 수혜적인 관점에서 행해지게 되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문화복지는 1980년대 후반부터 제기된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이지만 뚜렷한 구분이나 형태가 제시되지 않고 정책적 표현으로 자주 사용되는 개념이다. 사전적 의미에서 수혜(受惠)는 “은혜를 입음. 또는 혜택을 받음”을 뜻한다. 그간의 문화예술교육은 중앙정부부처로부터의 시혜(施惠)적 개념으로 시행되어 왔다. 문화체육관광부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으로 대표되는 기관에 의해 시행된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및 전시, 문화예술교육이나 ‘문화바우처’ 사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즉 중앙정부에서는 모든 국민, 그 중에서도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문화소외계층으로 규정한 국민들을 중심으로 문화예술의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초기 단계적인 문화복지로서 문화예술교육이 행해지는 것은 문화예술교육의 태동기에는 충분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으나 도약기, 확장기를 거쳐 과도기에 이른 현 시점에서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이제 문화예술교육의 수요자들은 단순히 수혜에 머무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20세기 후반 유럽의 문화예술정책에서 제기된 논쟁과 무관하지 않다. 프랑스, 영국 등 유럽을 중심으로 20세기 후반부터 문화예술은 사회 여러 분야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을 주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러일으킨다는 측면에서 실용주의적이고 상업적인 목적들에 포함되지 않는 자원이라고 인식되어왔다(최미세, 2014). 이러한 인식은 문화예술정책 분야에서 논의되었던 ‘문화의 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 개념과 연관되어 있다.

1983년 프랑스 문화부의 연구조사부장 오귀스탱 지라르(Augustin Girard)는 유네스코의 의뢰

로 <문화발전: 경험과 정책>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전까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문화의 민주화라는 문화정책의 목표가 문화민주주의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권영걸, 2013). 문화의 민주화는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반 소위 엘리트 중심의 고급문화를 대중들에게 확산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교양을 기르려는 이유와 그 수단을 가지고 있는 일부의 사람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시행하게 하였다. 반면 문화 민주주의는 문화다양성을 기반으로 대중들이 문화예술의 창작과 소비에 주체로 참여하는 것을 지향하는 개념이다. 문화의 민주화가 전문가와 이들에 의해 생산되는 문화에 중심을 두었다면 문화민주주의는 아마추어가 소비뿐만 아니라 문화의 생산에도 직접 참여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와 비슷한 관점에서 문화학자 존 랑스테드(Jorn Langsted)는 ‘문화의 민주화’가 ‘모든 사람을 위한 문화’(culture for everybody)라고 한다면 ‘문화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에 의한 문화’(culture by everybody)라면서 문화수용자의 주체적 측면을 강조하였다(Langsted, 1990). 이러한 논의들은 문화의 민주화로서 문화복지를 위해 미술관과 박물관을 짓고 농어촌 지역을 찾아가서 공연을 보여주고 바우처를 제공하여 관람객을 유치했다면, 이제는 문화민주주의로서 모든 국민이 스스로 문화예술활동을 향유하도록 환경을 만드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문화정책 발전 과정에서도 국가가 문화복지를 실현하고자 노력한 흔적을 볼 수 있다. 지난 정부에서도 문화국가를 지향하였으나 문화의 주체를 국민에 두지 않고 문화를 국가이데올로기 확립의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향유 주체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양적 확대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었기에 국민의 문화권을 신장하는 성과는 미미했다(권영걸, 2013). 보편적 문화와 문화기본권의 개념은 본질적으로 문화예술이 사회공공재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중심을 국민, 시민에 두지 않으면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접근으로 이어져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과거에는 문화예술을 향유한다는 것이 단순히 공연예술이나 영화 관람 등 일방적인 정보 전달의 수혜를 받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이제는 대규모 공간 중심의 전달방식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문화의 규모가 변하고 있는 추세다. 또한 문화예술에 대한 공급자와 수요자의 경계선이 점점 사라지고 공연예술 또한 일시적 프로그램에서 상설 프로그램으로 바뀌고 있다. 문화수요자들의 문화향유에 대한 욕구는 문화예술에 참여해서 수용하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직접 공급자가 되기도 하고 매개자가 되어 끊임없는 소통을 원하고 있다.

III. 문화예술교육의 공공재적 특성과 공적 가치

Jensen(2009)은 미래사회가 문화를 통해 꿈과 감성을 소비한다고 했다. 문화소비를 통한 감성 체험이 소비자를 만족시키며 이전에 비해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문화소비계층은 기본적인 단순구매식의 문화소비보다는 자신이 직접 체험하는 것의 가치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

로 21세기 특정 국가의 문화소비 수준은 문화예술 소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이는 국가의 경쟁력과도 관련된다. 일례로 공연예술극장이나 박물관, 미술관 등의 문화기반시설들은 문화선진국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문화선진국이라는 인상이 강한 국가일수록 사회, 정치적 분야의 자본투자 유치에 유리할 뿐 아니라 국가산업 및 그 생산품의 문화적 이미지를 높게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문화예술은 더 이상 단순한 문화복지의 수단이 아닌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가 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문화예술 및 문화예술교육은 공공성을 지니며 이로 인해 탄생된 콘텐츠 또한 공공재적 특성을 지니게 된다. 대표적으로 서양문화권에서 일찍이 설립된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태동과 더불어 다수의 예술작품과 역사적 기록들을 일반 국민과 시민에게 공개하고 공유하는 공공성을 보여준다. 일례로 1793년 개관한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은 소수의 왕족 및 귀족 개인재산을 시민전체의 공적 소유물로 전환시켜 국유화하였으며 시민들을 무료로 입장하도록 하여 평등과 시민의식을 공고히하는 데에 기여했다(조선령, 2007). 이러한 문화소비를 통해 모든 국민과 시민의 인지적, 정신적 삶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복지적 민주주의의 사례라 할 수 있다(김상원 외, 2011). 현재 많은 국가에서 박물관과 미술관을 무료로 개방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박물관, 미술관과 같은 문화기반시설 외에도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예술작품은 공공재인가? 문화예술작품에 대한 공적지원은 1966년 공연예술단체들의 비용 압박문제로부터 제기되었다(Baumol & Bowen, 1966). 일반적인 산업에서 생산단가를 줄이는 등의 노력으로 생산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반면, 공연예술산업은 예술활동 그 자체를 창조해내는 연기자, 무용수, 스태프들을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공연예술상품의 질적 수준은 출연자들의 예술적 전문성에 의해 결정되므로 쉽게 대체가 되거나 비용을 절감할 수 없다. 그럼에도 공연예술, 시각예술 등을 포함한 문화예술작품은 경제적인 가치로 따질 수 없는 문화적 가치를 제공하고 풍요로운 사회조성과 인간성을 회복하는 등의 효과를 지니고 있기에 새로운 경제학적 시각을 요구하게 되었다(이상호, 2009).

이에 따라 등장한 개념이 문화예술지원이다. 중앙정부나 지역자치단체, 민간기업의 경제적 투자를 통해 문화예술지원이 가능한 근거는 문화예술작품이 사적재화이면서 동시에 공공재적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이정만, 2012). 특정 개인작가의 미술작품은 선호하는 소비자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원하는 사람에게 판매할 수 있으며, 소유권은 미술작가에서 금전적 대가를 지불한 소유자에게 넘어간다. 소유권이전 행위는 사적재화의 특징이지만, 미술작품 소유자가 집에 걸어 놓고 작품을 감상하는 소비행위를 할지라도 작품이 소모되거나 마모되지 않는다. 또한 방문객이나 다른 미술관 임대를 통해 소유자 외에도 작품을 감상할 수 있으며, 이때도 마찬가지로 소모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 작품 감상자는 소유권이 없음에 불구하고 문화가치를 즐기고 느낄 수 있는데, 미술작품이 개인소유의 사적재화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Marshall, 2007).

최종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은 어떠한가? 일반적으로 교육서비스는 공공재(public goods) 또는 가치재(merit goods)로 분류된다. 공교육의 형태로 제공되는 초·중등교육은 정부가 제공하는 일종의 교육서비스이므로 공공재라 볼 수 있지만 국민의 세금을 투자하여 교육을 제공하는 이유는 그것이 가치재이기 때문이다(한국교육개발원, 2014). 가치재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사회가 수요로

하는 재화로 교육, 주거, 의료, 문화 등이 있으며 경제적 기능이 가능하지만 바람직한 수준의 거래나 질적 만족도가 낮아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이정만, 2012). 그러므로 문화예술교육 또한 경제적 효과성을 논하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공공재이자 가치재이며 이는 정부나 지역사회단체 등의 개입과 지원을 통해 공고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예술교육의 공공재적 특성은 문화예술교육이 지향해야 할 교육목표 및 교육가치를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모든 이들이 향유하는 공공재로서 문화예술을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는 그 참여자이자 주체자인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용인할만한 가치가 담겨 있어야 하며, 그것이 실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흔히 문화예술교육의 공공성(또는 공익성)이라고 표현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공적 가치'(public value)라는 개념을 활용하도록 하겠다. 공적 가치는 Mark Moore(1995)가 공공 행정(public administration) 분야에서 창안한 개념으로 공공성(publicness)과 유사한 개념으로 다루어져 왔으나(신희영, 김태수, 2007), 공공성, 공익성이 이념을 의미하는 반면 공적 가치는 실천 방식으로 인식되는 경향(김재철, 2007)이 있으므로 문화예술교육에 더 적합한 개념이라 하겠다.

전통적 개념으로 공적 가치는 생산자(또는 공급자)가 공공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규정하고 책정하는 것, 대중에게 돌아가는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행해지는 공공 서비스로 여겨졌다(Brooks & Wiggan, 2009). 그러나 최근에는 행정, 교육, 방송 및 언론, 교육, 스포츠,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논의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국가별 인재의 경쟁력 강화(오욱환, 2008), 사회복지에서는 사회적 통합(신희영, 김태수, 2007), 방송언론에서는 보편성(김재철), 스포츠에서는 스포츠의 도구적 가치(오현택, 이정연, 김방출, 2007), 문화예술에서는 대중성과 소통(최미세, 2014)이 각각 공적 가치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공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신뢰성(credibility), 합법성(legitimacy), 정책 및 체제(system)의 지원이 요구된다(Sam, 2011)

현대적 개념으로 공적 가치는 주어지는 것(given)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made)으로 이해된다(유정애, 2015). 그러므로 경제적 가치, 정치적 가치, 문화적 가치, 예술적 가치 등을 포괄적으로 부여하고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문화예술교육이 지닌 공적 가치가 무엇인지 규명하고 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및 지역사회단체의 협력을 통한 노력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Benington & Moore, 2007).

지금까지 제시한 문화예술교육의 공적 가치는 새삼 새로운 것이 아니다. 2010년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The 2nd World Conference on Arts Education), 제36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서울 어젠다: 예술교육 발전목표'(The Seoul Agenda: Goals for the Development of Arts Education)가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아르떼365, 2016). 193개국에서 채택한 서울 어젠다는 이후 세계 각의 문화예술교육 정책 이행 실적을 분석하는 공통적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유네스코 석좌 대학교수 등 국제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서울 어젠다를 기반으로 예술교육 발전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서울 어젠다는 2006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개최된 제 1회 세계대회에서 도출된 ‘유네스코 문화예술교육 로드맵(UNESCO Road Map for Arts Education)’을 토대로 2009년 제2회 세계대회 준비에 앞서 모인 국제자문위원회(IAC: 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 회의에서 초안이 작성되었다. IAC는 ‘탈산업화’라는 경제적 맥락 속에서 창의적이고 적응력 있는 인력의 필요성 뿐만 아니라 평화, 문화적 다양성, 문화 간 이해 등에 관심이 있었으며,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사회문화적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 문화예술교육이 직간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데 동의했다.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이 이러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프로그램 기획과 실행이 필요하다. 서울 어젠다는 이러한 사안을 구성 원칙으로 삼고 있다. 서울 어젠다 전문은 2010년 제 2회 세계대회 준비기간 동안 수정을 거친 뒤, 대회 기간 중 전문가 의견과, 발표 및 토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수정안이 2010년 5월 28일 폐회식에서 발표되었으며, 총 3개 목표, 13개 전략, 39개 실천과제로 이루어져 있다(〈표 1〉 참조).

표 1. 서울 어젠다 목표와 전략(유네스코, 2010)

목표	전략
1. 심도 있는 교육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 지속적 요소로서 예술교육의 접근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1.a 어린이와 청소년의 조화로운 창의적·인지적·감성적·미적·사회적 발달의 근간으로서 예술교육을 주창한다. 1.b 예술교육의, 예술교육에 관한, 예술교육을 통한 평생교육 및 세대간 교육을 촉진하고 장려한다. 1.c 예술교육을 통해 정규·비정규 교육시스템 및 구조의 재구축을 촉진한다. 1.d 예술교육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예술교육정책을 활성화하며 예술교육 리더십을 제고하기 위한 역량을 개발하여야 한다.
2. 예술교육 활동과 프로그램은 그 착상과 전달 면에서 양질의 수준을 유지하도록 한다.	2.a 학교 및 학교 밖의 교육프로그램에서 예술가와 교육가 간의 협력을 촉진한다. 2.b 교육자, 예술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예술교육 훈련이 이뤄지도록 보장한다. 2.c 사회 내 다양한 분야에 걸쳐, 다수의 이해관계자들 간에 예술교육을 위한 파트너십을 개발하도록 한다. 2.d 예술교육에 있어서 이론, 연구, 실천 간에 논의 및 상호교류를 촉진한다. 2.e 이해당사자들과 사회 각 분야간의 문화예술교육 파트너십을 추진한다.
3.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사회적·문화적 도전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예술교육의 원리와 실천을 적용한다.	3.a 사회 전반의 창의적·혁신적 역량 강화를 위해 예술교육을 적용한다. 3.b 사회적·문화적 복지를 향상시키는 예술교육의 역할을 인식하고 발전시킨다. 3.c 사회적 책무, 사회적 통합, 문화 다양성 및 문화상호간 대화를 촉진함에 있어 예술교육의 역할을 지원하고 제고하여야 한다. 3.d 세계평화로부터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지구적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예술교육 역량을 촉진한다.

이러한 서울 어젠다는 일종의 문화예술교육의 공적 가치를 담고 있는 초안이라 할 수 있다. 이를 기점으로 세계 각국에서는 후속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그 결과에 대한 명확한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목표, 전략, 실천과제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서울 어젠다를 기초로 한 문화예술교육의 공적 가치가 무엇인지 규명하고 구체적인 교육과정이나 시스템의 개발이 요청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개인이 인식하는 개인적 가치가 사회적 가치, 공적 가치와 환원되어 보다 적극적인 형태의 문화복지, 수혜적 관점이 아닌 주체적 관점으로서의 문화예술교육을 지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IV. 요약 및 제언

본 발표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정 12년 후인 현 시점에 그동안의 문화예술교육에서 중심이 되어왔던 수혜적 관점을 비판하며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누려야 할 가치(공적 가치)는 무엇인지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문화복지로서 행해진 문화예술교육과 수혜적 관점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짚어보고 문화예술교육의 공공재적 특성과 공적 가치는 무엇인지 탐색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의 문화예술교육은 문화복지로서 행해지면서 대중성에는 크게 기여했지만 다수의 학습자에게 문화예술을 교육을 통해 널리 보급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공급자(교육자, 예술가)와 수요자(국민)를 구분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이 수혜적인 관점에서 행해지게 되는 단초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초기 단계적 문화복지로서 문화예술교육이 행해지는 것은 문화예술교육의 태동기에는 충분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으나 도약기, 확장기를 거쳐 과도기에 이른 현 시점에서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이제 문화예술교육의 수요자들은 단순히 수혜에 머무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문화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실행을 위해 문화수요자들의 문화향유욕구를 지원하고 소통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문화예술교육은 경제적 효과성을 논하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공공재이자 가치재이며 정부나 지역자치단체 등의 개입과 지원을 통해 공고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예술교육의 공공재적 특성은 문화예술교육이 지향해야 할 교육목표 및 교육가치를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모든 이들이 향유하는 공공재로서 문화예술을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는 그 참여자이자 주체자인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용인할만한 가치가 담겨 있어야 하며, 그것이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예술교육의 공적 가치를 구체화, 명료화할 수 있는 현장연구와 실천을 병행해야 한다. 현재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각 개인이 인식하는 개인적 가치, 사회적 가치 등은 중구난방식으로 개별화되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화예술교육의 체계를 공고히하고 수혜적 관점에서 벗어나 주체자로서 적극적인 문화예술향유를 위해서는 각 개인이 공통적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공적 가치를 구체화하고 명료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사회문화예술교육 등의 영역에서 예술강사, 문화예술교육사, 학습자들을 통해 실천적으로 점검되어야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공적 가치에 근거한 교육과정 설계와 교수학습지도안의 개발이 요청된다. 현재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 그리고 기타 공모지원사업 등을 통해 신생되고 사라지는 문화예술교육의 영역들은 단발성 사업에 그치고 마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교육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평생교육으로서의 가능성을 획득하기 위해 공적 가치를 기준으로 한 교육과정의 설계가 필수적이며 이를 체계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교수학습지도안의 개발과 보급이 요청된다. 이와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교육의 양적 팽창과 더불어 질적 성숙을 이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권영걸(2013). **문화 융성의 기초, 문화기본권**. 서울신문 오피니언 열린세상(2013.03.08.)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308030007&spage=1>. 2017.05.17. 검색
- 김상원, 박순찬, 김영석, 오륜(2011).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컬처노믹스 복지(Culturmomics Welfare) 실현 방안에 관한연구. **인문콘텐츠**, 22, 163-181.
- 김재철(2007). 공영방송의 공적 가치 인식과 수신료 부담의지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21-2.
- 신희영, 김태수(2007). 공적 가치의 이론적 배경과 역사적 변천.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33.
- 아르떼365(2016). **국제적 가이드라인을 넘어 새로운 도전으로**. <http://www.arte365.kr/?p=50713>. 2017.05.17. 검색
- 오욱환(2008). 교육정책에서 공적 가치와 사적 자유의 딜레마. **교육사회학연구**, 18(1), 93-109.
- 오현택, 이정연, 김방출(2007). 스포츠의 공공성과 공동체주의. **한국체육학회지**, 46(2), 57-65.
- 유네스코(2010). **제2차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서울 아젠다**. 유네스코.
- 유정애(2015). 스포츠교육학의 공적 가치 의미와 기능 탐색. **체육과학연구**, 26(2), 329-341.
- 이상호(2009). 문화경제학의 쟁점과 가능성: 트로스비와 클래머의 논의를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 76, 176-203.
- 이정만(2012). 사립미술관의 공적 문화가치와 관련변수에 관한 연구-천안 리각미술관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경제연구**, 15(1), 95-114.
- 조선령(2007). 변화하는 문화환경과 미술관의 공공성문제: 기획전시를 중심으로. **현대미술사연구**, 22, 199-232.
- 최미세(2014). 문화예술의 공적가치와 문화민주주의. **독일어문학**, 64, 395-415.
- 최보연(2016).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현황과 새로운 방향성을 위한 탐색.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 토론회 자료집**, 1-11.
- 한국교육개발원(2014). **단위학교 교육서비스의 범위확대에 따른 재정투자 변화 양상**. 한국교육개발원 이슈페이퍼 2014-12.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5).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서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황경희, 한경원, 김성혜, 김재경(2016). 학교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토론.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 토론회 자료집**, 39-46.
- Baumol, W. J., & Bowen, W. G. (1966). *Performing Arts: the economic dilemma*. New York: The Twentieth Century Fund
- Benington, J., & Moore, M. (2007). *From private choice to public value?*. Institute of Governance & Public Management, Warwick Business School.
- Brooks, S., & Wiggan, J. (2009). Reflecting the public value of sport. *Public Management Review*, 11(4), 401-420.
- Jensen, R. (1999). *Dream Society*, 서정환 역(2005). 드림 소사이어티. 서울: 리더리드 출판.
- Langsted, J. (1990). Strategies in cultural policy, in Jorn Langsted(ed), *Strategies: studies in modern cultural policy*(pp.16-18), Aarhus: Aarhus University Press.
- Marshall, J. (2007). *The economics of public support for the arts*. SIPP Briefing Note, Saskatchewan Institute of Public Policy, University of Regina.
- Moore, M., & Khagram, S. (2004). *On creating public value: what business might learn from government about strategic management*. A Working Paper of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itiative.
- Sam, M. (2011). Building legitimacy at sport canada: pitfalls of public value creation?, *International Review of Administrative Sciences*, 77(4), 757-778.

Abstract

Exploring Beneficial Perspective on Culture and Arts Education and its Public Value

Hong, Ae-Ryung

Sangmyung University

Based on the expanding beneficial perspective on Culture and Arts Education and its public valu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beneficial perspective on Culture and Arts Education and its public value in Korea. For doing this, this paper has classified the concept of cultural welfare, beneficial perspective, characteristics as public goods, and public value into classical and modern concepts and re-conceptualized it throughout diverse concepts implemented in several areas. Thus, this paper has explored beneficial perspective on Culture and Arts Education and the meaning of public value in Culture and Arts Education. Lastly, this paper has suggested the conceptual framework to extend the areas that can be applied the public value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with reflection about academic and practical activity. Also curriculum development and application for realization of the public value were needed.

Key words : Culture and Arts Education, beneficial perspective, cultural welfare, public goods, merit goods

전문무용 교육의 현황과 과제

이미하* (국민대학교)

【국문초록】 ‘하이컨셉과 하이터치’의 개념인 ‘개념과 감성의 시대’란 주제가 대두되고 있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정보화시대로서 지식 근로자가 주목받던 시대였다면 이제 2010년 이후에는 하이컨셉의 시대로 모든 분야에서 창작자 및 타인과 공감하는 능력의 소유자들이 주목을 받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변화하는 새로운 개념시대에 맞추어 무용도 대중화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많은 해외의 우수 발레단과 국제 콩쿨을 휩쓸며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전문무용교육의 현장에서는 현재 여러 과제들이 남아있다. 지나친 체격조건과 기능만 강조하고 있어 학습능력이나 창의성이 풍부한 다양한 학생들을 뽑을 수 없는 현재 예술중고등학교와 대학교 무용과 입시제도에서 좀더 다양한 인재상을 등용할 수 있도록 입시제도의 방법을 보완할 수 있다. 절대평가인 수능제도의 반영, 다양한 생각을 독려할 수 있는 에세이의 반영, 실기평가에서도 체격조건만이 아니라 다양한 해석능력을 가진 우수한 인재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 평가제도 등을 고안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인재상을 보여주고 다양한 직업이 개발될 수 있도록 대학내에서 적극적으로 직업교육을 기획할 수 있다. 기능교육중심의 전문무용교육의 현장에서 좀더 인문교양의 학습도 적극적으로 강조하여 신체, 정서, 인지, 인성 모든 면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예술교육이 도와야 할 때이며 이를 인지할 수 있게 강사들을 재교육하는 방법이 논의되어야 한다. 하이컨셉시대에 무용인들이 감성과 공감능력을 기를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사회에 좀 더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또한 무용인들이 전인교육을 통해 기능교육과 외모 중심에서 한 걸음 나아가 지덕체를 고르게 겸비한 건강한 무용인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많은 역할을 하여 그것을 본 많은 일반인들이 건강한 무용인의 상을 보고 다시 무용인이 되고 싶게 리드 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주요어 : 전문무용교육, 무용기능교육, 예술교육, 무용과 입시제도, 무용전인교육

I. 서론

1. 하이컨셉과 하이터치의 시대

2008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본인은 사설무용학원과 대학의 교육 현장에 종사하면서 많은 강사교육을 진행해왔다. 그중 문화창조와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특강 중에 가장 많이 대두 되었던 주제가 바로 ‘새로운 미래가 온다’의 저자 다니엘 핑크의 ‘하이컨셉과 하이터치’의 개념인 ‘개념과

* leemeeha@hanmail.net

감성의 시대'란 주제이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정보화시대로서 지식 근로자가 주목받던 시대였다면 이제 2010년 이후 21세기에는 하이컨셉의 시대로 모든분야에서 창작자 및 타인과 공감하는 능력의 소유자들이 주목을 받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다.

정보와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모든 분야에서 리더로서 사회를 이끌어 갔다면 이제 미래인재상은 디자인, 스토리, 조화, 공감, 놀이, 의미등을 지녀야 한다는 주장이다. 비즈니스에서 나온 개념이지만 우리 문화예술교육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디자인'은 기능만으로는 안되고 아름다움으로 감성을 터치할 수 있어야 하며, 단순한 주장만으로 안되고 '스토리'를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며, 집중만으로는 안되고 경계를 넘나드는 '조화'가 필요하다고 한다. 논리만으로는 안되고 사람들의 감정을 느끼는 능력으로 '공감'을 얻어낼 수 있어야 한다. 타인을 격려하고 그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 타인과 관련을 맺고 연대하는 능력이 공감 능력이며 이것은 '리더쉽'과 관련이 깊다고 한다. 진지한 것만이 아니고 '놀이'처럼 재미가 있어야 하며 물질의 축적만으로는 부족하고 우리를 살아 있게 하는 원동력인 '의미',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미래의 인재상에 대한 개념은 감성, 공감, 스토리 등 모두 예술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지식과 주지주의 시대에서 점차로 문화예술의 시대로의 전환이 각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 문화예술의 한가운데에서 교육을 맡고 있는 무용계에는 점차 사회에서 필요한 분야로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새로운 개념들의 시대에 우리 발레교육은 어떠한 사회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지 현재 발레교육은 어떻게 나아가고 있을까. 발레교육계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할까 고민되지 않을 수 없다.

2. 무용의 대중화

이러한 새로운 개념들의 시대에 발 맞추어 무용의 대중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2007년에서 2015년까지 조사되고 있는 무용학원의 수는 전국에 약 1,148개에서 1,200여개로 늘어나있다. 전국에 등록되어진 학원의 숫자만 1200여개, 그렇다면 등록되지 않고 전국에 크고 작은 학원들은 더욱 많다는 조사결과이다. 이렇게 많아진 무용학원들은 이제 무용학원간의 경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여가를 보내고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다른 장르의 교육기관이나 문화생활과의 경쟁 상태에 있다.

하이컨셉시대에 한국의 경제적인 풍요와 문화적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선진국들처럼 삶을 윤택하게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뿐만이 아니라, 미, 건강, 여가향유에 대한 많은 관심이 높아졌다. 무용전공생의 숫자는 현저히 줄고 있는데 사설무용학원의 개수가 늘고 있는 수치를 본다면 이러한 무용이 대중화가 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을 엿볼 수 있다.

2007년에는 전국 38개 대학교와 6개의 전문대학에서 무용학과를 운영 중이며 매년 약 1400여명의 무용전공 졸업생들이 배출되었다. (정미란, 2007) 그러나 2015년 조사되고 있는 대학졸업생

은 현재 대학무용과와 정원수가 줄어들고 있어 매년 900여명의 졸업생으로 집계되고 있다(이지선, 2015). 바로 무용 전공자들은 줄고 있으나 무용을 즐기려는 사람들의 숫자는 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사설무용학원계에서도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매년 무용 전공자들의 숫자는 늘고 있지 않으나 취미생활로 향유하려는 일반인들이 무용을 배우려는 취미무용인의 수강숫자가 늘고 있다. 줄리아발레아카데미도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전공생의 10배가 넘는 취미생을 보유하고 2017년 현재 500여명의 취미생을 교육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초반부터 ‘영어발레’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던 문화센터 파견업체인 ‘트윈클발레’, ‘줄리스발레’ 등에 의해 3000여개 이상의 발레강좌가 매년 진행되는데 이는 모두 전공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아닌 일반인의 대중화에 주력한 프로그램이었다. 이렇게 대중화에 주력한 문화센터의 발레교육파견업체들은 현재 ‘YS’, ‘아미고’, ‘엘리스’, ‘오테프’ 등 10여개가 넘는 업체가 문화센터에서 시장의 흐름에 맞추어 경쟁적으로 사회의 필요에 따라 일반인들의 필요에 발맞추어 발전하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발레교육이 간과해왔던 ‘발레교육의 일반적인 효과’에 주목하고 소수의 전공인들만 도제식으로, 경쟁적으로 키워오던 기존의 발레교육의 틀을 깨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그들만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비슷한 분야인 요가, 필라테스, 수영, 헬스, 골프, 혹은 미술, 피아노, 리듬체조, 더 나아가서는 스파, 다이어트, 여행, 체육활동과 같은 전체 여가 활동과 같은 선상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어린이 체육교육기관인 ‘트니트니’는 체육을 좀 더 대중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체육도구를 개발하여 프로그램에 활용한다. 자체 개발한 스펀지로 만들어진 볼링도구나 역기도구 등이 그것이다.

2000년대 초반에 어린이 발레에서 많은 호응을 얻었던 발레교육계도 2016년 발레피트니스 자격증을 주는 업체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성인발레의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다. ‘발레피트니스’, ‘발레핏’, ‘발레필라테스’, ‘발레스트레칭’, ‘발레요가’ 등으로 좀 더 대중들이 원하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을 가꾸고 싶은 기대에 부응하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발레교육의 대중화에 힘쓰고 있다. 1조원 규모의 요가시장이나 5000억 규모의 뮤지컬 시장 등 부상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을 이해한다면 무용계의 대중화에 대한 전망이 더욱 밝을 것으로 보인다.

II. 전문무용교육의 현황과 성과

하이컨셉시대에 발맞추어 무용의 대중화가 일어나고 있는 현재 전국에는 선화, 예원, 계원, 브니엘, 전주예술중학교를 포함한 5개의 예술중학교, 서울, 선화, 덕원, 계원, 고양, 안양, 인천, 대전, 충북, 충남, 광주, 전주, 전남, 강원, 경북, 부산, 브니엘, 울산예고를 포함하는 18개의 예술고등학교, 35개 대학교와 4개의 전문대학교에서 전문무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해 900여명의 무용

전공 대학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해외에서 많은 한국 학생들이 국제콩쿠르에서 좋은 기량을 발휘하며 2010년 이후 세계의 영재들과 겨루어 좋은 실적을 거둬내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참가자를 보유하는 Youth America of Grand Prix 콩쿠르에서 2012년 김기민의 대상을 시작으로 2015년 김신영, 2016년 전준혁 등의 대상 행보와 2017년 세계 18개국 총 1300여명의 경쟁자들을 이기고 여자 프리주니어 1위, 여자 주니어 1위, 남자 시니어 2위 등의 훌륭한 무용수들을 배출해내고 있다. 로잔 콩쿠르에서도 2016년 세계 20명의 파이널리스트 중 3명, 2017년 8명 파이널리스트 중 1명 등 매년 최고의 콩쿠르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90년대 이후 좀더 해외에서 많은 러시아 정통의 바가노바식 메소드를 들여오고, 훌륭한 교사들을 초빙하여 많은 테크닉 티칭 메소드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전문무용교육의 기능적인 기량은 점차로 높아졌고 경제적 여유와 영양의 풍부함 때문에 학생들의 체격조건이 더욱 훌륭해지면서 국내외 우수 무용단에서 활약하는 훌륭한 무용수들이 점차로 많이 배출되고 있다.

전문무용교육이 배출해온 전공생들의 국내 취업과 직업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동안 조사 되어 온 자료를 보면 2007년에 등록된 사설무용학원은 지역별로 서울 (198), 경기도 (257), 경남 (100), 부산(97), 전북(71), 대구(65), 경북(55), 대전(54), 광주(44), 충남(38), 충북(38), 전남(37), 강원(34), 울산(34), 인천(29), 제주특별자치도(19) 순으로 전체 1,148개가 등록되어 있다 (정미란, 2007). 2015년 사설무용학원은 지역별로 서울 (294), 경기도 (268), 경남 (130), 부산 (70), 전북(70), 대구(60), 경북(55), 대전(50), 광주(40), 충남(70), 충북 (4), 강원(30), 울산(20), 인천 (50), 제주특별자치도(10) 순으로 서울 지역만 8년 동안 100여개의 학원이 증가하고 인천지역에도 20여개의 학원이 증가 한 것으로 집계되어 전체 1,200여개가 등록되어 있다.

2000년대 들어 무용시장에 크게 자리 잡으며 무용의 저변확대와 특히 어린이발레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한 문화센터 파견업체는 크게 영어발레의 시조 격인 두 업체인 (주)줄리킴의 줄리스 영어발레와 (주)트윈클의 트윈클영어발레가 대부분의 수업을 차지하고 있다. 2004년 설립하여 2014년 법인으로 전환한 주식회사 트윈클은 영어발레 프로그램으로 2015년 4월 현재 무용 강사 121명과 정규직 26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치원에 1000개의 강좌, 문화센터에 1426개의 강좌를 제공하고 있고 매년 30~40 여명의 강사를 채용하며 무용시장을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문화센터는 전국적으로 5000여명이 넘는 어린 학생들에게 비교적 저렴하게 양질의 교육을 폭넓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에게 가장 많은 무용교육을 제공하고 있어 영유아교육을 받은 많은 학생들이 사설무용학원이나 예술학교로 흡수 될 수 있도록 무용을 소개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02년 설립하고 현재까지 영어발레 프로그램의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 줄리킴의 줄리스 영어발레 또한 54명의 무용 강사와 정규직 2명을 보유하며 문화센터에 138개의 강좌, 유치원에 161개의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YS, 엘리스, 아미고, 오데트 등의 후발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문화센터에 발레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업체로 부상하고 있다.

약 1200개의 사설무용학원에서 보유한 학원 강사들과 최소 200여명의 문화센터 강사들이 제공하는 3,000개가 넘는 강좌들, 그리고 여기에 13,000여개의 초중고 체육교사, 200여명의 발레단 무용수, 5개의 예술중학교, 15개의 예술고등학교 무용강사, 38개 대학의 무용과 교수, 그리고 조사 중인 예술 강사를 포함하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직업군이 더 발전될 가능성을 보유한 채 우리 앞에 개발되어 있다. 2011년 문화부 예술분과에서 통계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이후 무용공연 시장이 4배 규모로 증가하였고, 공연 분야 95,000 여 명 중 4,414명의 종사자가 집계되었다.

표 1. 공연시장 규모(인터파크 공연판매분 기준)

(백만 원 단위)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무용/전통	1,059	3,748	3,250	4,181	4,150

표 2. 산재보험 적용 대상 : 57,725명 (공연·영상분야 임시고용직 및 자유전직)

합 계	자영/고용주	정규고용직	임시고용직	자유전문직2)	무직/은퇴자
95,0992)	13,725 (14.4%)	23,653 (24.9%)	16,353 (17.2%)	41,369 (43.5%)	-

표 3. 고용형태별 예술인 수 (공연·영상 분야)1)

(단위 : 명)

직업 세분류	종사자수	직업 세분류	종사자수
국악 및 전통예능인	2,701	촬영기사	3,873
지휘자·작곡가 및 연주가	16,715	음향 및 녹음 기사	3,565
가수 및 성악가	6,303	영상·녹화 및 편집 기사	7,479
무용가 및 안무가	4,414	조명기사 및 영상기사	4,323
감독 및 기술 감독	20,191	기타 연극·영화 및 영상 관련 종사자	5,890
배우 및 모델	14,850	합 계	95,099

최근 2015년에 재조사된 공연예술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무용공연 건수 2,263건, 관객수 1,040,751명으로 꾸준히 공연예술 분야 활동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무용공연활동 중 발레공연의 활동이 무용 전체 분야의 50%의 공연건수와 관객수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공연단체 종사자 수도 2012년 대비 9.9% 증가하여 5,011명이 증가했고 매출액 또한 2012년 대비 16.2% 증가한 545억원이 증가하였다고 한다(문화관광부 공연예술실태조사, 2015). 이러한 무용계의 시장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졸업자 940여명에서 204명만이, 대학원 155명중 26명만이 취업한 것으로 보고 되어 20% 미만의 낮은 취업률이 보고되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표 4. 무용학과 및 취업자(2012)

구분	학과수				학과별 취업자					
	전문 대학	산업 대학	대학	각종 대학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졸업자	취업자	졸업자	취업자	졸업자	취업자
무용	6		52	4	84	32	941	204	155	26

무용전공생의 숫자는 줄어들지만 문화센터의 수요와 사설무용학원의 수요는 늘어가고 있다. 적극적인 직업창출과 다양한 프로그램개발로 무용계의 대중화를 통해서 무용계 산업을 키우고 발전 시켜나가야 할 때이다. 무용계 산업이 발전되면 다시금 줄어드는 무용전공생의 취업률을 높여 무

용전공생들이 적극적으로 무용을 포기하지 않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 무용계를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Ⅲ. 전문무용교육에 남겨진 과제들

1. 직업교육 및 입시제도 변화 필요

2000년대에 들어서 유수 해외 무용단의 훌륭한 무용수들과 국제콩쿠르의 수상을 이루어내며 한국의 전문무용교육의 위상을 높이고 그렇게 길러진 전문무용수들은 사회에서 지도자로서, 전문무용수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기능교육의 위상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 동남아학생들이 한국으로 유학을 오거나 각종 경연대회 실적들로 그 결과를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높아진 기능의 보유자들의 취업으로의 연결은 아직도 취약한 상황이다. 20% 미만의 취업률이 대학 내 무용과의 축소 결과를 불러오는 실정이다. 물론 정규직이 많지 않은 전문무용계의 특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용계가 적극적으로 취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점이기도 하다. 첫 번째로 전문무용교육이 기능교육만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어려서부터 테크닉이 부족하거나 체격조건이 좋지 않으면 전문무용교육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다. 이해력이 풍부하고, 아이디어와 창의력이 많고 예술성이 풍부한 학생들은 사회에 나와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새로운 작품을 창조 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창출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문무용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예술중고등학교나 무용과 대학에 입학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무용인들을 보면 체격조건이 예쁘고 테크닉 기술만 좋던 무용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체격조건이나 무용수로서의 테크닉 기술보다는 아이디어와 창의력이 넘치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과 경험, 사회와 자라나는 세대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으로 새로운 분야들과의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고 있는 훌륭한 무용인들이 많다. 국민대 문영, 김윤진 교수의 무용의 문화예술교육 장르의 융합과 개척, 숙대 박인자 교수의 전문무용지원센터의 설립, 성대 김경희 교수의 해부학적 발견을 통한 치료무용에 대한 관심, 연간 60억 매출의 (주)트윈클영어발레의 안재연 대표, (주)줄리스 영어발레의 김경복 대표, 의상업체 에뚜왈 송보화 대표, ‘문외한씨 춤보러 가다’의 저자 제환정 한예종교수 등 모두 체격조건과 기능이 훌륭했던 강수진, 서희 무용수 만큼 사회에서 좋은 영향력으로 무용계를 이끌어가는 좋은 리더들의 예이다.

지금 전문무용교육계도 이렇게 아이디어가 넘치는 좋은 무용인들이 미리부터 사회의 진출이 어렵지 않도록 학생들의 평가기준을 잘 조절하여 고른 등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미 초등학생들은 체격조건이 좋지 않으면 예술중학교에 입학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훌륭한 초등학생들이 무용을 포기한다. 대학입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인데 학교에서 무용단과 같은 입시정책을 갖는 것은 무용계의 막대한 손실이다. 미래의 지도자, 안무가, 사업가, 기획자들이 미리 성장할 기회를 막고 무용수만을 성장시키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예술중학교 입시제도에서 실기를

90%, 그 중 기본동작 70%, 체격 30% 정도를 평가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6학년 기준에서 키가 작거나, 조금이라도 체격조건이 좋지 않다면 기본동작에 대한 표현능력이 뛰어나고 아이디어와 학습능력이 좋다하더라도 입시기준에 도달 할 수가 없다. 대학 입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100% 수시로 진행되는 최근의 입시제도 때문에 검정고시로 입학할 준비하는 다양한 경험의 소지학생이나, 인문계에서 학습능력이 뛰어나던 학생들도 상대적 평가제도인 예술고등학교의 등급제도를 뛰어넘는 학생들이 입시기준에 도달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또한 이미 실기와 체격조건으로만 되어있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느라 일반교육에서 다양한 과목들을 학습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성장시키고 실기와 학습의 균형을 이뤄야 하는 예술 중고등학교의 교과과정은 무시된 채 이미 실기와 체격조건을 만들기 위해 급급한 실정으로 변화되어 있다. 현재의 전문무용교육계의 입시제도는 다양한 공부를 하지 않고 예술성, 창의성,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는 잘 따라하는 기능인들만 키워내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전문무용교육계의 입시제도에 따라서 모든 무용교육계의 방향이 정해진다. 무용과 대학에 더욱 많은 무용수뿐만이 아니라 지도자, 안무가, 기획자, 사업가 모두를 길러낼 수 있는 다양한 인재상을 가지고 입시제도를 변화시켜야 한다. 다양한 인재가 들어와야 다양한 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로 길러내고 그 인재들이 다양한 직업을 지속적으로 창출해줄 수 있다. 입시제도에서 학습능력이 뛰어난 학생들도 뽑을 수 있는 다양한 평가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 절대평가인 수능제도의 반영, 다양한 생각을 독려할 수 있는 에세이의 반영, 실기평가에서도 체격조건만이 아니라 다양한 해석능력을 가진 우수한 인재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 평가제도 등을 고안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입시제도의 변화로 좀더 다양한 인재가 전문무용계로 영입이 된다면 이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에 다양한 직업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예술중고등학교, 대학, 사설무용교육기관 등에서도 다양한 인재상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결국 이러한 다양한 인재상과 직업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지도자들의 교육도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대학에서 이러한 적극적인 인재상과 직업교육을 함으로써 훌륭한 전문무용인들을 세계 최고의 무용수가 되지 않으면 무용을 포기하려는 꿈나무들에게 새로운 꿈을 심어주어야 한다. 무용계에서도 전문무용기술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90% 이상의 무용교육계에서 이러한 기술력도 풍부하며 다양한 인재상을 알고 있는 전문무용인들이 사회에 나와 적극적으로 직업창출을 하며 무용계를 키워주어야만이 우리 무용계가 확장, 발전할 것이다. 지도자 과정, 안무자 과정, 다양한 새로운 사업기획, 교육프로그램 개발, 예술 경영, 다양한 사회직업인들의 초청 세미나 등의 교과목과 기획은 대학 내에서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지도자들의 인식 전환이 시급한 때이다.

2. 기능교육

과열된 레드오션인 전공학생의 숫자에 비해 블루오션인 많은 일반학생들의 취미교육, 우리는 이

곳에 좀 더 많은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하여서 무용계의 산업전체를 발전시키고 규모를 키워나가지 않는다면 무용계의 생존은 점점 더 열악해질 수 있다. 좀 더 많은 일반인에게 도움이 되는 무용교육의 효과를 사회에서 실현하지 않는다면 점차로 무용계는 축소화되고 그 힘을 잃어갈 것이다. 많은 일반인들이 발레교육이 가진 신체적 성장과 건강, 에티켓, 바른 자세와 체형 등의 그 신체적 효과뿐만이 아니라 인지적 효과 및 창의성, 협동성, 음악성, 성취감향상 및 자아발견, 표현력 향상 등을 통한 자기 긍정성 등 여러 가지 교육효과를 알고 그것이 일반인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무용 교육인 들은 교육현장에서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무용이 가진 많은 교육효과들이 실현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지나친 기능교육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전공학생들의 교육현장에서는 전인교육을 그 목표에 두고 있지 않고 점점 더 기능교육만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그 기능교육이 점점 더 어려서부터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으며 콩쿠르와 입시의 결과를 중심으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과도한 연습량으로 이어지고 있다. 학생들은 점점 더 다른 다양한 학문분야를 공부함으로써 예술성이나 정서, 지식 등을 다양하고 풍부하게 할 시간도 여력도 기능연습으로 빼앗기고 있다. 발레전공 청소년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발레클래스, 캐릭터댄스, 모던댄스, 필라테스, 마사지, 작품연습 등 기능 연습만을 하기도 벅차며 이러한 기능을 따라가게 하기 위하여 드는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무용을 지속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학생들이 전인적으로 신체, 정서, 인지, 인성 모든 면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예술교육이 도와야 할 때에 기능 경쟁교육으로 치우쳐진 무용전공생 교육현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인적인 무용교육과 결과들을 평가할 수 있는 입시제도와 교육방법들을 논의하고 강사들을 재교육하는 방법이 논의되어야 한다.

3. 과도한 연습량과 부상대처

학부모와 교사 모두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과열되어 있는 전공생 교육과정은 결국 과도한 연습량으로 귀결되고 자연스럽게 부상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전체 전공생들에게 보이고 있는 현실이다. 대부분의 사설무용학원에서는 이미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은 매일 4시부터 오후 11시까지 7시간의 연습량을 필수로 하고 있으며 토슈즈를 신고 작품연습을 해야 하는 과제를 수행하지 않으면 받아주지 않는다고 한다. 학생들은 그만큼의 연습량을 이겨내고 콩쿠르에서 1년에 10회 정도 참여하여 수상을 하여야만 예중 입시의 관문을 통과하며 훌륭한 무용전공생이 될 수 있다는 게 통상적인 전공계의 관례가 되어버렸다.

입시관문과 콩쿠르 수상을 위하여 학생들은 저체중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를 위해서 학생들은 4, 5, 6학년 가장 성장해야 할 시기에 극심한 다이어트로 고생을 한다. 학생들은 보통 한 두 끼의 식사는 거르고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링거를 맞거나 대학입시생들은 주사나 지방흡입 등의 성형외과 시술을 받는 등 건강하지 못한 방법을 동원하여 과열 경쟁을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하

지 못한 식습관과 과도한 연습량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턱장애나 극심한 우울증으로 상담치료를 받게 되기도 한다. 이미 영양이 나빠진 학생들은 대퇴골 골절이나, 스트레스 골절 등의 신체적 부상에 시달리기도 한다.

최상위권의 소수학생들은 신체적으로나 재능 면에서 워낙 선천적인 조건을 타고나서 과도한 연습량이나 신체조건 만들기에 성공적으로 결과를 내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과도한 과정들을 모든 전공생에게 교육함으로서 일반화하여 결과적으로는 아주 소수의 전공생들만이 전공생으로 성공하고 대다수의 전공생들은 부상과 스트레스로 인한 실패자로서 무용 전공을 포기하거나 불행하다고 느끼며 전공인 으로서 버터나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과도한 연습량은 한국의 무용기술을 세계수준으로 올려놓기 하였으나 많은 무용인들이 정작 프로무용수로서의 수명은 점점 짧아지고 있으며 예술중고등학교에서 많은 부상으로 인해 학부모 학생들은 전공생의 길을 점차로 포기하여 무용 전공인을 감소시키는 주원인이 되었다.

많은 발레교육자들이 학생들에 대한 실제적인 부상대책과 건강한 식습관, 적절한 연습량, 그리고 전인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절실한 때이다. 초등학생의 연습량 규정, 적절한 체중 규정, 건강한 식습관 및 식단 교육, 부상 대처 및 콩쿠르와 입시 제도의 완화 및 전인적인 교육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한 논의가 절실하다.

4. 인문교양의 부재와 외모 지상주의

교육현장에서 재능 있고 명석한 학생들이 팔다리 비율이 좋지 않거나 키가 작거나, 얼굴이 예쁘지 않거나, 머리가 크거나 하여 무용수로서 체격조건이 좋지 않으면 발레전공자로서 포기하는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많은 무용인들이 이를 당연하게 여기고 신체적 조건이 타고난 학생들만이 무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대 위에서 프로무용수의 조건이기 때문에 무용의 특성상 아름다움을 갖춘 사람만이 무용수가 될 수 있고 무용에 대한 재능이나 열정, 얼마나 많은 창의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무용수의 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수백 명의 어린 학생들이 엄마 손을 잡고 상담을 하면서 ‘아이가 너무 좋아해서 시키고 싶은데’ 그러나 ‘하고 싶다고 다할 수 있는 건 아니다’는 사실을 알면서 엄마는 아이가 고생할 것을 생각해서 무용을 포기시킨다.

그러나 유럽이나 미국 대학 무용과 에서는 볼 수 없는 현상이다. 프로발레단 입단 때나 프로발레리나 만을 길러내는 소수의 정통발레학교에서만 있는 현상이다. 더군다나 성인이 되면 적절한 연습량으로 충분한 체형관리를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어린 나이의 학생들도 외모 중심의 입시 제도에 부딪친다. 많은 학생들은 한두 가지의 체격자격 조건 때문에 무용을 포기하게 되고 현명한 학부모님들은 무용을 전공으로 시키지 않는 것이 옳다고 각한다. 재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으로는 무용을 할 수 있어도 외관상 완벽하지 않으면 입시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예중, 예고, 대학까지 모든 입시관문에서 학생들은 건강하지 못한 방법으로 무용수들과 무용교육자들이 만들어 놓은 입시 기준에 맞추느라 병원이나 시술소 등을 이용하면서 자신의 외모를

변형시킨다. 더군다나 100% 수시제도로 변화한 이후 예술중,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책을 읽고 인문교양의 지식을 쌓으면서 다양한 삶의 가치들을 배우고 행복과 나눔 등 삶의 중요한 덕목들을 느끼고 이해해나가야 하는 시기에 학습이 무시된 채 외모지상주의의 입시제도에 노출된다. 이렇게 인문교양의 지식 없이 외모에 대한 자괴감이나 기능적으로 부족하다는 패배주의등을 안고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가 많다. 대학 내에서 늘 의욕과 자신감이 없고 무기력하게 지쳐있는 많은 학생들은 이미 신체와 정신이 건강하지 못한 방법으로 사회에 내보내진다.

한국의 전문무용교육이 세계수준의 스타무용수들이 배출되고 기능적으로 발전한 이면에 많은 어린 꿈나무들은 무용을 포기하고 무용전공자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줄어가고 있다. 지도자로서, 국제사회 리더로서, 안무가, 디자이너, 예술 감독으로서 외모와 체격조건이 중요한 조건인지 어떠한 중요성을 간과하지는 않고 있는지 되짚어봐야 할 때이다.

5. 전인교육과 건강한 무용인의 상

앞에서 나열한 바와 같이 기능교육경쟁으로 인한 과도한 연습량으로 많은 무용인들이 부상과 극심한 외모 중심의 기준에 맞추느라 건강하지 못한 방법으로 무용인의 삶을 보내고 있다. 그로 인해 많은 무용전공자들은 무용을 포기하고 무용 인구는 더욱 감소되는 추세이다.

예술의 본질은 외형에만 있지 않고 예술가의 삶속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사회에 깊이 연관되어 있다.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마음과 눈을 가지고 삶속에서 예술가의 감성과 공감능력으로 사회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무용인들을 길러내야 하는 것이 무용교육자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 하이컨셉시대에 무용인들이 감성과 공감능력을 기를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사회에 좀 더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또한 무용인들이 전인교육을 통해 기능교육과 외모 중심에서 한 걸음 나아가 지덕체를 고르게 겸비한 건강한 무용인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많은 역할을 하여 그것을 본 많은 일반인들이 건강한 무용인의 상을 보고 다시 무용인이 되고 싶게 리드 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 다니엘 핑크(2012). **새로운 미래가 온다**. 한국경제신문사.
 정미란(2007). 사설 무용학원 경영과 전망. **한국스포츠리서치** 18(5).
 문화체육관광부(2011). **예술분과 통계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5). **공연예술 실태조사**.

Abstract

The Present of Professional Dance Education and Issues

Lee, Mee-Ha

Kookmin University

'High concept and high touch's theme became social issues of today so called 'concept and sensibility times'. Early 2000 was the 'information's times' in which society needed intelligent people more. Instead, after 2010 people focused on 'Empathy ability with others and Creator'. These themes became a social issue of today. Dance also became more popular to public in catching on with this trend. This thesis aims at surveying and displaying few problems in the dance education field, although a lot of Korean ballet students became scholarships recipients from famous Ballet Company like ABT, Marinsky, and Stuttgart and World grand prix. However, focusing on too much physical condition and technical skill on Dance in Art schools and Colleges missed out outstanding academic and creative students. Entrance exam for Art schools and Colleges need to change the system to encourage creative ideas and academic abilities through essay, Korean SAT, and interpretability on the dance exam. Also College program can be developed the vocational education presenting a variety of views and different roll models. Through the liberal education, art school and College program can emphasize balances between physical body, emotion, personality, and recognition. Dance Education as art should help students grow healthy in healthy way in every field. First Art Schools and colleges should plan teacher's program. Now professional dance educators need to think about social contribution through the whole-person education program that changes the idea appearance and physical body skills centered mind to the whole-person education.

Key words : professional dance education, dance technical education, arts education, whole dance education

제 3 부 석 · 박사 발표

5:10~ 5:30	발표 1. 전문무용수의 다차원적 완벽주의가 섭식장애에 미치는 영향 발표자: 김태경 (상명대학교)
5:30~ 5:50	발표 2. 무용은 어떻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발표자: 권선영 (서울대학교)
5:50~ 6:10	발표 3. 무용전공대학생의 ‘자아’ 찾기: 삶과 그 의미 발표자: 최진실 (한양대학교)
6:10~ 6:30	종합토론 토론자: 전미라 (세종대학교), 윤혜선 (동덕여자대학교)

전문무용수의 다차원적 완벽주의가 섭식장애에 미치는 영향

김태경* (상명대학교)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다차원적 완벽주의 관점에서 국내 전문무용수들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성향이 섭식장애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는데 두었다. 429명의 전문무용수(남자무용수 110명, 여자무용수 319명)를 대상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대의 전문무용수의 경우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성향은 절식행동에 영향을 주고 사회적 부과된 완벽주의와 타인지향적 완벽주의 성향은 섭식통제행동에 직접 영향을 주지만, 이들 다차원적 완벽주의 성향이 상호작용하여 섭식장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30대 이상의 전문무용수들에게는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절식 행동을 정적으로 예측하고 타인지향적 완벽주의는 섭식통제행동을 정적으로 예측하지만, 다차원적 완벽주의 하위요인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다. 둘째, 발레무용수들의 세 가지 완벽주의 성향은 절식행동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섭식통제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발레무용수들의 섭식장애에 대한 세 가지 완벽주의 성향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 한국무용수들의 경우도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성향이 이들의 절식행동과 섭식통제행동을 예측하였지만 둘 다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 본 결과는 국내 전문 여자무용수들이 체중과 상관없이 날씬해야 하고 무용수로서 완벽한 기량을 발휘해야 한다는 사회 문화적 압박을 크게 받는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다이어트와 건강한 섭식행동이 전문무용수들에게 요구된다.

주요어 : 전문무용수, 다차원적 완벽주의, 섭식장애, 섭식행동, 건강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전문무용수가 다른 사람들과 특별히 구별 짓는 것은 그들이 동작에 완벽성을 추구하는 예술가들이라는 점이다(서차영, 1992). 자신의 일에 완벽을 기하는 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다. 특히 무용을 직업으로 하는 전문무용수들에게 완벽한 기량 숙달과 연기력은 자신의 무용경력 뿐만 아니라 직업적 안정과 성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제 무용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전문무용수들은 장시간의 부단한 연습을 통해 완벽한 기량을 숙달하고자 노력하지만, 이 과정에서 다양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정서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어느 경우에는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하기

* 1052505@daum.net

도 한다(박수정, 김현숙, 2015; 정유진, 2013; Quested, Cumming, & Duda, 2014). 전문무용수의 이와 같은 완벽주의 성향이 섭식태도와 크고 작은 부상을 가져온다는 선행연구(Abraham, 1996; Ringham, Klump, Kaye, Stone, Libman, & Marcus, 2006)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전문무용수에 대한 영향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완벽주의는 개인이 스스로 설정해 놓은 기준(개인적 기준)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그 기준에 도달했는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Brown, Heimberg, Frost, Makis, Juster, & Leung, 1999). 즉, 개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테크닉)를 완벽하게 수행하고자 하는 성향으로서 일반적으로 적응적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완벽주의로 구분된다(Kawamura, Frost, & Harmatz, 2002). 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을 지닌 개인은 자신의 유능성을 발달시키기 위해 과제 숙달에 초점을 두는 숙달목표를 지향하며(Dunn, Dunn, & Syrotuik, 2002), 보다 높은 성취와 수행향상을 보이는 특징이 있다(Ommundsen, Roberts, Lemyre, & Miller, 2005). 대조적으로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을 지닌 개인은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과 더불어 매사에 자신이 완벽하게 일을 마무리했다는 느낌을 가지지 못하며, 자신의 실수에 대한 과도한 염려를 하는 특성을 보인다(Enns, Cox, & Clara, 2002).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을 지닌 개인은 타인들로부터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수행회피목표를 지향하여 낮은 성취도를 보이며(Elliot & Church, 2005), 정서적으로도 지쳐있기도 하다(Pollard-Smith & Thomson, 2017). 예를 들어 이 중에서 개인적 기준과 조직화 요인은 적응적 완벽주의에 해당되며, 성공과 탁월성 추구를 반영, 기쁨, 즐거움 등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와 관련이 크다(Slade & Owens, 1998). 반면, 실수에 대한 염려, 행동에 대한 의심, 부모의 비난 및 기대 등의 특성을 보이는 부적응적 완벽주의는(표경선, 안도희, 2006; Bieling, Israeli, & Antony, 2004; Frost, Marten, Lahart, & Rosenblate, 1990), 강박적 성격장애, 우울 증상, 화, 불안, 탈진 등의 부정적인 정서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유영란, 최현혁, 2014; 이미화, 류진혜, 2002; Appleton, Hall, & Hill, 2009; Shumaker & Rodebaugh, 2009).

이러한 개인의 완벽주의 성향은 긍정적 또는 적응적이거나 부정적, 부적응적인 특성을 보이며 개인이 어떤 성향을 갖느냐에 따라 목표성향뿐만 아니라 이들의 정서와 신체적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즉,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가지며 긍정적인 정서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정서경험과 더 관련이 있다는 결과들이 보고되었다(Frost, Heimberg, Holt, & Mattia, 1993). 다른 연구자들도 Frost 등(1993)의 결과를 뒷받침하는 유사한 연구결과들을 보고하고 있고(Lynd-Stevenson & Hearne, 1999; Slade & Owens, 1998) 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을 지닌 개인일수록 과제를 수행하는 중에 즐거움과 기쁨 등의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며 과제 수행 후 결과에 대해서도 만족감을 높여준다고 한다. 즉 완벽주의 성향이 개인의 만족감 수준에 영향을 끼치며(Saboonchi & Lundh, 2003),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Gilman, Ashby, Sverko, Florell, & Varjas, 2005).

이러한 완벽주의는 전문무용수들의 섭식태도와 상호 관련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무대 위에

서 무용수의 수명과 직결된 요인인 섭식태도는 보다 완성도 높은 공연과 작품을 위해 완벽한 동작 수행과 연기를 해야 하는 전문무용수들에게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일 것이다. 즉 전문무용수는 부정적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무용수들이 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을 지닌 무용수보다 섭식장애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전문무용수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성향이 섭식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

그 동안 국외에서 수행된 대부분의 연구는 직업무용수의 섭식장애, 부상, 스트레스 등과 관련이 있고 부정적인 신체적 건강의 관련된 주요 원인이 완벽주의 성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히고 있다 (Goodwin, Arcelus, Geach, & Meyer, 2014; Penniment & Egan, 2012; Zhuoli, & Yuhan, 2015). 국내에서도 무용과 관련된 섭식태도와 관련변수와의 관계를 밝힌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으나, 대다수의 연구는 외모나 신체상(김혜정, 이옥란, 2011; 김시연, 백근영, 서영석, 2010; 김소정, 손준호, 류호상, 2008), 골밀도(양명주, 2012), 식이행동(김민화, 2015; 박선정, 민현주, 2012; 이지혜, 양재근, 채진석, 2015), 섭식태도 위험요인(유진, 이선애, 2005), 그리고 체중조절(김희영, 김숙영, 2003; 신말연, 2016) 등과의 관계를 밝히고 있을 뿐이다.

본 논문에서는 긍정적, 부정적 속성을 지닌 완벽주의의 개념을 좀 더 세부적으로 구분한 다차원적 완벽주의 관점에서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타인지향적 완벽주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로 구분하였다. 첫째로 자기지향적 완벽주의는 완벽을 추구하는 강한 동기, 비현실적일 정도로 높은 '자기' 기준을 부여하고 고수하는 것, 실패에 대한 집착, 비현실적인 자기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이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때 우울에 취약한 경향이 있다(Hewitt & Flett, 1991). 둘째로 타인지향적 완벽주의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현실적인 높은 기준을 부과하고 이 기준을 달성하는 것을 매우 강조하며,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했을 때는 평가불안 등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셋째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자신에게 중요한 타인들(예: 예술감독, 지도위원, 동료, 부모 등)에 의해 부과된 기준으로서 이 기준이 충족되지 못했을 때는 평가불안, 통제감 상실 혹은 무기력감을 일으킬 수 있다(Hewitt & Flett, 1993).

다차원적 완벽주의의 개념(Hewitt & Flett, 1991)은 그 동안 교육, 보건, 스포츠 등의 전문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아직까지 전문무용수에게 적용한 연구결과보고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하지만 직업인으로서 전문무용수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나 자신에게 중요한 타인을 위해서 혹은 사회적으로 부과된 기준을 요구받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긍정적, 부정적 완벽주의 차원보다는 좀 더 세부적으로 구분되어지는 다차원적 완벽주의가 이들을 이해하는데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전문무용수에게 있어 아름답고 감동적인 무대를 만드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며 자기발전과 완벽한 무용수로서의 성공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과 연습을 해야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신체가 소통의 도구인 전문무용수들의 섭식태도에 관한 본 연구는 그들의 신체언어를 더욱 완벽하게 해 줄 것이다.

이에 선행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문무용수가 추구하는 다차원적 완벽주의 성향과 섭식장애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앞으로 전문무용수의 건강증진

은 물론 나아가 완성도 높은 무대공연문화를 위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차원적 완벽주의 관점(Hewitt & Flett, 1991)에서 그 동안 관련 선행연구와 이론에 근거하여 다차원적 완벽주의 성향이 전문무용수의 섭식장애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앞으로 국내 전문무용수의 완벽주의 성향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들의 신체적, 심리적 안녕감 증진과 기량향상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와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무용수들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성향은 연령과 무용장르에 따라 섭식태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전문무용수들의 연령과 무용장르에 따라다차원적의 완벽주의 성향들은 섭식태도에 있어서 상호작용 효과를 보이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국내 직업무용단 중에서 4개의 발레단(국립발레단, 유니버설 발레단, 발레 씨어터, 광주시립무용단)과 7개의 한국무용단(국립무용단, 서울시립무용단, 목포시립무용단, 울산시립무용단, 인천시립무용단, 제주도립무용단, 정동극장 무용단) 등 국내 직업무용단을 대표하는 11개 무용단의 전문무용수 45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의 표집은 본 연구의 목적과 원활한 자료수집을 위해 각 무용단에서 활동 중인 전체 무용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편의표집 방식을 통해 이루어졌다. 자료수집은 연구목적에 따라 2단계 과정 즉, 예비조사와 본 조사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표 1>에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문무용수들의 성별, 나이, 무용장르별 사례수와 백분율이 제시되어 있다.

예비조사는 각 질문지의 잠재적 요인구조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1차로 6개 무용단(국립발레단, 유니버설 발레단, 광주시립무용단, 국립무용단, 서울시립무용단, 대구시립무용단)으로부터 수집된 150명(남자무용수=41명, 여자무용수=109명)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29.97 ± 9.95 세이며, 평균 무용경력은 17.38 ± 7.41 년, 소속 무용단 경력은 7.65 ± 6.27 년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는 1차 예비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11개 무용단의 남녀 무용수들과 발레 씨어터의 남녀 무용수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전문무용수 478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지만, 응답내용이 불성실한 것으로 판단된 설문지 49부를 제외시켜 429명(남자 무용수

=110명, 여자 무용수=319명)의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이들의 평균 나이는 29.05 ± 5.74 세이며, 평균 무용경력은 15.66 ± 6.40 년, 소속 무용단 경력은 5.86 ± 5.21 년으로 나타났다.

표 1. 설문조사 단계별 연구대상 (N=579)

특성	예비조사 (N=150)		본조사 (N=429)	
	사례수	빈도(%)	사례수	빈도(%)
성별				
남자무용수	41	27.3	110	25.6
여자무용수	109	72.7	319	74.4
무용장르				
발레	76	50.7	143	34.5
한국무용	74	49.3	256	59.7
연령				
20대	86	57.3	287	66.9
30대	64	42.7	142	33.1
무용경력				
10년이하	29	19.3	115	26.8
11년-15년	40	26.7	122	28.4
16년-20년	45	30.0	127	29.6
21년 이상	36	24.0	65	15.2
무용단 경력				
5년이하	67	44.7	250	58.3
6년-10년	45	30.0	115	26.8
11년이상	38	25.3	64	14.9

2. 조사도구

전문무용수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Hewitt와 Flett(1991)가 개발한 3요인 45문항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를 박재우(1998)가 변안하여 사용한 3요인 25문항(자기지향적 완벽주의=10문항,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8문항, 타인지향적 완벽주의=7문항)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사용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까지의 7점 Likert형으로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

전문무용수의 섭식장애를 측정하기 위해 이상선(1993)이 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변안한 Garner와 Garfinkel(1991)의 섭식 장애 검사-26(the Eating Attitude Test; EAT-26)가 사용되었다. 이 질문지는 신경성 식욕부진증의 광범위한 행동과 특성들을 측정하기 위한 3요인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질문지는 절식(1번 문항에서 13번 문항), 폭식과 음식에 대한 몰두(14번 문항에서 19번 문항), 섭식 통제(20번 문항에서 26번 문항)를 측정하며, 각 문항은 6점 척도(1점=전혀 아니다, 6점=항상 그렇다)로 반응한다. 13번 문항은 역으로 채점한다. 이 질문지는 6점 척도로 응답하지만 가장 심한 증상을 나타내는 척도상의 위치(6점)는 3점으로, 그 다음으로 심한 증상(5점)이 2점, 1점 순서로 채점되고, 나머지(1부터 3까지는) 0점으로 처리된다. 따라서 점수는 최저 0점에서 최고 78점 사이에 분포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더 혼란된 문제가 있는 섭식장애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3. 타당도 및 신뢰도

본 연구에서는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섭식장애 질문지를 이용하였으며, 타당도와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각 질문지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표 3>과 같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예비조사에서 수집된 다차원적 완벽주의 질문지에 대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 문항-총점간 상관인 0.3이하인 3개의 문항(3번, 19번, 22번)이 삭제되어 최종 22개의 문항이 추출되었다(누적 분산비=53.26%). 신뢰도는 0.633에서 0.712까지의 범위로 대체로 양호한 편이었다. 본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다차원적 완벽주의 질문지의 구인 타당도를 분석하였다. 22개의 문항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chi^2=542.52$, $df=206$, $Q=2.63$, $GFI=0.944$, $TLI=0.921$, $CFI=0.941$, $RMSEA=0.081$ 로 일반적 기준치를 상회하여 수용할 만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2. 다차원적 완벽주의 질문지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하위요인	문항	M(SD)	왜도	첨도	1	2	3	문항-총점간 상관
1. 자기지향적	Q6	5.43(1.01)	-1.11	1.65	.848	.055	-.022	.527
	Q7	5.57(1.18)	-1.09	1.57	.803	.072	.005	.519
	Q4	5.25(1.17)	-.84	1.04	.765	.148	-.032	.529
	Q2	5.06(1.27)	-.65	1.01	.764	.166	-.014	.549
	Q8	5.17(1.13)	-1.12	1.34	.752	.153	-.052	.518
	Q5	5.39(1.13)	-1.29	1.15	.729	.094	-.142	.421
	Q10	4.71(1.16)	-.70	1.36	.552	.275	-.005	.464
	Q1	4.05(1.30)	-.10	-.06	.464	.202	.255	.447
	Q9	4.50(1.68)	-.18	-.74	.420	.280	-.197	.329
2. 사회적으로 부과된	Q15	4.55(1.29)	-.21	.22	.348	.702	-.122	.588
	Q13	3.67(1.25)	.05	.09	-.095	.691	.243	.395
	Q14	4.06(1.48)	-.39	-.13	-.017	.646	.095	.367
	Q18	4.21(1.24)	-.27	.93	.230	.629	.198	.548
	Q11	3.50(1.53)	-.01	-.91	.086	.607	.042	.397
	Q17	4.42(1.27)	-.55	.49	.351	.600	.118	.592
	Q16	4.40(1.29)	-.57	.57	.306	.598	-.132	.463
	Q12	4.55(1.31)	-.33	.37	.292	.547	-.047	.472
	Q24	3.55(1.25)	-.12	-.32	-.104	.166	.878	.434
3. 타인지향적	Q25	3.49(1.28)	-.02	-.58	-.092	.160	.822	.428
	Q21	4.13(1.24)	-.21	.35	.135	-.115	.756	.410
	Q23	3.50(1.21)	-.27	.09	-.170	.130	.705	.350
	Q20	4.32(1.12)	-.60	1.05	.032	-.015	.702	.324
	신뢰도				.653	.712	.633	
고유치					6.07	3.59	2.05	
분산(%)					27.63	16.32	9.31	
누적 분산(%)					27.63	43.95	53.26	

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898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chi^2=1809.5$, $df=300$, $Sig=.001$

예비조사에서 수집된 섭식장애 질문지에 대하여 일련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 부하량이 0.40 이하를 보인 1개의 문항(6번), 다른 하위요인으로 잘못 묶인 2개의 문항(16번, 19번), 그리고 다른 요인과 .40이상의 높은 중복 부하량을 보인 1개의 문항(20번)이 순차적으로 삭

표 3. 섭식장애 질문지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하위요인	문항	M(SD)	왜도	첨도	1	2	3	문항-총점간 상관
1. 절식	Q11	3.23(1.25)	.06	-.18	.817	-.077	.177	.661
	Q9	2.54(1.16)	.35	-.44	.810	.238	.017	.686
	Q1	3.88(1.38)	-.18	-.53	.769	-.143	.208	.621
	Q4	2.69(1.27)	.34	-.63	.734	.063	.263	.663
	Q7	2.99(1.43)	.37	-.65	.729	-.098	.230	.602
	Q12	2.90(1.31)	.29	-.37	.725	.069	.067	.576
	Q8	2.57(1.16)	.54	-.02	.704	.332	-.059	.599
	Q3	2.50(1.12)	.45	-.44	.693	.144	.059	.577
	Q5	3.87(1.58)	-.29	-.86	.680	-.283	.164	.461
	Q10	2.51(1.29)	.70	-.11	.655	.337	-.086	.537
	Q2	2.87(1.26)	.45	-.35	.590	.051	.199	.515
2. 섭식통제	Q23	2.71(1.34)	.56	-.47	-.243	.715	.020	.356
	Q26	2.81(1.33)	.48	-.43	-.167	.706	-.009	.304
	Q24	2.92(1.44)	.33	-.81	.052	.637	.056	.371
	Q21	1.83(1.14)	1.53	1.00	.335	.614	-.069	.402
	Q22	1.84(1.16)	1.73	1.09	.137	.613	.198	.361
	Q25	2.39(1.15)	.67	.30	.368	.552	.126	.503
3. 폭식	Q14	3.18(1.33)	.29	-.35	.330	.004	.759	.542
	Q15	2.72(1.35)	.52	-.26	.168	.053	.753	.415
	Q18	2.10(1.15)	1.09	.98	.164	.272	.730	.469
	Q17	2.11(1.30)	1.08	.41	.233	.250	.706	.505
	Q13	4.02(1.39)	-.27	-.59	-.127	-.180	.612	.372
신뢰도					.799	.795	.694	
고유치					7.10	2.88	2.30	
분산(%)					32.27	13.11	10.45	
누적(%)					32.27	45.39	55.85	

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848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chi^2=2208.1$, $df=325$, $Sig=.001$

제되었다. <표 3>에서 보듯이, 3요인 22문항이 최종적으로 추출되었으며, 이들 문항의 누적 분산 비는 55.85%로 나타났다. 신뢰도는 0.694에서 0.799까지의 계수를 나타내었다. 본 조사 자료로 섭식장애 질문지의 구인 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해 22개의 문항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chi^2=876.42$, $df=206$, $Q=4.25$, $GFI=0.918$, $TLI=0.924$, $CFI=0.953$, $RMSEA=0.094$ 로 일반적 기준치를 초과한 $RMSEA(0.08이하)$ 를 제외하고 대부분 수용할 만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4.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1과 AMOS 21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을 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모든 검사지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통계, 탐색적 요인분석(주축요인법, 직각회전방식), 신뢰도 분석, 그리고 최대우도방식을 이용하는 확인적 요인분석이 실시되었다. 둘째, 모든 변수에 대하여 기술통계(평균, 표준편차)를 실시

하고, 무용경력, 무용단 경력 및 무용전공 집단 간 평균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 또는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과 Scheffe 사후검정, 그리고 변수들 간의 상호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한 상관분석이 실시되었다. 셋째, 다차원적 완벽주의 성향이 섭식장애에 미치는 상호작용효과(interaction effect)를 검정하기 위해 Aiken와 West(1991)의 절차에 따른 일련의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이 실시되었다. 넷째, 모든 통계적 유의성은 $\alpha=.05$ 로 설정하여 검정되었다.

III. 연구 결과

1. 상관분석

전문무용수들의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섭식태도 하위요인 간의 상호 관계성을 알아보기 위해 이변량 상관분석이 실시되었다. <표 4>에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각 변수의 평균(M)과 표준편차(SD) 및 상관계수가 제시되어 있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자기지향적 완벽주의는 절식($r=.175$)과는 정적으로 관련이 있지만, 섭식통제($r=.022$)와는 관련이 없으며 폭식($r=-.143$)과는 부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폭식을 제외하고 절식($r=.236$)과 섭식통제($r=.216$)과 모두 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다. 타인지향적 완벽주의는 폭식($r=.145$)와 정적 관계를 보였지만, 절식과 섭식통제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측정변수 간의 상관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전문무용수들의 자기지향적 및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섭식장애 요인의 절식과 섭식통제와 정적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섭식장애 하위요인 간의 상관분석

변인	M	SD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타인지향적 완벽주의	절식	섭식통제	폭식
1	4.87	.69	1					
2	4.29	.82	.347**	1				
3	3.81	.89	-.229**	.062	1			
4	5.69	.82	.175**	.236**	.047	1		
5	1.95	.89	.022	.216**	.105	.235**	1	
6	2.81	.32	-.143*	.100	.145*	.319**	.287**	1

* $p<.05$, ** $p<.01$

2. 다차원적 완벽주의가 섭식장애에 미치는 영향

전문무용수들의 연령과 무용장르별 다차원적 완벽주의 성향이 이들의 섭식태도의 하위요인에 미치는 주(직접)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은 세 개의 완벽주의 하위요인을 독립변수로 삼아 1단계 회귀식에 투입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세 개의 완벽주의 하위요인을 이원 상호작용항으로 만들어 회귀식에 투입하였다(자기지향적 완벽주의 $\times$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자

기지향적 완벽주의×타인지향적 완벽주의, 타인지향적 완벽주의×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앞의 1단계와 2단계 위계적 회귀분석에서는 Aiken와 West(1991)의 절차에 따라 중재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예측변수군의 평균점수를 모두 표준화(Z-score)하였다.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경우에는 각 예측변수의 고($Z_L=1SD$)/저($Z_H=-1SD$) 편차점수를 사용하여 회귀선을 plotting(기울기)하여 그 효과를 해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5>와 <표 6>에 각각 제시되었다.

1) 전문무용수의 연령에 따른 다차원적 완벽주의의 효과

전문무용수의 연령에 따른 다차원적 완벽주의 성향이 섭식장애 하위요인 중의 절식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20대의 전문무용수들에게는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성향이 절식행동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30대 이상의 무용수들에게는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성향이 이들의 절식행동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상호작용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 전문무용수의 연령에 따른 절식행동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구분	예측변수	B	S.E.	β	t	R^2	ΔR^2	ΔF
20대	1단계 ($F_{(3,283)}=5.607$, $p<.001$)					.056	.056	5.607***
	SOP	.982	.371	.167	2.644**			
	SPP	.608	.366	.105	1.661			
	OOP	.329	.336	.057	.978			
	2단계 ($F_{(6,280)}=3.062$, $p<.01$)					.062	.005	.543
	SOP	1.122	.407	.191	2.758**			
	SPP	.636	.397	.110	1.600			
	OOP	.534	.398	.092	1.344			
	SOP×SPP	.242	.283	.095	.855			
	SPP×OOP	-.110	.283	-.035	-.388			
	SOP×OOP	.028	.348	.009	.088			
30대	1단계 ($F_{(3,138)}=7.845$, $p<.001$)					.146	.146	7.845***
	SOP	.792	.477	.137	1.662			
	SPP	1.962	.475	.333	4.126***			
	OOP	.169	.479	.029	.353			
	2단계 ($F_{(6,135)}=4.544$, $p<.001$)					.168	.022	1.208
	SOP	1.108	.504	.191	2.197			
	SPP	1.673	.512	.284	3.270***			
	OOP	.224	.539	.038	.417			
	SOP×SPP	1.044	.549	.169	1.902			
	SPP×OOP	.175	.476	.033	.368			
	SOP×OOP	-.004	.567	-.001	-.006			

Notes: SOP=자기지향적 완벽주의, SPP=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OOP=타인지향적 완벽주의

* $p < .05$, ** $p < .01$, *** $p < .001$

<표 5>에서 보듯이, 20대의 젊은 무용수들의 경우 1단계로 완벽주의 세 요인들을 회귀식에 투입한 결과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성향만이 절식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으며(β

표 6. 전문무용수의 연령에 따른 섭식통제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구분	예측변수	B	S.E.	β	t	R^2	ΔR^2	ΔF
20대	1단계 ($F_{(3,283)}=5.959, p<.001$)					.059	.059	5.959***
	SOP	-.044	.186	-.015	-.236			
	SPP	.594	.183	.205	3.246***			
	OOP	.371	.168	.128	2.204*			
	2단계 ($F_{(6,280)}=3.220, p<.01$)					.065	.005	.512
	SOP	-.002	.204	-.001	-.009			
	SPP	.608	.199	.210	3.061**			
	OOP	.487	.199	.168	2.448*			
	SOP×SPP	.126	.142	.098	.888			
	SPP×OOP	-.099	.141	-.062	-.700			
	SOP×OOP	.012	.174	.008	.071			
	1단계 ($F_{(3,138)}=2.789, p<.05$)					.057	.057	2.789*
	SOP	.173	.241	.062	.718			
30대	SPP	.380	.241	.134	1.578			
	OOP	.593	.243	.207	2.445*			
	2단계 ($F_{(6,135)}=1.591, p>.05$)					.066	.009	.427
	SOP	.252	.258	.090	.977			
	SPP	.304	.261	.107	1.163			
	OOP	.551	.275	.193	2.004*			
	SOP×SPP	.266	.280	.089	.950			
	SPP×OOP	-.001	.243	-.001	-.006			
	SOP×OOP	.184	.290	.059	.636			

주: SOP=자기지향적 완벽주의, SPP=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OOP=타인지향적 완벽주의;

* $p < .05$, ** $p < .01$, *** $p < .001$

=.167, $t=2.644$, $p<.01$), 전체 분산의 약 5.6%의 설명량을 보였다. 2단계로 세 개의 이원 상호작용항을 예측변수로 삼아 회귀식에 투입되었다. 그 결과 1단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성향이 여전히 전문무용수들의 섭식태도에 정적 영향을 주었지만,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Delta R^2=.00$, $\Delta F=.543$, $p>.05$). 30대 이상의 전문무용수들의 경우에 1단계로 회귀식에 투입된 세 가지의 완벽주의 성향 중에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성향이 이들의 절식행동에 직접 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beta=.333$, $t=4.126$, $p<.001$), 전체 분산의 14.6%의 설명량을 보였다. 그러나 2단계 회귀식에 투입된 세 개의 이원 상호작용항은 이들 무용수의 절식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음으로 섭식통제에 대한 다차원적 완벽주의의 영향을 검정하기 위해 두 번째 회귀분석이 실시되었다. <표 6>에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20대의 전문무용수들에게서는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beta=.205$, $t=3.246$, $p<.001$)와 타인지향적 완벽주의($\beta=.128$, $t=2.204$, $p<.05$)가 섭식통제를 직접 정적으로 예측하였으며, 이들은 전체 분산의 약 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단계 회귀식에 투입된 상호작용항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30대 이상의 무용수들의 경우에 타인지향적 완벽주의 성향이 이들의 섭식통제에 직접 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beta=.207$, $t=2.445$, $p<.05$), 전체 분산 중 약 6%의 설명량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세 가지의 완벽주의 성향 간의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는 보이지 않았다.

<표 7>에는 전문무용수들의 폭식행동에 대한 다차원적 완벽주의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한 회

귀분석의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무용수들의 연령에 따른 완벽주의 성향은 이들의 폭식 행동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표에서 보듯이, 전문무용수들의 연령에 관계없이 이들의 폭식 행동에 대한 완벽주의의 주(직접)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7. 전문무용수의 연령에 따른 폭식행동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구분	예측변수	B	S.E.	β	t	R^2	ΔR^2	ΔF
20대	1단계 ($F_{(3,283)}=1.784, p>.05$)					.019	.019	1.784
	SOP	.090	.191	.031	.475			
	SPP	.342	.188	.117	1.823			
	OOP	.075	.173	.026	.434			
	2단계 ($F_{(6,280)}=1.789, p>.05$)					.037	.018	1.780
	SOP	.062	.208	.021	.301			
	SPP	.348	.203	.119	1.716			
	OOP	.296	.203	.101	1.459			
	SOP×SPP	.217	.144	.168	1.501			
	SPP×OOP	-.276	.144	-.173	-1.914			
	SOP×OOP	-.025	.177	-.017	-.138			
30대	1단계 ($F_{(3,138)}=.273, p>.05$)					.006	.006	.273
	SOP	-.178	.284	-.056	-.626			
	SPP	.170	.284	.052	.598			
	OOP	-.145	.286	-.044	-.509			
	2단계 ($F_{(6,135)}=.464, p>.05$)					.020	.014	.656
	SOP	-.045	.303	-.014	-.149			
	SPP	.057	.307	.018	.187			
	OOP	-.167	.323	-.051	-.518			
	SOP×SPP	.454	.329	.133	1.380			
	SPP×OOP	.110	.286	.037	.387			
	SOP×OOP	.087	.340	.025	.257			

Notes: SOP=자기지향적 완벽주의, SPP=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OOP=타인지향적 완벽주의

* $p < .05$, ** $p < .01$, *** $p < .001$

2) 전문무용수의 무용장르에 따른 다차원적 완벽주의의 효과

무용수들의 장르 즉, 전공에 따른 완벽주의 성향이 이들의 섭식태도에 미치는 주(직접)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이 실시되었다. 그 결과는 <표 8>, <표 9>, <표 10>에 각각 제시되어 있다. <표 8>에 제시된 것처럼, 발레무용수들의 세 가지 완벽주의 성향은 이들의 절식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2단계로 투입된 상호작용항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에 한국무용수들의 완벽주의 성향 중에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beta=.217, t=3.407, p<.001$)와 자기지향적 완벽주의($\beta=.148, t=2.295, p<.05$) 성향은 이들의 절식행동에 직접 영향을 주었고, 이들은 전체 분산의 약 9%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세 가지 완벽주의 성향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전문무용수의 무용장르에 따른 절식행동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구분	예측변수	B	S.E.	β	t	R^2	ΔR^2	ΔF
발레	1단계 ($F_{(3,169)}=3.566, p<.05$)					.060	.060	3.566*
	SOP	.728	.444	.131	1.640			
	SPP	.724	.483	.122	1.499			
	OOP	.582	.435	.101	1.336			
	2단계 ($F_{(6,166)}=2.403, p<.05$)					.080	.020	1.226
	SOP	1.032	.512	.186	2.017*			
	SPP	.811	.520	.137	1.558			
	OOP	.944	.491	.165	1.922			
	SOP×SPP	.463	.366	.223	1.266			
	SPP×OOP	-.279	.304	-.102	-.915			
	SOP×OOP	-.018	.429	-.008	-.043			
	1단계 ($F_{(3,252)}=8.208, p<.001$)					.089	.089	8.208***
	SOP	.902	.393	.148	2.295*			
한국 무용	SPP	1.271	.373	.217	3.407***			
	OOP	.079	.363	.013	.219			
	2단계 ($F_{(6,249)}=4.135, p<.001$)					.091	.002	.146
	SOP	.948	.406	.156	2.338*			
	SPP	1.199	.394	.205	3.042**			
	OOP	.121	.433	.021	.279			
	SOP×SPP	.206	.390	.034	.539			
	SPP×OOP	.101	.384	.020	.263			
	SOP×OOP	-.150	.483	-.023	-.310			

주: SOP=자기지향적 완벽주의, SPP=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OOP=타인지향적 완벽주의;

* $p < .05$, ** $p < .01$, *** $p < .001$

〈표 9〉는 무용장르에 따른 섭식통제행동에 대한회귀분석의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먼저 발레무용수들의 경우에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성향이 이들의 섭식통제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beta=.187, t=2.271, p<.05$), 회귀식 모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2.415, p>.05$). 2단계에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타인지향적 완벽주의 간의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지만 F비 변화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국무용수의 경우 타인지향적 완벽주의($\beta=.229, t=3.711, p<.001$)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성향이 이들의 섭식통제행동에 직접 영향을 주었으며, 이들 요인은 전체 분산의 약 8%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2단계에서 투입된 세 개의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9. 전문무용수의 무용장르에 따른 섭식통제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구분	예측변수	B	S.E.	β	t	R^2	ΔR^2	ΔF
발레	1단계 ($F_{(3,169)}=2.415, p>.05$)					.041	.041	2.415
	SOP	-.024	.215	-.009	-.113			
	SPP	.530	.234	.187	2.271*			
	OOP	.161	.211	.058	.762			
	2단계 ($F_{(6,166)}=2.059, p>.05$)					.069	.028	1.674
	SOP	-.033	.247	-.012	-.133			
	SPP	.640	.251	.225	2.551*			
	OOP	.269	.237	.098	1.136			
	SOP×SPP	.102	.176	.103	.580			
	SPP×OOP	-.305	.147	-.232	-2.078*			
	SOP×OOP	.160	.205	.141	.779			

구분	예측변수	B	S.E.	β	t	R^2	ΔR^2	ΔF
한국 무용	1단계 ($F_{(3,252)}=7.508, p<.001$)					.082	.082	7.508***
	SOP	.066	.201	.021	.328			
	SPP	.583	.191	.195	3.052**			
	OOP	.688	.186	.229	3.711***			
	2단계 ($F_{(6,249)}=4.154, p<.001$)					.091	.009	.816
	SOP	.095	.207	.031	.458			
	SPP	.545	.201	.183	2.714**			
	OOP	.633	.221	.210	2.865**			
	SOP×SPP	.075	.199	.024	.375			
	SPP×OOP	.275	.195	.106	1.405			
	SOP×OOP	-.235	.246	-.070	-.954			

주: SOP=자기지향적 완벽주의, SPP=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OOP=타인지향적 완벽주의;

* $p < .05$, ** $p < .01$, *** $p < .001$

<표 10>은 전문무용수들의 폭식행동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표에서 보듯이, 발레무용수와 한국무용수들의 폭식에 대한 세 가지 완벽주의 성향의 주(직접)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는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전문무용수의 무용장르에 따른 폭식행동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구분	예측변수	B	S.E.	β	t	R^2	ΔR^2	ΔF
발레	1단계 ($F_{(3,169)}=.366, p>.05$)					.006	.006	.366
	SOP	-.054	.189	-.023	-.285			
	SPP	.166	.206	.067	.804			
	OOP	.095	.186	.040	.512			
	2단계 ($F_{(6,166)}=1.033, p>.05$)					.036	.030	1.695
	SOP	-.064	.217	-.028	-.295			
	SPP	.136	.221	.055	.616			
	OOP	.237	.208	.100	1.137			
	SOP×SPP	.219	.155	.254	1.410			
	SPP×OOP	-.220	.129	-.194	-1.708			
	SOP×OOP	-.117	.181	-.119	-.646			
한국 무용	1단계 ($F_{(3,252)}=1.077, p>.05$)					.013	.013	1.077
	SOP	.089	.238	.025	.373			
	SPP	.350	.226	.103	1.549			
	OOP	.033	.220	.009	.148			
	2단계 ($F_{(6,249)}=.712, p>.05$)					.017	.004	.355
	SOP	.129	.246	.036	.524			
	SPP	.283	.239	.083	1.186			
	OOP	.138	.263	.040	.526			
	SOP×SPP	.223	.236	.064	.945			
	SPP×OOP	-.100	.232	-.034	-.432			
	SOP×OOP	.001	.293	.000	.005			

주: SOP=자기지향적 완벽주의, SPP=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OOP=타인지향적 완벽주의;

* $p < .05$, ** $p < .01$, *** $p < .001$

IV. 논의

본 연구는 전문무용수들의 연령과 무용장르에 따른 다차원적 완벽주의 성향이 섭식태도의 하위 요인에 미치는 주(직접)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대의 젊은 무용수들의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성향은 이들의 절식행동을 유의하게 정적으로 예측하였지만(5.6%), 세 가지 완벽주의 성향과 재검정을 한 상호작용항은 절식행동과 폭식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타인지향적 완벽주의 성향이 섭식통제행동과의 관계를 정적으로 예측하였지만(5.9%),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30대 이상의 무용수들의 경우에 세 가지 완벽주의 성향 중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성향이 절식행동을 정적으로 예측하는 변수이었지만, 세 가지 완벽주의 성향이 상호작용하여 절식행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타인지향적 완벽주의 성향은 이들 무용수들의 섭식통제행동을 정적으로 예측하였지만(5.7%),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와 30대의 무용수 집단의 세 가지 완벽주의 성향은 폭식행동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무용장르에 따른 완벽주의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발레무용수들의 세 가지 완벽주의 성향은 절식행동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들의 섭식통제행동의 경우,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에 의해 정적으로 예측되었지만 완벽주의 성향들 간의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발레무용수들의 폭식행동에 대해서 세 가지 완벽주의 성향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용수들의 경우도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성향이 이들의 절식행동과 섭식통제행동을 예측하였지만 둘 다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 한국무용수의 폭식행동에 대해서 세 가지 완벽주의 성향 모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무용수들의 연령대별로 섭식장애 행동에 미치는 다차원적 완벽주의의 효과를 종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타인지향적 완벽주의가 각각 20대 무용수들의 절식 행동과 섭식통제행동을 예측하였다.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타인지향적 완벽주의는 각각 30대 이상의 무용수들의 절식 행동과 섭식통제행동을 예측하는 주요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발레무용수들의 섭식통제행동과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타인지향적 완벽주의가 한국무용수들의 절식과 섭식통제행동을 예측하는 주요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전문무용수들의 연령별, 무용장르별 분석결과에 비추어 볼 때, 세 가지 완벽주의 성향이 섭식태도 행동의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 효과는 각기 다르다. 세 가지 다차원적 완벽주의 성향 중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성향이 전문무용수들의 절식과 섭식통제행동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임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 비록 세 가지 완벽주의 성향이 상호작용하여 섭식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않았지만, 이번 연구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전문무용수들의 연령과 무용장르에 따라 세 가지 완벽주의 성향이 섭식태도 행동에 각기 상이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자기지향적 완벽주의만이 20대의 전문무용수들의 절식행동을 예측하는 변수임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30대 이상의 노련한 무용수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젊고 의욕적인 20대의 무용수들이 자신에게 높은 기준을 세우고 자신의 기량을 보다 엄격하게 평가하고 비판하는 성향이 절식행동을 유발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성취 지향적이고 자기애적인 현대사회에서 완벽하다는 것은 전문무용수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이상적인 상태이며, 무용수로서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추구해야 하는 미덕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하지만 완벽주의자는 비현실적인 높은 기준으로 인해 쉽게 좌절하고, 자기비하감에 빠질 수 있으며 현실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를 갖기 힘들게 하는 등 그 병폐 또한 적지 않다(Burns, 1980).

완벽주의가 거식증이나 폭식증 같은 섭식태도자의 성격특질로 많은 연구에서 확인되어 왔으며 섭식태도의 발생과 유지에 주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시사되고 있다(Goodwin et al., 2014). 지나친 완벽주의 추구는 오래전부터 우울증, 강박증, 불안장애, 섭식태도 등의 다양한 심리적 장애를 유발, 유지 및 악화시키는데 기여하는 성격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다. 특히 섭식태도자들은 자신의 몸매관리와 다이어트에 대해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준을 설정해 놓고 이에 못 미칠 경우 심한 수치심과 자기비하감을 경험하게 된다(Cockell, Hewitt, Goldner, & Flett, 2001). 이들은 섭식습관, 몸매, 체중관리에 극단적인 중요성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에 다양한 섭식태도 증상을 초래하게 된다(Nordin-Bates, Schwarz, Quested, Cumming, & Aujla, 2016).

세 가지 완벽주의 하위요인 중에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그 동안의 연구에서 개인의 심리적인 부적응과 가장 높은 관련성을 일관되게 발표되었는데(김윤희, 서수균, 2008), 주로 개인의 고독감, 수줍음,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 낮은 사회적 자존감, 우울감과 관련이 있었다(Flett & Hewitt, 2016). 본 연구에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성향이 전문무용수들의 연령과 무용장르에 관계없이 절식행동과 섭식통제행동을 가장 잘 예측하는 주요 변수이었다.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란 중요한 타인이 자신에 대해서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엄격하게 평가하고 있으며,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자기를 거부할 거라는 신념과 지각을 반영하고 있다. 전문무용수들은 동료 무용수들과 지도자들이 직업무용수로서 자신에 대해서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무용단에서 어떤 불이익 혹은 부정적인 평가(예; 배역선정에서 불이익, 재계약 등)를 받게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무용수로서 적절한 몸매와 체중관리를 위해 절식을 하거나 섭식을 통제하게 되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기존의 연구(김하영, 박기환, 2009)에서도 섭식태도와 가장 관련성이 높은 예측변수로 알려져 있는데,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20-30대 여성들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 폭식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임을 나타냈다. 또,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이상 섭식태도에 영향을 주는 완벽주의 성향을 규명한 오경자와 정현강(2008)의 연구에 의하면, 타인지향적 완벽주의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폭식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거식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낯선해지고자 하는 여성들의 욕구는 여러 가지 행동으로 표현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섭식통제를 들 수 있다(김하영, 박기환, 2009). 이는 무용수들이 자신의 체형과 체중에 대한 강박 관념 등으로 인해 절식이나 섭식통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진 결과(김민희, 1999; 안애순, 1998; 유진, 김광자, 2001; 이연숙, 박현, 2005; Brooks-Gunn & Warren, 1985; Zhuoli & Yuhuan, 2015)와 무관하지 않다. 전문무용수들은 특히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성향을 높게 지각하여 자신의 실제 체중과 상관없이 날씬해지고자 하는 욕구로 인해 다이어트 즉, 절식과 섭식 통제를 선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다차원적 완벽주의 관점(Hewitt & Flett, 1991)에서 국내 전문무용수들의 완벽주의 성향이 섭식태도에 미치는 직접효과 및 상호작용 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실증분석(예비조사 N=150, 본 조사 N=429)을 사용하였다. 주요 11개 전문무용단에 소속된 남녀 무용수 429명(남자 무용수=110명, 여자무용수=319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문무용수들의 완벽주의 성향은 연령에 따라 섭식태도 행동에 상이한 영향을 주었다. 20대의 전문무용수의 경우,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성향은 절식행동에 영향을 주었으며, 사회적 부과된 완벽주의와 타인지향적 완벽주의 성향은 섭식통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30대 이상의 전문무용수들에게는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절식 행동에 정적으로 예측하는 변수였으며, 타인지향적 완벽주의는 섭식통제행동을 정적으로 예측하는 변수이었다. 그러나 전문무용수들의 폭식행동은 이들의 연령 및 세 가지 완벽주의 성향과 관련이 없었다.

국내 전문무용수들의 완벽주의 성향은 무용장르에 따라 섭식장애 요인 중 절식과 섭식통제행동에 상이한 영향을 주었다. 즉, 한국무용수들의 절식행동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성향에 의해, 섭식통제행동은 타인지향적 완벽주의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성향에 의해 정적으로 예측되었지만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 완벽주의 성향은 발레무용수들의 절식과 폭식행동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지만,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이들의 섭식통제행동을 예측하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그 동안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연구들이 무용수들의 완벽주의 성향과 섭식장애 또는 무용상해와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Hewitt와 Flett(1991)에 의해 개념화된 다차원적 완벽주의에 기초하여 세 가지 완벽주의 성향이 직업무용수들의 섭식장애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규명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전문 현대무용단의 단원들을 제외하고 발레무용수와 한국무용수들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한계를 안고 있어 본 결과를 해석하는데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한 전문무용수들 중에는 기혼자들도 있었지만 결혼 여부에 따른 각 측정변수의 평균차이와 다차원적 완벽주의의 주(직접)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검정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무용전공 학생들을 포함

하여 전문무용수들의 완벽주의 성향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은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여 후속연구를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앞으로 전문무용수들의 섭식장애를 잘 이해하고 예측하기 위한 몇 가지 후속연구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전문무용수들의 섭식장애와 상해경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할 것으로 가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차원적 완벽주의 성향의 효과를 검정하는데 초점을 두었지만, 앞으로 무용단의 분위기 지각과 개인의 목표성향, 스트레스,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자기관리전략, 지도자와 무용수와의 상호관계 등의 요인도 전문무용수들의 섭식장애와 상해경험 수준에 미치는 직간접인 효과를 가질 것으로 사료됨으로 앞으로 검정하는 것도 필요 할 것이다. 둘째, 전문무용수들의 섭식장애는 무용활동과 관련하여 불가피한 일이다. 일반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전문무용수들도 하나의 직업으로서 무엇보다 자기관리전략이 중요하다. 자기관리전략이란 개인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 측면뿐 아니라 연습과 사생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자기 스스로의 절제를 통해 철저해지는 것을 말한다(허정훈, 2004). 이러한 자기관리는 개인으로 하여금 자기 스스로를 조절하고 관리하는 심리 행동적 특성인 바 전문무용수들의 장르별 신체관리는 물론 심적, 정신적 관리 및 연습과 생활의 영향관계를 검정해 봐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민화(2015). 무용전공 여대생들의 스포츠영양지식과 신경성 대식증과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민희(1999). 발레 무용수의 섭식태도의 원인과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38(1), 713-721.
- 김소정, 손준호, 류호상(2008). 무용전공 여대생의 BMI 및 신체자아상에 따른 섭식태도 수준. 한국발육발달학회지, 16(3), 163-172.
- 김시연, 백근영, 서영석(2010).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의 내면화가 섭식태도 증상에 미치는 영향: 무용 전공 여대생과 일반 여대생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4), 613-634.
- 김윤희, 서수균(2008). 완벽주의에 대한 고찰: 평가와 치료.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3), 581-613.
- 김혜정, 이옥란(2011). 무용전공 고등학생의 신체이미지와 외모관리행동 및 섭식장애의 관계. 한국무용과학회지, 23, 1-18.
- 김희영, 김숙영(2003). 무용전공 여대생의 체중조절과 섭식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체육학회지, 20(2), 1091-1103.
- 박선정, 민현주(2012). 무용전공 여학생들의 체형만족도에 따른 섭식척도와 섭식장애와의 관계. 대한무용학회는 문집, 70(4), 27-45.
- 박수정, 김현숙(2015). 무용전공 여자대학생의 완벽주의성향과 소진의 관계: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무용과학회지, 32(1), 75-90.
- 박재우(1998). 과제의 자아위협도와 완벽주의가 과제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신말연(2016). 여성 무용전공자들의 영양지식 인지, 식습관, 신체조성 및 건강관련 체력과의 상관관계. 한국무용과학회지, 33(1), 107-117.
- 양명주(2012). 발레리나들의 섭식장애와 골밀도에 관한 연구. 한국무용과학회지, 27, 181- 191.
- 오경자, 정현강(2008). 이상 섭식태도에 영향을 주는 완벽주의 성향과 정서조절 양식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9(1), 41-55.
- 유 진, 김광자(2001). 전공과 비만수준에 따른 여자 무용수들의 섭식태도 분석. 한국사회체육학회지, 15, 609-619.
- 유 진, 이선애(2005). 무용전공 여학생들의 섭식태도 위험요인 예측인자 분석.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6(1), 17-29.
- 유영란, 최현혁(2014). 완벽주의, 지각된 유능감과 탈진의 관계에서 자율적-통제적 행동조절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체육학회지, 53, 421-434.
- 이미화, 류진혜(2002). 완벽주의 성향의 순기능과 역기능. 청소년학연구, 9(3), 293-316.
- 이연숙, 박 현(2005). 무용 전공 여고생과 비전공 여고생 간의 섭식태도, 월경장애 및 영양상태 비교. 체육과학연구, 16(1), 56-64.
- 이지혜, 양재근, 채진석(2015). 무용수의 다이어트경험 유/무에 따라 식이섭취를 매개로한 완벽주의가 섭식장애에 미치는 조절효과분석. 한국체육과학회지, 24, 1365-1376.
- 정유진(2013). 무용전공 대학생의 완벽주의성향과 신체불만족 및 공연스트레스의 관계. 한국무용과학회지, 30(1), 37-53.
- 표경선, 안도희(2006).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완벽주의, 성취목적, 부모 양육방식 및 학업성취간의 관계모형. 아동교육, 15(2), 211-227.
- 허정훈(2004). 성취목표 지향성과 자기관리의 관계 분석. 체육과학연구, 15(3), 127-135.
- Abraham, S. (1996). *Characteristics of eating disorders among young ballet dancers*. Psychopathology, 29(4), 223-229.
- Aiken, L. S., & West, S. G.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Newbury Park, CA: Sage.
- Appleton, P. R., Hall, H. K., & Hill, A. P. (2009). *Relations between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and burnout in junior-elite athletes*.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10, 457-456.
- Bieling, P. J., Israeli, A., & Antony, M. M. (2004). *Is perfectionism good, bad, or both? Examining models of the perfectionism construc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6(6), 1373-1385.
- Brooks-Gunn, J., & Warren, M. P. (1985). *The effects of delayed menarche in different contexts: Dance and nondance stud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4(4), 285-300.
- Brown, E. J., Heimberg, R. G., Frost, R. O., Makis, G. S., Juster, H. R., & Leung, A. W. (1999). *Relationship of perfectionism to affect, expectations, attributions and performance in the classroom*.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8(1), 98-120.
- Burns, D. D. (1980). *The perfectionist's script for self-defeat*. Psychology Today. New York: Novem.
- Cockell, S. J., Hewitt, P. L., Goldner, E. M., & Flett, G. L.(2001). *Trait and self-presentation dimensions of perfectionism in women with anorexia nervosa*.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4, 713-730.
- Dunn, J. G. H., Dunn, J., & Syrotuik, D. G. (2002). *Relationship between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and goal orientations in sport*. Journal of Sport & Exercise Psychology, 24, 376-395.
- Elliot, A. J., & Church, A. (2005). *Competence and motivation: Competence as the core of achievement motivation*. In A. J. Elliot & C. S. Dweck (Eds.), *Handbook of competence and motivation* (pp. 3-12). London: Guilford Press.
- Enns, M. W., Cox, B. J., & Clara, I. P. (2002). *Adaptive and maladaptive perfectionism: Developmental origins*

- and association with depression pronenes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3, 921-935.
- Flett, G. L., & Hewitt, P. L. (2014). *The perils of perfectionism in sports" revisited: Toward a broader understanding of the pressure to be perfect and its impact on athletes and dancers.*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 Psychology, 45(4), 395-407.
- Frost, R. O., Heimberg, R. G., Holt, C. S., & Mattia, J. I. (1993). *A comparison of two measures of perfection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4(1), 119-126.
- Frost, R. O., Marten, P., Lahart, C., & Rosenblate, R. (1990). *The dimension of perfectionism.*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4(5), 449-468.
- Garner, D. M., & Garfinkel, P. E. (1991). *The eating attitude test: An index of the symptoms of anorexia nervosa.* Psychological Medicine, 9, 272-279.
- Gilman, R., Ashby, J. S., Sverko, D., Florell, D., & Varjas, K.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ectionism and multidimensional life satisfaction among Croatian and American youth.*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9, 155-166.
- Goodwin, H., Arcelus, J., Geach, N., & Meyer, C. (2014). *Perfectionism and Eating Psychopathology Among Dancers: The Role of High Standards and Self-criticism.* European Eating Disorders Review, 22(5), 346-351.
- Hewitt, P. L., & Flett, G. L. (1991). *Perfectionism in the self and social context: Conceptualization, assessment and association with psychopat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456- 470.
- Hewitt, P. L., & Flett, G. L. (1993). *Dimensions of perfectionism, daily stress, and depression: A test of the specific vulnerability hypothesi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2, 58-65.
- Kawamura, K. Y., Frost, R. O., & Harmatz, M. G. (2002). *The relationship of perceived parenting styles to perfection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2(2), 317-327.
- Lynd-Stevenson, R. M., & Hearne, C. M. (1999). *Perfectionism and depressive affec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6, 549-562.
- Nordin-Bates, S. M., Schwarz, J. F. A., Quested, E., Cumming, J., & Aujla, I. J. (2016). *Within- and between-person predictors of disordered eating attitudes among male and female dancers: Findings from the UK Centres for Advanced Training.* Psychology of Sport & Exercise, 27, 101-111.
- Penniment, K. J., & Egan, S. J. (2012). *Perfectionism and learning experiences in dance class as risk factors for eating disorders in dancers.* European Eating Disorders Review, 20(1), 13-22.
- Pollard-Smith, T., & Thomson, O. P. (2017). *Professional ballet dancers' experience of injury and osteopathic treatment in the UK: A qualitative study.* Journal of Bodywork & Movement Therapies, 21(1), 148-156.
- Quested, E., Cumming, J. & Duda, J. L. (2014). *Profiles of perfectionism, motivation, and self-evaluations among dancers: An extended analysis of Cumming and Duda (2012).*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 Psychology, 45(4), 349-368.
- Saboonchi, F., & Lundh, L. G. (2003). *Perfectionism, anger, somatic health, and positive affec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5, 1585-1599.
- Shumaker, E. A., & Rodebaugh, T. L. (2009). *Perfectionism and social anxiety: Rethinking the role of high standards.* Journal of Behavioural Therapy and Experimental Psychiatry, 40, 423-433.
- Slade, P. D., & Owens, B. G. (1998). *A dual process model of perfectionism based on reinforcement theory.* Behavior Modification, 22, 372-390.
- Zhuoli, T., & Yuhan, S. (2015). *Eating attitudes, weight control behaviors and risk factors for eating disorders among Chinese female dance students.* The European Journal of Psychiatry, 29(4), 249-258

Abstract

The Effects of Professional Dancers'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on Eating Disorders

Kim, Tae-Kyoung

Sangmyoung University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both the main effects and interaction effects of professional dancers' perfectionism on eating disorders and injury experiences from a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perspective (Hewitt & Flett, 1991). For this, 429 professional dancers (110 male dancers, 319 female dancers) completed a set of questionnaires including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eating disorder behaviors, and injury experience inventory in dance setting.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dancers with high self-oriented perfectionism aged 20 were high in injury experiences having no relation to the level of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but dancers with high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was high in injury experiences when they perceived other-oriented perfectionism high. Second, professional dancers' perfectionism had different influences on diet and restrained eating behavior among eating disorder behaviors with their dance genre. Korean traditional dancers' diet were positively predicted by both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and self-oriented perfectionism, and their restrained eating behavior predicted by both other-oriented perfectionism and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interaction between them.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had no direct impact on ballet dancers' binge eating behavior, but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was a predictor of their restrained eating behavior. These results suggest that professional dancers are inclined to get a lot of social and cultural pressure in performing a perfect skill and being thin as a dancer having no relation to their weight. Professional dancers require knowing self-management strategies for effective diet and healthy eating.

Key words : professional dancers,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eating disorder, eating behavior, health

무용은 어떻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무용의 문화예술교육적 가치 실현을 위한 무용향유체험의 질적 분석

권선영** (서울대학교)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무용에 참여하는 이들이 무용을 즐기는 다양한 향유방식을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체험하는지 발견하며, 어떠한 요인들이 중요하게 관여하는지를 확인하는 데에 있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맥락에서 제공되는 무용체험이 행복추구를 위한 보다 더 교육적인 기회가 될 수 있게 만드는 교육방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참여자들의 무용향유체험에 담긴 내적 속성과 의미를 파악하는 일에 주목하기 위해 현상학적 체험연구(van Manen, 1990)에 근거하여 약 18개월간 연구를 진행하였다. 전형적 사례 선택 기법(Miles & Huberman, 1994)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대표적인 사례 두 팀(‘삼삼오오’팀, ‘쫄쫄마실’팀)과 일반적인 발레강좌팀을 선정하였다. 이 세 팀의 참여자들로부터 학습자 18명, 교육자 6명을 연구 참여자로 최종 선정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면담(심층면담과 그룹면담), 수업관찰, 자기보고식 일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자료의 분석은 Wolcott(1994)가 제안한 기술, 분석, 해석의 순환적 과정의 큰 틀 속에서 van Manen(1990)이 제시한 현상학적 체험 연구에서의 자료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나타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용을 향유하는 방식에는 기능적으로, 유희적으로, 공헌적으로 향유하는 방식이 있으며, 이 세 가지 방식은 유기적으로 전환되고 확장된다. 둘째, 무용을 향유하는 과정에서 학습자의 내면에서는 몸의 체험, 앞의 체험, 마음의 체험이 동시에 일어나며, 세 가지 체험은 서로 관계하며 점차적으로 깊어진다. 셋째, 무용을 향유하는 방식이 넓어지고 향유의 체험이 깊어지도록 하는 데에는 학습자, 교육자, 수업, 사회/환경의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 넷째, 학습자들의 무용향유체험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사적 접근방식의 교육방법이 적합하다. 결론적으로, 무용을 향유하는 체험은 수많은 과정들로 엮여있는 것이며, 이는 참여자들의 삶의 맥락에서 함께 일어나는 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후속연구를 제안하였다. 첫째, 무용향유체험에 대해 보다 집중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무용향유체험에 대한 공동체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무용향유체험과 덕, 인성과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무용향유체험을 높이는 서사적 접근방식에서의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연구가 필요하다.

주요어 : 문화예술교육, 무용향유체험, 행복, 기능적 향유, 유희적 향유, 공헌적 향유, 서사적 접근방식, 무용실천 공동체

I. 서론

* 이 논문은 저자의 2017년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임.

** homoartex@snu.ac.kr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누구나 염원하는 일이다. 물질적 풍요만이 행복과 성공의 척도였던 과거를 지나, 최근에는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인간의 욕구가 ‘생리적 존재’, ‘안전’, ‘소속’, ‘자기존중’, ‘자아실현’의 순서로 발생한다고 본 Maslow(1970)의 욕구 이론에서처럼, 결국 인간에게 최고 상위의 욕구는 육체나 물질보다는 정신적인 것에 있기 때문이다(김윤태, 2009). 오래 전부터 선진국에서는 문화와 예술의 중요성에 무게를 실어 왔다. 경제성장은 더 이상 의미가 없으며 문화와 예술에 기반을 둔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 개발 및 인력 양성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일찍이 예측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예술과 문화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3; Oswald, 1997). 문화와 예술이 21세기의 새로운 키워드라는 생각이 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이러한 변화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5년 문화예술진흥법의 제정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다양하고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이는 문화예술인들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학생들의 문화예술 경험이 증가하는 등 여러 차원에서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내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문화예술에 있어 핵심적인 한 장르인 무용 분야 역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전까지 학교교육의 현장에서 무용은 체육의 한 단원에 포함되어 있어 체육교사들에 의해 가르쳐져 왔으나, 문화예술 교육 정책을 통해 전국의 학교에 파견된 약 850여 명의 무용예술강사들이 파견되어 무용을 직접 가르칠 수 있게 된 것이다(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4). 뿐만 아니라, 성인,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아동, 군인 등 다양한 범위의 사람들에게 무용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무용교육의 새로운 실천의 장이 열리게 되었다(이병준, 이유리, 2014).

그러나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통해 확산된 무용교육이 국민들의 삶을 실제로 행복하게 하고 있는 것인지는 명확히 알기가 어렵다. 무용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수혜자의 만족도, 프로그램 평가 등을 통해 사업의 성과적 측면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있지만, 무용을 통해 실제로 각 대상별 학습자들이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는 마치 “블랙박스”(Hong, 2006 p.70)의 상태와 같다는 것이다. 내부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투명하게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블랙박스”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밝혀내야만 무용교육을 통한 예술적 체험이 학습자의 삶과 행복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지를 논의할 수 있다. 그런 후에야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으로서의 무용교육의 질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석문주, 최은식, 최미영, 2010).

무용교육 분야에서 문화예술교육 내 무용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의 무용에 대한 인식, 신체 만족도, 자기효능감, 정서기능의 변화(김연정, 2012; 김이정, 2011; 김정하, 박현옥, 2012; 김현진, 2013; 박현옥, 2011; 박현정, 김지영, 2012; 이정일, 이성노, 이태현, 2012) 등 그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연구들을 진행해 오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대부분 양적 연구들로 이루어져 있어 통계적으로 파악된 이러한 변인들의 변화가 곧 그들의 삶의 행복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간주하기에는 다소 설득력이 부족하다. 무용경험의 긍정적 차원이 삶에 전이되면서 행복한 삶을 실현하게 해주는 힘으로 작용함을 보여주는 질적 연구도 인문적 체육교육론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박소현 2009; 박혜연, 2014; 오현주, 2008), 이들 연구는 대부분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연구 참여자이라는 점에서 다소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보다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무용활동에 참여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무용을 향유하는 체험에 대한 보다 풍부한 이야기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그들이 무용을 즐기는 일이 어떻게 그들의 삶과 행복과 연결되는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용 프로그램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오고 있는 성인들의 경험에 초점을 두었으며,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예술교육관련 무용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무용을 향유하는가?

둘째, 문화예술교육관련 무용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들은 어떠한 무용향유체험을 하는가?

셋째, 문화예술교육관련 무용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들의 무용향유체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은 무엇인가?

넷째, 문화예술교육의 맥락에서 제공되는 무용프로그램을 통한 무용향유체험을 효과적으로 만드는 교육방법은 무엇인가?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무용에 참여하는 이들이 무용을 즐기는 다양한 방식을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체험하는지 발견하며, 어떠한 요인들이 중요하게 관여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무용향유체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힘으로 작용하는지를 연구참여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들의 몸과 삶에 새겨지는 이러한 체험을 ‘있는 그대로’ 밝혀냄으로써 무용교육에의 기능적 개선에 대한 물음이 아니라 근본적인 의미를 묻고자 한 것이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1년 6개월 동안 진행되었으며, 참여자들의 무용향유체험에 담긴 내적 속성과 의미를 파악하는 일에 주목하기 위해 질적 연구의 패러다임 중 현상학적 체험연구에 근거하여 연구를 설계하였다.

1. 연구 사례 및 연구 참여자

전형적 사례 선택 기법(Miles & Huberman, 1994)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이 대표적으로 실천되고 있는 ‘삼삼오오’팀과 ‘춤꽃마실’팀, 그리고 일반적인 무용수업이 실천되고 있는 ‘발레강좌팀’을 주요 사례로 선정하였다. ‘삼삼오오’팀은 2014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시민참여형 예술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주최한 ‘어른들을 위한 몸놀이 공장, 3355프로그램¹⁾에 참여한 참가자들 중 일부가

1) 선착순으로 모인 19세 이상 일반인 80명이 10주 동안 주3회 워크숍을 거쳐 작품을 만드는 과정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이다.

모여 새로이 팀을 구성한 사례이다. 팀명 역시 ‘3355 프로그램’에서 따온 것이다. 이 팀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연령대는 20대에서 40대로 폭넓은 만큼 직업 또한 주부, 직장인, 학생, 연출가, 예술치유사 등 다양하다. 이 팀은 춤의 기술 향상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이 움직이는 방식과 형태를 새롭게 인식하고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몸의 기능과 구조에 충실하면서 보다 자연스럽고 수월하게 움직이는 방법들을 살펴볼 수 있게 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박관호, 2016). ‘춤꽃마실’ 팀은 2012년 ‘춤추는 꽃중년 프로젝트’에서부터 시작된 모임이다. 이 프로젝트는 세대 간 소통과 지역 문화를 살리기 위해 지역문화재단과 문화예술기관이 함께 주최하여 시작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중년 여성을 위한 지역 밀착형 생활 예술 활동이었다. 약 2년의 지원 후에 재단과 기관의 지원은 종료되었고, 이 프로젝트 참여하였던 중년여성들이 자발적으로 다시 모여 ‘춤꽃마실’이라는 팀명으로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마지막으로 발레강좌팀은 일반적인 발레수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례이다. 이는 문화예술교육으로서의 수업이기 보다는 동작과 기술의 향상에 초점을 둔 전형적인 발레 수업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의 사례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발레 수업에서 일어나는 의미 있는 무용향유체험을 포착해내고자 사례로 선정하였다.

표 1. 연구사례

사례		활동목적	주요특징	참여자 연령
문화 예술 교육	삼삼오오	움직이는 몸의 방식과 형태를 새롭게 찾아가기	지역문화재단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무료 프로그램 (교육자 파견 및 운영 지원) 지원방식에 따라 참여자들이 직접 일정 및 장소 결정 2년차 운영 중	20대 -40대
	춤꽃마실	즐거운 춤으로 행복한 중년의 삶 찾기	지역문화재단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무료 프로그램 (교육자 파견) 지역문화예술기관으로부터 수업공간 지원 주 1회 진행 5년차 운영 중	50대 -60대
일반적인 발레강좌팀		발레의 기본적인 자세와 동작 배우기	○○대학교에서 교내 구성원을 위해 제공되는 프로그램 매 3개월마다 수업이 새롭게 시작 주 2회 유료수업	20대 -30대

연구 참여자는 총 24명을 선정하였다. 위의 세 가지 사례의 학습자 중에서 무용활동을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2년 이상 지속해 온 사람들을 1차적으로 선정하고 van Kamm(1966)이 제시한 여섯 가지 연구 참여자 선정조건²⁾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18명의 연구 참여 학습자를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 교육자는 각 사례별 담당 교육자 3명과 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무용수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으며 무용교육경력이 5년 이상 되는 무용 교육자 3명을 추가하여 구성하였다.

춤의 기술 향상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공유된 하나의 주제를 놓고 이와 관련하여 몸과 움직임을 자유롭게 움직이는 형태로 수업이 진행되었다(중앙일보, 2014년 7월 11일자 기사).

- 2) 연구 참여자 선정에 있어 van Kamm(1966)이 제시한 고려조건은 첫째, 언어로 자신의 체험을 잘 표현할 수 있는가, 둘째, 수줍어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자신의 체험을 표현할 수 있는가, 셋째, 이 체험과 연결된 다른 체험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러한 체험들을 표현할 수 있는가, 넷째, 연구주제에 대한 최근의 체험을 표현할 수 있는가, 다섯째, 자신이 한 체험에 대하여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는가, 여섯째, 자신이 체험한 것을 차분하게 기술할 수 있는가이다.

2. 자료 수집

van Manen(1990)은 현상학적 연구에서 자료 수집의 방법으로 설문조사, 심층면담, 참여관찰 뿐만 아니라 문학작품, 전기, 일기 등을 검토하면서 연구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고 말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자료 수집의 방법 가운데 수업 안은 물론, 수업 밖 연구 참여자들의 생활에서 나타나는 무용향유체험의 방식을 이해하기 위하여 면담(심층면담과 그룹면담), 수업관찰, 자기보고식 일지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첫째, 심층면담은 약 8개월 간에 걸쳐 1회 또는 2회의 반구조화된 1:1 면담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1:1면담 내용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 그룹면담을 진행하여, 참여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나눔으로써 체험에 대한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보다 편안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면담의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 하에 녹음한 후, 전사하여 파일로 관리하였다. 둘째, 수업관찰은 연구 참여 학습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무용수업 현장을 매주 1회 방문하여 비참여 관찰하며, 그들의 활동모습을 영상 및 사진 촬영, 그리고 관찰일지 작성으로 기록하였다. 관찰을 통해 발견되는 중요한 상황 및 맥락에 대해서는 비공식적으로 면담을 요청하여 관찰일지에 추가적으로 기록하였다. 셋째, 연구 참여자들에게 요청하여 수집한 자기보고식 일지는 참여자들이 무용 활동을 하는 동안에 경험하는 무용체험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3. 자료 분석 및 연구의 진실성

지금까지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Wolcott(1994)가 제안한 기술, 분석, 해석의 단계와 van Manen(1990)이 제시한 현상학적 체험 연구에서의 자료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첫째, 무용향유체험의 방식을 파악하고자 하는 데에 있어서 자료의 기술단계는 단순한 기록의 작업이 아니라 수집된 자료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그 안에 포함된 의미들을 발견하는 첫 단계로서 매우 중요하였다. 둘째, 자료의 분석의 단계에서는 자료의 내용 자체를 현상학적 텍스트로 읽어 나가며, 그러한 텍스트로부터 핵심어구(또는 주제)를 포착하거나 작성하여 범주화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van Manen, 1990). 셋째, 해석의 단계에서는 의미 또는 주제 단위로 묶은 것을 지속적으로 반성 및 성찰하며 독자들이 보고 공감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하는 과정을 거쳤다. 연구의 전 과정에 걸쳐 연구의 진실성(trustworthiness)을 확보하기 위해서 Lincoln과 Guba(1985)가 제시한 신뢰성 준거 중 다각적 자료 수집을 통한 검증, 연구 참여자 검토, 동료 간 협의를 실시하며 과정에 있어서 연구 방법이나 절차, 결론이 타당하고 신뢰할 만한 것인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무용향유체험의 방식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무용 수업이나 프로그램은 물론, 그들이 일상의 삶에서 무용을 어떻게 즐기고 있는지를 함께 주목하였다. 그들은 분명 수업상황을 벗어난 시간과 공간에서, 즉 실제 삶이 펼쳐지는 생활세계에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무용을 즐기고 있었다. 그들이 무용을 즐기는 방식은 크게 ‘기능적으로 향유하기’, ‘유희적으로 향유하기’, ‘공헌적으로 향유하기’의 방식으로 나타났다(〈그림 1〉 참조). 그리고 그 방식들은 연구참여자들의 삶의 맥락 안에서 순환하는 모습을 띄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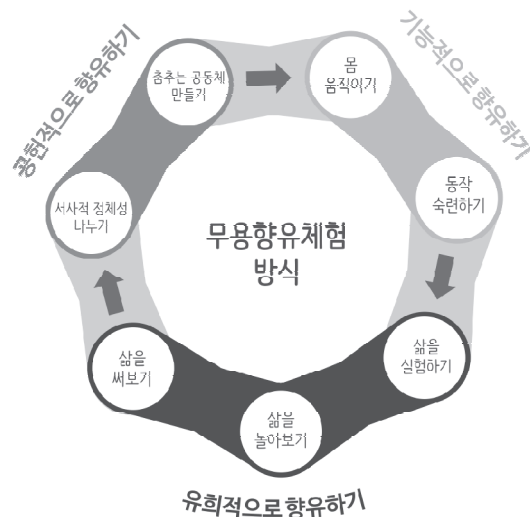


그림 1. 무용향유체험의 방식

연구 참여자들의 무용경험은 대부분 특정 장르의 무용 형식 안에서 동작수행 향상과 기술적 완성을 추구하며 무용을 즐기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기능적으로 향유하기’라고 이름 붙였으며, 이에 ‘몸 움직이기’, ‘동작 숙련하기’의 활동이 포함되었다. 연구참여자들에게 있어 무용을 기능적으로 향유하는 일은 그들의 삶에 생겨날 변화가 처음 시작되는 파원(波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점차 특정 장르의 무용형식에서 벗어나 ‘신체접촉 활동’, ‘즉흥무용’, ‘무용공연 보기 또는 하기’, ‘춤으로 여행하기’ 등 다양한 활동들로 무용활동의 반경들을 넓혀나갔다. 이와 함께 자신의 삶을 실험하고, 놀아보고, 써보며 무용을 즐기고 있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무용을 즐기는 것을 본 연구에서는 ‘유희적으로 향유하기’라고 이름 붙였다. 무용동작 보다는 우리의 몸과 움직임 자체에 관심을 갖고 놀이하듯 무용을 즐기는 것을 의미한다. 즉, 무용의 기술적 향상에 목적을 두는 ‘기능적으로 향유하기’에서와는 달리, 우리의 몸과 움직임 자체가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만의 움직임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그 과정에서 발견되는 의미와 가치를 자신의 삶과 연결하며 무용을 즐기는 것이다. 수동적으로 무용을 감상하고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한 삶을 위한 성장의 원천으로서 무용경험을 능동적으로 즐기기를 원했다. 인간을 호모루덴스(Homo-Ludens), ‘놀이하는 인간’으로 정의한 호이징가는 유희에 있어서 자발성은 필수적이라 주장한다(이종인 역, 2010). 연구 참여자들의 이러한 활동은 무용수업에서 제시된 과제도 아니었으며, 특정한 목적을 위한 연습도 아니었다. 자신이 존재하는 공간과 시간 안에서 무용으로 느껴지는 즐거움 자체를 지속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무용을 놀이하듯 즐기는 자신들의 삶 그 자체를 즐기고 있었다. 즉, 무용을 향유

하는 것인 동시에 삶을 향유하는 것이었다. 무용으로 ‘놀이’한다는 것은 주어진 것으로부터 의미를 수동적으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삶의 의미를 주체적으로 발견하는 일이었다. 무용을 향유하는 이러한 방식은 우리를 삶의 능동적인 주체로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방식으로 의미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의 무용향유체험의 방식은 어느 한 가지 방식으로 머무르지 않았다. 반복, 순환의 과정을 거치며 좀 더 확장되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앞의 두 가지 방식으로 무용을 즐기던 연구참여자들의 초점은 자기 자신에게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무용활동을 지속함에 따라 초점을 점차 자기로부터 타인에게로 옮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Rifkin(2009)이 인간은 ‘공감하는 인간(Homo empathicus)’로 진화하고 있다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 드러난 연구참여자들의 무용향유체험의 방식 역시 이타적인 활동으로 진화하고 있었다. 이러한 방식을 ‘공헌적으로 향유하기’라고 명명하였다. 기능적, 유희적으로 무용을 즐겨오면서 느꼈던 즐거움과 행복함을 타인과 함께 공유하려는 방식으로 무용경험을 즐기게 된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은 ‘공동체적 존재’로서 최종적으로 자신의 무용경험이 타인에서 더 나아가 우리의 공동체가 더 좋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를 추구하고 있었다.

이러한 세 가지 방식은 분명 무용활동에서만 나타나는 고유한 방식은 아니다. 한나 아렌트(1959)는 인간활동을 노동, 작업, 행위로 구분한다. ‘노동’은 생계 유지와 욕망 충족을 위해 행하는 육체의 동작이다. ‘작업’은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여 일의 보람과 재미를 느끼며 수행하는 창조 행동을 의미한다. ‘행위’는 개인의 욕망과 필요를 넘어, 공동체 안에서 타인과 소통을 나누며 공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활동이다. 한나 아렌트의 이러한 세 가지 활동 구분은 본 연구에서 확인한 무용향유체험의 세 가지 방식 보다 훨씬 고차적이며 복잡한 개념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맥락적으로 유사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살펴본 무용향유체험의 세 가지 방식은 기존의 무용교육에서 흔히 구분하는 수행, 창작, 감상이라는 활동방식 보다는 좀 더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인간 활동의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참여자들의 무용체험을 무용교육의 상황에서만 살펴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제 삶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체험되는지를 바라보고자 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것이다. 그들의 무용체험은 결코 삶과 분리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다.

2. 무용향유체험의 내용

연구참여자들은 기능적, 유희적, 공헌적으로 무용을 즐기는 과정에서, 그리고 무용활동이 끝난 후에 어떠한 생각과 느낌을 갖게 되며, 그것이 그들의 삶에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블랙박스”(Hong, 2006, p.70)와 같은 무용체험의 내용을 열어 그 안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인간의 경험은 언제나 개연적이고 종합적이라고 하는 Merleau-Ponty(1945)의 주장처럼, 무용을 향유하는 체험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드러나게

되는지를 총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그림 2>에서처럼 무용을 향유하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내면에서는 몸의 체험, 앎의 체험, 마음의 체험이 동시에 일어나며, 세 가지 체험은 서로 관계하면서 그 깊이가 점차적으로 깊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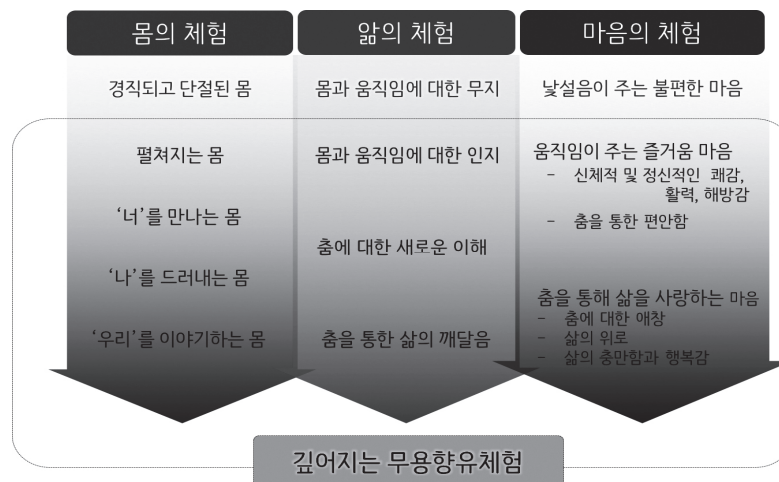


그림 2. 무용향유체험의 내용

연구참여자들은 먼저, **몸의 체험**을 통해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몸이라는 존재와 새로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했다. 몸이 단순히 감각기관들이 뭉쳐져 있는 육체가 아니라 '너'를 만나는 주체로서, '나'를 보여주는 주체로서, '우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주체로서 자신의 삶에 존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몸의 체험의 여정 동안 연구참여자들은 새롭게 무엇인가를 인식하게 되는 단순한 깨달음에서부터 삶의 지혜를 발견하게 되는 보다 깊은 차원의 깨달음까지의 앎의 체험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체험에는 감정이 관여되어 몸과 앎의 체험의 깊이를 더하기도 하고, 반대로 몸과 앎의 체험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정신의 상태가 고양되기도 하는 마음의 체험이 함께 일어나고 있었다. 이처럼, 무용을 향유하는 세 가지 차원에서의 체험은 각기 떨어져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그 깊이를 더해가는 것이었다.

주목할 것은 이 세 가지 측면의 무용향유체험의 깊이가 앞에서 말한 무용향유방식의 확장과 순환에 관계되어 나타난다는 점이다. 무용을 향유하는 방식이 기능적인 것에서, 유희적으로, 그리고 공헌적으로 나아갈수록 연구참여자들의 몸과 앎, 마음의 체험은 깊어지고 있었다(<그림 3> 참고). 무용을 즐기는 것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것으로, 공동체를 위한 것으로 나아갈수록 삶에서의 옳음, 아름다움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실천하게 되며 몸과 마음의 어느 한 쪽이 아니라 모두 충만해지는 체험을 하는 것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이 처음 무용을 시작한 이유는 단순한 목적에 의해서였지만, 무용을 진정으로 즐기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신의 행복에 기여하고 있었다. 행복은 직접적으로 추구한다고 해서 성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교육으로 가르친다고 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닐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의 이러한 몸, 앎, 마음의 체험은 분명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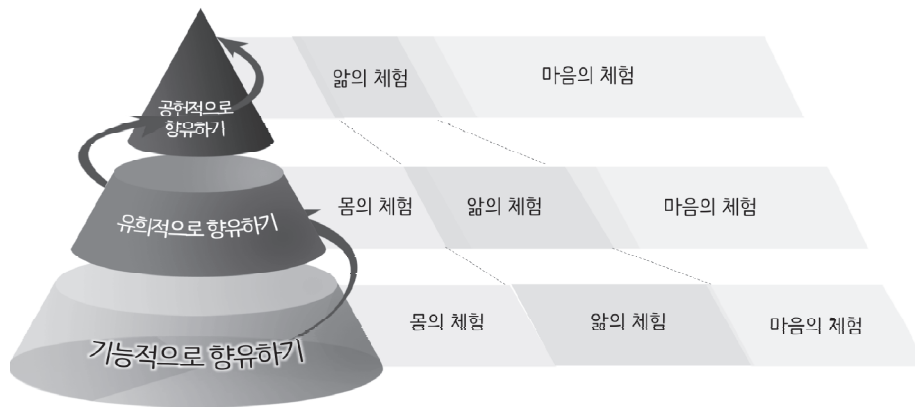


그림 3. 무용향유체험 방식에 따른 무용향유체험 내용의 변화

3. 무용향유체험의 영향요인

연구참여자들은 무용활동을 시작하고 지속함에 따라, 무용을 체험하는 방식이 기능적, 유희적, 공헌적으로 무용을 즐기는 것으로 점차 넓어지고 있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내적인 체험은 몸의 체험을 중심으로, 앎의 체험과 마음의 체험이 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것일까. 본 연구에서는 ①무용향유체험의 시작에서 기능적 향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②유희적 향유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무용체험의 폭을 넓히는 요인들, 그리고 ③공헌적 향유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무용체험의 깊이를 더하는 요인들을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와 함께 살펴보았다. 연구참여자들은 이에 대하여 참여하고 있는 자신과 선생님, 수업의 내용과 방식, 그 외 외부적인 요인들에 의하여 이러한 변화가 생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즉, 학습자, 교육자, 수업, 사회/환경 요인이 무용을 처음 접하게 되는 지점에서부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여 무용을 향유하는 방식의 폭이 넓어지고 깊이를 더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아래의 <그림 4>는 이를 정리하여 도식화한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은 무용을 처음 시작하는 데에 있어서 자신이 몸을 쓰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인지, 춤의 성격과 자신의 성격이 잘 맞는지 등의 개인적인 성향과, 사회가 갖는 무용에 대한 경계심과 부정적인 인식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리고 무용을 지속하게 하는 데에는 그들이 만나는 교육자의 태도와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수업방식이 중요했다. 나아가, 무용향유체험의 방식이 점차 기능적, 유희적, 공헌적으로 확장되어 넓어지는 데에는 보다 복잡한 형태로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었다. 학습자의 표현의 욕구, 안내로서의 교육자의 역할, 자유로움을 인정하는 수업의 분위기, 공유된 지식 정보망이 이들이 무용을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와 동시에, 무용을 향유하는 체험이 보다 자신의 삶에서 의미 있게 되도록 하는 데에도 여러 측면에서의 요인들이 상호적으로 관여되고 있었다. 특히, 함께 무용활동을 하는 사람들과의 유대감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반으로 ‘보이지 않는 끈’으로 서로를 연결하여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무용을 더욱 향유하게 되는

데에는 교육자가 갖고 있는 풍부한 삶의 경험과 그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정부정책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무용향유체험에는 한 개인이 무용을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공동체가 무용을 향유하는 데에 이르기까지 많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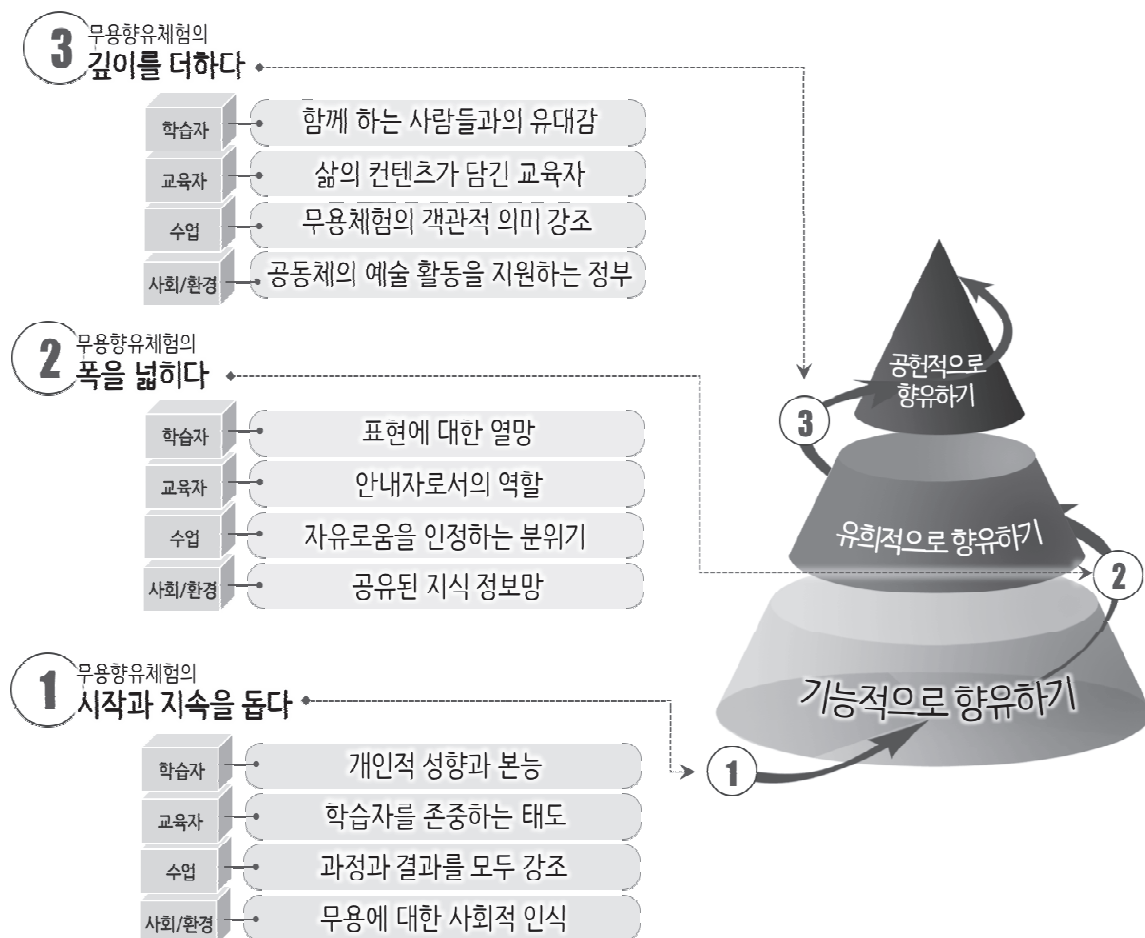


그림 4. 무용향유체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그런데 연구결과를 토대로 알게 된 중요한 것은, 어느 지점에서든 학습자들은 무용활동에 강요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능적으로 무용을 향유하는 방식에서 유희적, 공헌적인 방식으로 나아갈 수록 학습자들의 활동은 수업으로부터, 교육자로부터 제공받은 것이 아니었다. 스스로 찾아가게 된 것이었다. 그들이 무용을 통해 느끼게 된 몸과 마음, 그리고 삶의 체험을 자신의 삶에서 귀중하게 여기게 되어, 무용을 향유하는 것이 자신의 삶 안에서 자연스럽게 펼쳐질 수 있는 나름의 방식대로 말이다. 물론, 이는 무용을 향유하는 체험이 더욱 풍요로워지는데 교육이 할 수 있는 역할이 크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무용을 즐기는 것에는 정해진 방식과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다.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두 다르게 적용될 것이다. 즉, 무용에 들어 있는 가치는 학습자들에게 선물처럼 제공되어야만 보다 편안하게 자신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식을 찾아 무용을 진정으로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무용이 우리의 삶 전체를 위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하나의 유용한 힘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습자들이 무용을 자유롭게 만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편안함이 요청되어야만 할 것이다.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 편안함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그 대상과 자신이 일치되거나, 자신과의 크게 다르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을 때이다. 그동안의 무용교육에서 제공되었던 무용의 기회들이 우리의 삶과 닮아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렇게 무용향유체험에 어떠한 요인들이 관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일은 최종적으로 학습자의 무용향유체험을 보다 높일 수 있는 교육적 아이디어들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4. 무용향유체험을 높이는 교육방법

최종적으로 본 연구는 무용 비전공자의 학습자들이 진정으로 무용을 즐기고 나아가 행복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몇 가지 교육적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교육을 하는 데에 근본이 되는 원리나 교육실천의 지표가 되는 원칙을 제시하는 일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바로 교육원리의 제시이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무용향유체험을 높이는 주요 원리로서 공동체성, 서사성, 윤리성, 창조성을 도출하였다(〈그림 5〉 참고). ‘공동체성’은 무용향유체험의 폭이 넓어지도록 하는 데에, ‘서사성’은 무용을 향유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몸, 앎, 마음의 체험이 점차 깊어지도록 하는 데에, ‘윤리성’은 무용을 향유하는 자신의 삶은 물론, 타인과 공동체의 삶이 모두 행복해 지도록 하는 데에 중요하게 작동하는 원리이다. 마지막으로, ‘창조성’은 앞의 세 가지 원리를 실천하는 데에 기반이 되는 잠재적 힘의 원천으로서 설정된 원리이다.

이러한 네 가지 원리를 교육으로 실현하는 데에 서사적 접근방식이 유용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서사적 접근방식에서 강조하는 인간의 전인성 회복은 앞에서의 ‘윤리성’ 원리와 부합되며, 교육의 내용으로 강조하는 이야기는 ‘서사성’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며, 이야기에는 기본적으로 화자와 청자가 존재해야하기에 학습 공동체의 형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공동체성’과 잘 부합되기 때문이다. 또한, 창의적인 활동이 우리 삶의 틀을 확장시키고, 삶에 생명력과 활기를 불어넣어준다는 점에서 서사적 접근방식과 함께 ‘창조성’의 원리를 실현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무엇보다 서사적 접근방식은 교육과 우리의 삶을 별개로 두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토대로 우리의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것에 중점을 두기에 무용향유체험을 높이는 데에 더욱 적절한 방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방식을 통해 구체적으로 가르쳐야할 무용교육의 내용에는 ‘기능’과 ‘안목’이 함께 강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기법적 방법과 심법적 방법 모두가 교육방법으로서 강조되어야 함을 이야기하였다. 무엇보다 서사적 접근방식을 실천하는 교육자의 ‘춤을 안내하는 서사꾼’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함을 제안하였다. 이야기에 들어있는 가치와 의미가 얼마나 잘 전달되고 공유되는냐에 따라 무용향유체험의 질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용향유체험을 높이는 ‘공동체성’의 원리와 서사적 접근방식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활동으로서 서사적 무용 실천 공동체를 제안하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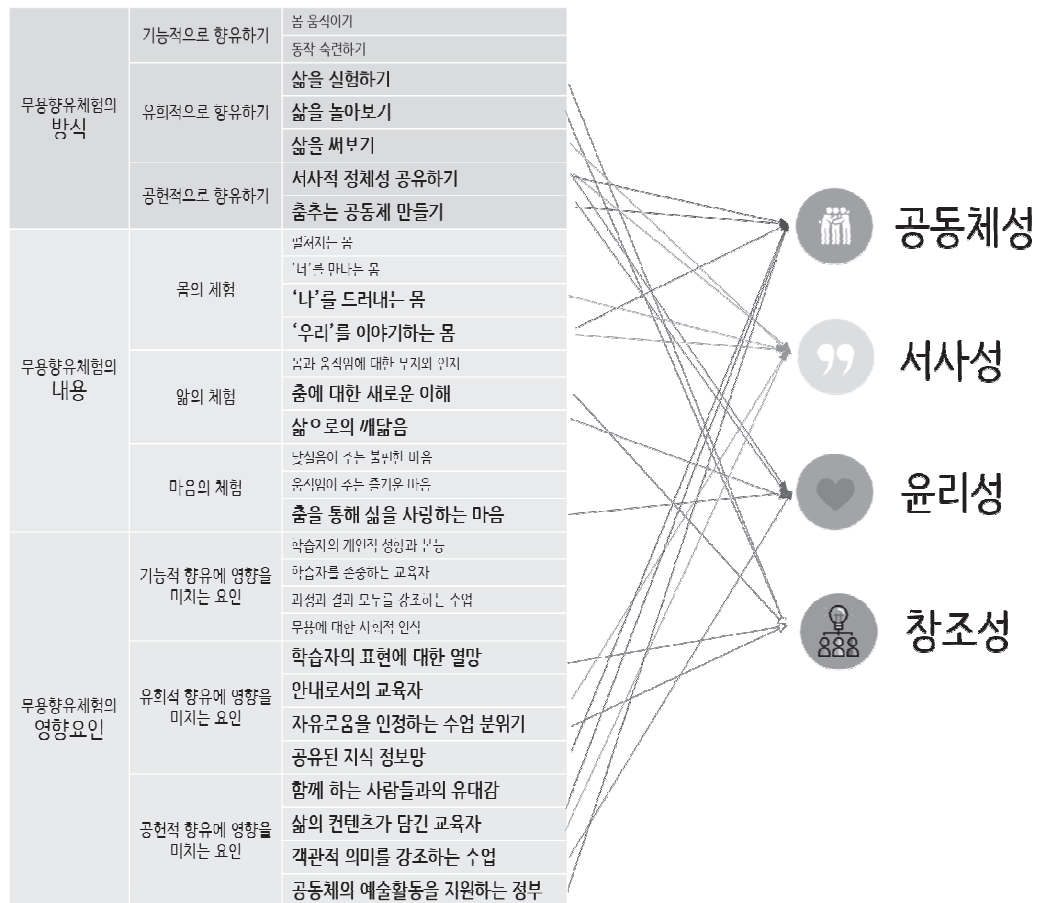


그림 5. 무용향유체험을 높이는 교육원리의 도출

다. 혼자이기 보다는 실천 공동체를 이루어 무용을 즐기는 것이, 무용에 들어 있는 가치와 삶의 의미들을 더욱 잘 찾아낼 수 있게 하는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무용이 어떻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하였다. 이 질문은 연구자가 그동안 춤을 전공으로 해 오면서 느껴왔던 막연한 행복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알고 싶은 개인적인 호기심으로부터 던져진 것이었다.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의 현장에서 무용을 가르치며 만났던 학습자들이 ‘춤을 추면 행복하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했다. 무용이 어떻게 삶을 행복하게 하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에 본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마치 ‘블랙박스’와 같았던 무용향유체험의 그 안을 열어 들여다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무엇보다 연구참여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본 연구에서 학습자들이 무용을 어떠한 방식으로 즐기는지, 그 과정에서 무엇을 체험하는지, 어떠한 요인들이 중요하게 관여하는지를 찾아가는 데에 있어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어 주었다.

그 결과, 무용향유체험은 더 이상 ‘블랙박스’와 같은 상태가 아니라 ‘기프트 박스’로서 우리 삶에 주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지혜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힘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무용향유체험은 철학적, 심리학적, 경제학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향유의 모습과는 달리, 주체적인 체험이며, 학습자의 몸과 앎과, 마음의 체험이 통합적으로 일어나는, 그리고 삶의 가치와 의미를 새로이 발견하는 창조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용을 향유하는 방식에는 기능적으로, 유희적으로, 공헌적으로 향유하는 방식이 있으며, 이 세 가지 방식은 유기적으로 전환되고 확장된다. 둘째, 무용을 향유하는 과정에서 학습자의 내면에서는 몸의 체험, 앎의 체험, 마음의 체험이 동시에 일어나며, 세 가지 체험은 서로 관계하며 점차적으로 깊어진다. 셋째, 무용을 향유하는 방식이 넓어지고 향유의 체험이 깊어지도록 하는 데에는 학습자, 교육자, 수업, 사회/환경의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 넷째, 서사적 접근방식으로 실천되는 무용교육은 학습자들의 무용향유체험을 높이는 행복의 장소가 될 수 있다.

우리의 모든 경험이 그러하듯, 무용을 즐기는 경험 역시 수많은 과정들로 엮여져 있다. 그 수많은 과정은 쌓여진 시간에 따라, 방식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초점을 두고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무용향유체험에 대해 보다 집중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행복을 얻는 과정은 단기적으로 어느 삶의 한 장면만을 보고는 충분히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무용향유체험에 대한 공동체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 참여자들이 무용을 향유하는 방식은 개인적인 활동에서 점차 공동체적인 활동으로 범위가 확장되어 가고 있었다. 무용향유체험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위해서는 참여자들이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는 어떻게 무용을 향유하는지, 그러한 과정에서 어떠한 의미를 발견하고 가치를 내면화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셋째, 무용향유체험과 덕, 인성과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무용향유체험이 최종적으로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활동으로 실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무용이 심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무용을 진정으로 누리는 체험이 전인으로서의 성장과 어떠한 관련성을 지니는지를 확인하는 연구를 통해 무용의 교육적 당위성을 보다 견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무용향유체험을 높이는 서사적 접근방식에서의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삶의 맥락에서 무용을 즐기기 위해 자발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러한 과정에는 많은 시행착오들이 뒤따를 수밖에 없었다. 무용을 즐기는 과정에서 겪는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보다 풍성한 경험의 기회들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교육적 안내가 필요한 것이다.

본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아쉬운 점들이 떠올랐다. 질적 연구다운 질적 연구를 위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노력하였지만, 연구자의 부족함으로 인해 많은 아쉬움들이 남았기 때문이다. 특히, 연구라는 거친 항해의 여정 속에서 어떻게든 도착지에 다다르기 위해 달려가면서 놓쳐버린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들도 있었고,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연

구를 하기에는 연구자의 삶의 지평이 충분히 넓지도 깊지도 못했기에 그만큼 이 연구는 연구참여자들의 삶과 체험을 이해하는 데에 많은 부족함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구자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면서 그리고 무용이라는 존재를 다시 삶과의 관련 속에서 살펴보게 되면서, 무용을 즐기는 체험이 수많은 과정들로 엮어져 있는 삶의 체험과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용은 우리 삶의 전경에서 우리와 함께 존재하며 행복의 힘을 품고 있는 선물상자와 같았다.

참고문헌

- 권혁재(2014). “보통 사람 80명의 제멋대로 '19금 춤’”. 중앙일보(2014년 7월 11일자 기사).
<http://news.joins.com/article/15226167>에서 검색.
- 김연정(2012). 학교문화예술교육 무용참여가 초등학생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경기.
- 김운태(2009). 행복지수와 사회학적 접근법: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는가?.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75-90.
- 김이정(2011). 무용예술강사 수업에 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 및 만족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강원.
- 김정하, 박현옥(2012). 예술통합교육 · 무용이 초등학생의 창의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상과 문화, 62, 369-392.
- 김현진(2013). 무용교육이 초등학생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무용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서울.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4). 2013 문화예술정책백서.
- 박관호(2016). 정책사업 하에 실행된 커뮤니티 댄스 프로젝트에 대한 탐색적 연구 : 서울문화재단 3355팀 사례를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서울.
- 박소현(2009). 초등 발레 특기 · 적성 교육에의 인문적 접근: 하나로 수업의 실천 및 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 박현옥(2011).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여고생의 무용 이미지, 신체 만족도의 변화. 한국사상과 문화, 59, 445-471.
- 박현정, 김지영(2012). 학교문화예술교육으로서 방과 후 무용교육활동에 따른 초등학생의 자기효능감 변화. 한국무용학회지, 12(1), 63-73.
- 박혜연(2014). 한국무용에서 심성 가르치기 : 한국무용 교수학습과정의 심성교육적 차원 탐색.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 석문주, 최은식, 최미영(2010). 외국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 연구: 미국, 영국, 핀란드, 일본을 중심으로. 예술교육연구, 8(2), 1-19.
- 오현주(2008). 한국 전통춤 교수법의 인문적 접근 탐색: 기존 교수법 분석과 하나로 수업의 적용.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서울.
- 이병준, 이유리(2014). 예술강사의 직업생애사 연구: 학교문화예술교육 무용강사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연구, 9(5), 1-20.
- 이정일, 이성노, 이태현(2012). 학교문화예술교육 무용참여가 초등학생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과학체육학회지, 21(3), 815-826.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3). 국가별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 자료집. 1-188.
- Arendt, H. (1959). The human condition: A study of the central dilemmas Facing modern man. Doubleday. 이진우

- 역(2002). **인간의 조건**. 서울: 한길사.
- Hong, C. (2006). Unlocking dance and assessment for better learning. In P. Taylor(Ed.), *Assessment in Arts Education*. Portsmouth, NH: Heinemann. 백령, 홍영주, 성진희, 김병주 역(2012). **문화예술교육의 도약을 위한 평가: 쟁점과 원리**(pp. 58-70).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Huitzinga, J. (1944). *Homo Ludens: A study of the play element in culture*. Routledge and Kegan Paul. 이종인 역(2010).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인간**. 경기: 연암서가.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 Maslow, A. H. (1970). *Motivation and Personality*. New York: Harper & Row.
- Merleau-Ponty, M. (1945). *Phénoménologie de la perception*. Gallimard. 류익근 역(2002). **지각의 현상학**. 서울: 문학과 지성사.
- Miles, M. B., & Huberman, A. M. (1994). *Qualitative data analysis: A sourcebook*.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 Oswald, A. J. (1997). Happiness and economic performance. *Economic Journal*, 107, 1815-1831.
- Rifkin, J. (1998). *The empathic civilization: The race to global consciousness in a world in crisis*. Penguin. 이경남 역(2010). **공감의 시대**. 서울: 민음사.
- van Kaam(1966). *Existential Foundation of Psychology*. Pittsburgh: Duquesne University Press.
- van Manen, M. (1990). *Researching lived experiences: Human science for an action sensitive pedagogy*. London: The Althouse Press. 신경림, 안규남 역(1994). **체험연구**. 경기: 동녘.
- Wolcott, H. F. (1994). *Transforming qualitative data: Description, analysis, and interpretation*. London: Sage.

Abstract

How Does Dance Make Us Happy?

A Qualitative Inquiry on the Dance Savoring Experience for Realizing Values of
Arts and Culture Education in Dance

Sunyoung Kw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how dance participants savor dance in various ways, what they experience in that process and what factors are important to them. And by discovering these dance-savoring methods, context and factors, this study aims for proposing a teaching method of dance to make it more educational opportunity for pursuing happiness provided in the context of arts and culture education. To focus on understanding the internal attributes of research participants' experiences and the meaning behind it, this study was conducted a total of one and a half year of research from July 2015 to December 2016 with phenomenological experience method based on interpretative paradigm. And through traditional case selection(Miles & Huberman, 1994), this study took three cases, of whom two ('3355' team and 'Chumkkonmasil' team) were represented as the best practices in the field of arts and culture education and the other one was a general ballet class team. And considering six conditions of research participant selection proposed by van Kamm(1966), 18 learners and 6 educators were selected as main informants out of three teams.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by in-depth interview, group interview, class observations, and self report journals, and the analysis of the data was conducted in the recursive process of description, analysis and interpretation proposed by Walcott (1994). Through the above process, the findings and discussion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identified that there were the three ways of dance savoring: technical, playful, and contributive savoring. Second, in the process of savoring dance, participants' inner side went through experience in body, understanding and emotions. Third, it was discovered that the factors such as learner, educator, class, and social environment are influencing on the dance savoring experience's beginning, widening and deepening. Fourth, as an educational method to enhance dance savoring experience, the

practice of narrative approach is suggested. Lastly, suggestions for follow-up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examine dance savoring experience more intensively and in the long term. Secondly, it is necessary to study not only the individual dance savoring experience but also the community dance savoring experience. Third,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dance savoring experience and virtue or humanity. Forth, it is needed to develop and practice dance education programs in narrative approach.

Key words : culture arts education, technical enjoyment, playful enjoyment, contributive enjoyment, narrative approach

무용전공대학생의 ‘자아’ 찾기: 삶과 그 의미

최진실* (한양대학교)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에 재학 중인 무용전공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은 스스로를 학생으로 인지하는지, 무용수로 인지하는지 혹은 다른 무엇이라 인지하는지 그들의 정체성을 탐색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경기도 안산소재의 4년제 H대학에 재학 중인 총 9명의 무용전공생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그들의 자아정체성을 탐색하기 위해 포토보이스 라는 질적 연구 방법을 적용 하였으며, 연구참여자의 현실적 삶의 과정인 주관적 경험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그들은 스스로를 무용학을 공부하는 학생이라 규정하며, 현재 대학이라는 틀 안에서의 생활패턴이 미래진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인이 바라보는 무용수 이미지의 편견과 공연대비로 스스로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습관화 되어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무용이 아닌 다른 분야의 배움을 원하기도 하며 스스로가 정한 크고 작은 목표들을 향해 사회의 혼란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고 있는 무용전공생들의 정체성을 탐색해가는 과정에서 그들의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경험적 진실을 해석하고 공유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I. 서론

학생이면서도 무용수인 무용전공생들 그들은 자신의 신체를 소재로 자신의만의 특수성을 드러내며, 스스로의 존재를 신체움직임으로 표현하게 된다(김선정, 최리나, 2012). 대학입시라는 관문이 지난 후에 비로소 공동체 사회 속에서 잃어버린 혹은 잃어가고 있는 자아가 아닌 견고한 인간으로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여유를 얻는 타전공생들과는 다르게 그들은 실기연습과 학업을 병행하며 정규수업 이외에 실기특강과 다수의 공연, 콩쿠르준비 등으로 대학생활의 대부분을 무용실 안에서 연습시간으로 할애한다. 박중길, 이선애(2003)는 무용전공대학생의 잦은 공연으로 인한 스트레스 요인과 대처방안을 설명하였으며, 연습과정중의 슬럼프(이민아, 2003), 체중관리 및 유지(유지현, 2001)와 무용상해 및 무대불안(허재령, 2006)과 같은 다양한 불안정한 정서요인들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된다(김선정, 최리나, 2012).

이는 무용전공대학생의 대학생활이 타전공대학생의 학교생활 전반과는 구별된 특수성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 한다. 이렇듯 그들에게 공연은 필수적인 것이며, 이로 인해 항상 무대에 서야한다는

* cjs6766@daum.net

사명감과 더불어 공연을 위해 끊임없는 자기관리와 연습을 반복한다(노정식, 홍혜정, 2011). 이렇듯 공연장에서는 무용수로서 학교에서는 학생의 신분에서 무용전공대학생들은 타 전공대학생에 비하여 사회적, 신체적, 정서적 측면에서 스스로에 대한 가치를 높이 평가하며(한준희, 2006) 긍정적인 자기개념을 조화롭게 발달시킬 수 있기에 그들 개인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시킬 수 있는 역할로써 자기 자신의 개념을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자기개념 인식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개인의 정체성 상실을 경험하기 쉬운 현대 사회의 혼란 속에서 무용전공대학생은 그들 스스로를 무엇이라 규정하고 또 인지하고 있는지 즉, 끊임없는 자기이해와 판단으로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또 무엇을 해야 하는가?와 같은 물음의 과정을 반복으로 진정한 ‘나’를 찾는 자기의식의 과정인 정체성탐색이 필요하다. 무용전공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그동안의 연구들은 무용전공 대학생들의 정서와 내적동기가 신체적 자기개념에 미치는 영향(김선정, 최리나, 2012), 무용전공대학생의 고원현상과 슬럼프 현상이 학과적응에 미치는 영향(이민아, 2003), 무용전공 대학생들의 무용상해가 공연불안에 미치는 영향(2002), 무용전공 대학생의 다이어트 실천 정도가 효과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한준희, 2006)와 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는 큰 표본을 대상으로 한 양적연구가 대부분이다.

이에 선행연구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궁극적인 목적을 해석하고 논의함에 있어서 본 논문의 연구문제를 구체화시켜 현상을 기술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때문에 분석 결과의 추가적인 검증작업으로써 질적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대학의 교육과정 내에서 스스로가 선택한 진로의 확신을 얻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 주어진 학업(무용이론, 무용실기)에 열중하는 것과 자신을 성장시키는데 있어 바탕이 되는 그들의 정체성을 탐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 생각된다.

무용전공생들의 자아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의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반전공생과는 다소 다른 특성을 지닌 무용전공생 그들은 실기와 이론은 병행하며 학교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들 스스로를 학생으로 인지하는지, 무용수로 인지하는지 혹은 다른 무엇이라 인지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중점을 두어 그들이 생각하는 주체인 자신 ‘나’에 대한 자아를 탐색하는데 목적을 둔다.

II.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경기도 안산소재의 4년제 H대학에 재학 중인 (무용의 특성에 따른)세부전공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의 무용전공생들 중 자발적 참여를 원하는 1, 2, 3학년생을 연구참여자(무용전공 대학생)로 선정하였다. 졸업예정 대상자인 4학년은 향후 진로탐색과 결정에 시간방해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자의 판단으로 제외시켰다. 또한, 의도적 표집 방법의 단점보안을 위해 연구참여

자(무용전공대학생)의 사전지식을 습득하여 한국무용(1학년 1명, 2학년 1명, 3학년 1명), 현대무용(1학년 1명, 2학년 1명, 3학년 1명), 발레(1학년 1명, 2학년 1명, 3학년 1명) 총 9명의 참여자와 함께 연구를 실행하였다. 그들의 개인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의 개인적 특성

순서	성명	성별	학년	세부전공	무용경력
1	서진운	남	3	발레	4년
2	박진주	여	3	현대	9년
3	정나영	여	3	한국	8년
4	김수아	여	2	한국	9년
5	한진수	남	2	현대	3년
6	박서림	여	2	발레	7년
7	임진서	여	1	발레	5년
8	이하선	여	1	현대	5년
9	강혁진	남	1	한국	4년

※ 연구 참여자의 익명성을 위해 이름은 모두가명을 사용하였음.

2. 자료수집

본 연구는 무용전공생의 자아를 탐색하기 위해 포토보이스(PhotoVoice)기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참여적 실행연구로서 연구참여자가 직접 촬영한 사진을 통해 그들의 삶과 내면모습의 표현을 파악할 수 있다. 이에 자료수집기간은 2016년 1월부터 4월까지 총 3개월간 이루어졌으며, 1차적으로 연구참여자 개인적인 사항들에 관한 질문지와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서 작성, 2차적으로 Burris(1997)에 의해 처음 사용되어지기 시작 한 참여적 행동 연구방법론을 활용하여 본격적인 자료수집을 하였다. 자료수집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오리엔테이션의 실행

연구참여자는 오리엔테이션 과정동안 연구에 참여하는 방법을 연구자로 부터 구체적으로 배우게 된다. 또한, 어떠한 주제로 무엇을 적어야하는지 혹은 적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주의사항과 사진촬영 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윤리적인 문제점들에 대해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2) 포토보이스의 실행

포토보이스는 개인이 그들의 삶속에서 초기의 테마에 관한 이슈, 고민과 문제점등을 카메라로 찍은 후 그들의 경험을 연구자와 공유하고 사진에 담긴 의미를 해석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구조 및 정책의 변화유발을 위한 참여적 연구방법이며(Baker & Wang, 2006), 이에 연구자가 제시한 주요 테마를 바탕으로 정해진 시간(1주일)동안 자신의 일상(학교생활, 무용연습 등)에 약 20장의 사진을 찍도록 요구될 것이며, 2주후 그들이 찍은 스마트 폰 안에 있는 사진들을 연구자의 이메일로 수거 하였다.

3) 포커스그룹의 인터뷰

연구자는 모든 사진 자료를 인쇄하고 연구참여자는 포커스 그룹에 참여하도록 요청되어진다. 모든 사진 중 총 5장의 사진을 선정하게 한 후, 사진이라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현재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사진의 이야기를 주제로 약 3시간동안 포커스 그룹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보다 체계적인 자료수집을 위해 추가적으로 4명의 연구참여자의 개별인터뷰를 수행하였다.

표 2. 자료수집의 절차

1단계	연구 참여자 선정
2단계	오리엔테이션(동의서 및 개인적 특성 질문지 작성)
3단계	포토토보이스의 실행
4단계	포커스 그룹 인터뷰

출처: Baker & Wang (2006)

3. 자료분석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가 협력을 통해 연구 자료를 만들어내기 위해 연구참여자는 단순히 연구의 대상만이 아닌 공동연구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는 그들만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Duffy, 2011). 촬영한 사진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가장 잘 아는 주체이기에 사진의 주제와 내용은 참여자의 표현을 그대로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재희, 2013). 또한, 회기별로 정해진 주제에 따라 포토토보이스 노트를 완성시키고 참여자간의 토론과정에서 소통한 내용이 연구결과 분석의 토대가 된다.

4. 자료의 진실성과 윤리성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진실성과 윤리성을 높이기 위해 동료 간 협의, 구성원 간 검토를 진행하였다. 모든 과정은 연구참여자의 직접적인 참여로 연구자와 함께 코드, 카테고리를 찾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포토토보이스 연구 분석 프로세스의 정당성과 진실성을 높일 수 있다(Wang, 1999). 참여적 실행연구의 핵심인 구성원 간 검토 작업, 미처리자료, 전산자료, 분석노트, 사진자료 등의 데이터를 주의 깊고, 조직적으로 보관 및 관리하여 보다 정확한 자료의 검색 및 논리적 분석으로 감사추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Lincoln & Guba, 1985). 경험을 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부가적으로 본 연구자는 개인적 편견과 선입견을 배제하기 위한 지속적인 비판적 성찰과정(Maxwell, 2005)을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모든 것은 익명처리 하였고 녹취파일과 서명동의서는 연구가 끝난 후에 모두 폐기처분의 과정을 통해 학문적인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으로 연구윤리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한다.

III. 결과 및 논의

1. 그들은 무용수인가? 학생인가?

일상에서도 제 몸에 대해 항상 고민해보고 연구해보며 몸이 변화하는 과정에 예민해 하는 제 자신을 보면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저는 스스로를 무용수라고 생각합니다.(한진수)

무용전공이지만 무용수라고하기엔 학교생활의 비중이 많아 일반적인 무용과 학생으로서의 생활 패턴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서 무용수라고 생각하긴 어려운 것 같아요(이하선).

무용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잘 모르고 무용에 대한 확신이 없어 아직 무용수는... (강혁진).

저는 무용하는 학생 이라고 생각해요... 아직까지는 배우고 있는 학생이기도하고 또, 실기만 하는 타 대학 시스템처럼 무용만 하는것도 아닌... 무용에 더 열중해 스스로를 무용수라고 말하고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박진주).

본 연구에 참여자들은 자신 스스로의 선택으로 대학에서 ‘무용’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이다. 그들은 대학에서 정해진 학업시간 이외에도 실기 특강과수의 공연연습 등으로 무용실에서의 생활시간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렇듯 실기에만 치중해 있는 것처럼 보여 질 수 있지만, 실기와 이론을 갖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의 교육과 사회적 요구에 따라 스스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준비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관찰되었으며, 그들은 스스로를 아직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는 학생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2. 무용전공대학생, 모습과 그들의 삶 들여다보기

무용전공대학생들에게 자신을 묘사할 수 있는 것을 사진에 담아 올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 주는, 다음과 같은 이미지들을 사진 속에 담아왔다.



사진출처: 2016.10 대학 캠퍼스 내 탈의실

그림 1. 또 다른 나의 발

발레는 슈즈가 없으면 발이 다칠 수도 있고 또 동작하는데 있어서 어려움도 있고요. 힘든 무용인데 그렇기에 저에게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사진으로 찍었어요. 사실 이러한 생각도 사진을 찍으면서 알게 되었어요. (서진운).

〈그림 1〉에서는 대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소지하고 있지 않은 물건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발레 슈즈를 ‘또 다른 나의 발’이라 이야기하는 것에서 현재의 자신 발 즉, 신체일부로 인지하고 있으며, 자신과 떼어 수 없는 필요한 존재인 것으로 발레슈즈를 통해 보여 지는 의미는 무용수로서의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 주는 것이라 해석해 볼 수 있다.



사진출처:2016.11. 내방침대위/ 무용홀

그림 2. 같은 발 다른 느낌

보통 집에서 쉴때의 모습은 흔하지만 전공을 할 땐 또 다르니까 남들과 다른 느낌이라고 했어요! 실기연습을 하거나 하고 난후에 힘들다고 느끼지만 뭔가 남들과는 다른 느낌이어서... 마음에 들어요(김수아).

〈그림 2〉에서는 본인이 하루일과를 끝내고 집에서 휴식하고 있을 때의 발의 모습과 전공수업 후 휴식 중에 찍은 사진이라고 한다. 후자의 사진이 더 마음에 든다는 연구참여자는 무용 연습을 할 수 있는 상태의 자신의 발이 찍힌 사진이 남들과는 구분되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지며, 일반 대학생과는 다른 특수성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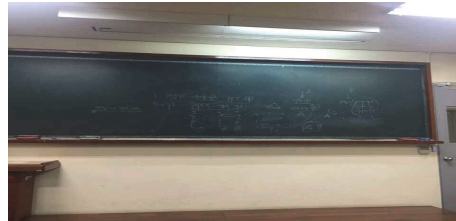


사진출처:2016.10. 대학 캠퍼스 무용홀

그림 3. 구멍 난 연습복

항상 연습복이 닳는 부분이 무릎이었어요. 무릎의 부상으로 치료도 자주 받으러 다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무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구멍 난 저의 연습복을 보면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무용을 열심히 해왔구나 라고 스스로 느끼게 되면서 마음을 다잡게 되는 것 같아요(박진주).

구멍 난 연습복은 연구참여자가 스스로의 성과를 느끼게 해주는 상징물이다. 타인이 보기에는 그저 낡은 추리닝으로 보여 질 수 있겠지만 이 참여자에게는 소중한 의미가 되고 있었다. 특히, 무용에 대한 열정으로 무용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구멍이 난 연습복은 스스로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며, 미래의 계획에 동기부여가 되어 진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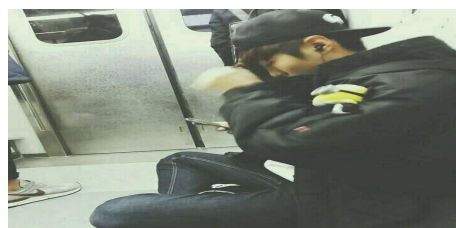


사진출처:2016.10. 대학 캠퍼스 이론 강의실

그림4. 강의실 칠판

예체능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안 할 것이다. 라는 타대생들의 인식이 싫었는데, 마침 이번학기에 타대생들과의 교양수업에서 수업이 ppt발표를 직접 눈으로 보니 공부만 하는 타대생들이 다들 발표를 잘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사소한 부분 하나에도 발표준비를 정말 공들여서 했고 그 수업에서 경영학전공의 동기생에게 무용과 다르게 봤다는 나름의 칭찬을 들었는데 열심히 한 만큼 좋은 소리를 듣게 되어서 기분이 좋았어요(박진주).

본 연구의 참여자는 대학생생활에서 타대생과의 수업을 통해 예체능 전공의학생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개선되어졌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이렇듯 조직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그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며 일원으로 앞장서서 스스로가 선택한 '무용'을 하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진출처:2016.12 지하철

그림 5. 오순도순 20대

학교일에 지쳐서 지하철에서 땅바닥에 앉아서간다고 해야 되나요? 20대이니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조금 창피하기도 했지만 같이 있던 친구도 나중에 크면 못 그럴 것 같다고 그때가 되면 사람들의 시선들이 뭐가... 학생이기에 용서되는 행동이 아닐까요?(강혁진).

본 연구에 참여한 남학생은 공연을 관람하러가는 지하철 안에서의 모습을사진에 담았다. '학교

일에 지쳐' 라는 부분에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 꾸준한 자기개발과 노력을 하고 있는 청년생 즉, 대학에 재학 중인 일반적인 학생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지하철 바닥에 앉아서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스스로 20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이라며, 일반적인 대학생의 일상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출처:2016.10 연구참여자의 방

그림 6. 향수

여자친구가 선물로 준 향수예요 요즘엔 여자친구도 바쁘고 저도 바빠서 평일에는 힘들고 그래도 주말에는 꼭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여자친구를 만날 때에는 모든 고민이 잠시 사라지는 것 같아서 사랑하는 여자친구랑 맛있는 것을 먹을 때가 가장 행복한 거 같아요(서진운).

향수를 보면 가장 먼저 여자친구가 떠오른다는 이 학생은 현재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는 순간과 맛있는 음식을 먹는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여기는 남학생은 이 두 경우의 순간을 함께 경험했던 과거의 순간을 떠올리며 행복해 하는 모습을 개별 인터뷰를 통해 관찰할 수 있었다.



사진출처: 2016.08 가평 (가족들과의 여행)

그림 8. 아낌없이 주는 나무

제가 좋아하는 소고기를 구워주시는 모습의 아빠예요. 부모님은 제가 하고 싶은 것 또 사고 싶은 것 제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 하면 무엇이든 다 해주시는 음... 뭐랄까 저에게 무조건인 사랑을 주십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저에게 있어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존재 이십니다(정나영).

본 연구의 참여자 그들의 일상 속에서의 자신을 묘사할 수 있는 것을 사진 속에 담아왔고 그 안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은 대학생들이 소지하고 있지 않은 발레슈즈, 구멍 난 연습복과 같은 물건에 그들의 일상과 함께 하고 있음이 들어났으며, 이를 통해 무용수로서의 그들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예체능을 전공하는 학생의 인식을 변화시키고자 함에 있어서 타대생과의 수업을 통해 공

부를 하는 학생으로서 또 ‘학교일에 지쳐’ 라는 부분에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 꾸준히 자신을 개발하고 노력하고 있는 일반적인 대학생의 모습으로의 일상을 정체성이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 라며 누군가의 남자친구로, 혹은 여자친구로 스스로의 정체성 인지하고 있었으며,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시며 진심으로 자신을 챙겨주시는 부모님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존재로 인식하는 등 본 연구참여자들은 무용수, 학생으로서의 정체성 이외에 누군가의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 누군가의 자식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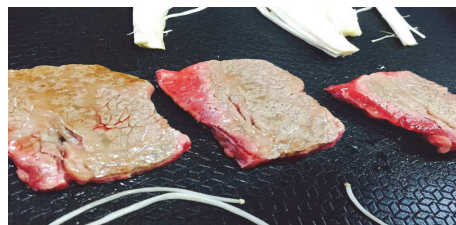
3. 무용전공대학생, 현실적 고충과 당면문제



사진출처: 2016.12 학교 앞 카페(연습을 가기 전)

그림 9. 아메리카노 2잔

다이어트를 하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항상 카페에 가면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항상 칼로리가 적다라고 들은 아메리카노만 마시게 되더라고요. 아, 그러구 저는 이미지가 술 잘 먹게 생겼다고 그런 자리를 필히 참석해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사실 술도 잘 못 먹고 술을 먹게 되면 너무 쓰니까 그래서 안주를 막 먹거든요. 다음날이나 보면 얼굴이며 몸이며 텅텅 붓고... 참 스트레스였어요(박진주).



사진출처: 2016.11 집앞 마당 (가족들과의 식사)

그림 10. 고기

이건 소고기예요. 하하 집에 가면 부모님은 꼭 소고기를 엄청 많이 먹이세요! 몸이 약해서.. 무용을 하는게 행복하려면 몸매를 가꿔야하지만... 소고기 뿐 만 아니라 음식으로 제 건강을 챙겨주세요 그리고 제가 부모님이 해 주시는거 맛있게 많이 먹을 때 행복해하세요(정나영).



사진출처: 2016. 10 정형외과 병실

그림 11. 건강이 최고

연습과정에서 부상이 있었는데 연습을 할 수 없어서 굉장한 스트레스 이었습니다. 최대한 회복하고 악화되지 않도록 하면서 연습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이었습니다(한진수).

본 연구의 참여자는 무용을 함에 있어서 스스로의 체중을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었음을 파악하였다. 특히, 대학생들의 술 문화를 언급하며 개인적인 스트레스의 요인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파악하였으며, 무용을 함에 있어서 미래에 자신의 진로와도 연관을 지으며 그들의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현실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각자만의 고충을 이겨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4. 그들의 삶, 선택의 기준과 실현과정

초등학교 때부터 방송댄스를 좋아했는데 중학교 때 친구가 무용을 해서 현대무용을 하러갔다가 선생님의 권유로 한국무용으로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수업을 들어보라고 하셨고 그중에서 한국무용이 저한테도 잘 맞았어요. 선생님도 어울릴 것 같다고 하셔서 더 좋았구요(김수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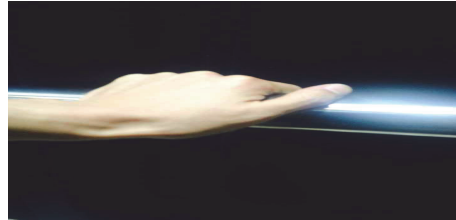
처음 무용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것이 무용이라는 선입견이 있었는데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때 당시에 더 늦어지면 진짜 못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용은 운동시절에도 예술 하는 친구들을 동경해왔었어요 축구를 그만두고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걸 해야겠다 생각해서 춤을 정했는데 스트리트 댄스보다는 제가 제 개인적으로 진지하게 더 노력할만한 가치가 있는 춤이 현대무용 이라고 생각 했습니다(한진수).



사진출처: 2016. 12 대학내 체육관(연습이 끝난후)

그림 12. 홍삼원

연습은 많고 몸은 항상 피곤하고 그러니까 건강식품이라도 챙겨먹으면 좀 나아질까 해서 꼬박꼬박 챙겨 먹으려고 해요(정나영).



사진출처: 2016.12 대학캠퍼스 무용홀

그림 13.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제가 무용을 좋아하니깐 잘하고 싶고 무용수로서 오르고 싶은 위치에 도달하고 싶은 마음은 큰데 늦게 시작한 만큼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학교 생활하는데 있어서 개인연습시간 아무래도 원하는 만큼 투자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틈틈이 연습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느끼고 있습니다(한진수).



사진출처: 2016.12 대학캠퍼스 무용홀

그림 14. 늦은 밤 연습

정규수업 이후 개인연습(밤늦게)하는 게 좋고, 스스로 뿌듯해요 일반적인 학생들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 모습을 찍지 않을까 생각했고 나는 무용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박진주).

본 연구의 참여자의 대부분은 어린시절부터 무용을 시작하여 대학입학 후 자신의 전공으로 미래 진로를 결정하는데에 있어서 무용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건강은 물론 철저한 자기관리가 몸에 베어있었다.이렇듯 스스로 관리하며 새벽연습도 마다하지 않으며 끊임없는 실기연습에 본인의 시간을 투자하며 각자만의 방법으로 삶을 실현해 나가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5. 그들이 꿈꾸는 미래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꿈꾸는 미래는 대부분이 스스로의 진로결정에 초점이 맞추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학교에 입학하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1년을 후닥닥 보낸 것 같다는 연구참여자와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 걱정이라는 연구참여자와의 개별 인터뷰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언급하였다.



사진출처:2016.10 집앞 공원

그림 15. 넓은 하늘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데... 무용을 계속하고 싶기도 하고, 우선 무용이론 쪽으로도 공부를 해보고 싶고, 무용이 아닌 또 다른 분야 쪽도 해보고 싶어요. 어릴 때부터 무용을 시작해서.. 미래에 스스로가 만족하는 하늘처럼 넓게 보고 꽃처럼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어요(박서림).

남자동기들과는 항상 미래에 무엇을 할지에 대한 얘기들을 해요. 여자동기들과는 학교생활, 연애사 얘기들을 많이 하구요. 공통적으로 보면 저 포함해서 다들 뭘 해야 할지 몰라 하죠.. 군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어디에서든 인정받고 싶고 제 부모님, 미래에 결혼할 분, 주변사람들 걱정 없이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강혁진).



사진출처: 2015.12. 벨기에(리에주극장)

그림 16. 내가 꿈꾸는 무대

처음부터 무대에 공연하는 것 때문에 무용을 시작했고 피핑툼과 같은 유명한 무용단에 작품성이 있는 작품에 무용수로서 많은 관객들 앞에서 춤추고 싶습니다(한진수).

본 연구의 참여자는 과거에 자신의 스승과의 해외공연의 경험으로 그때를 회상하며 그들처럼 그들과 같이 무대에 서고 싶다며 무용수로서의 미래를 꿈꾸고 있었다. 이 참여자는 자신이 좋아하고 또 잘 할 수 있는 것은 무용이라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인지하며, 선택에 대한 확신으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 (Lesley, Garner, 2004, p.17). 와 더불어 늦었다고 생각이 드는 만큼 무용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보이며, 자신에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로 꿈을 꾸고 또 실현하고 있었다.



사진출처: 2015.07. the k 호텔(콩쿨대회장)

그림 17. 행복해 하는 아이들

나중에는 무용수 보다는 무용하려는 아이들을 가르쳐 주고 싶어요. 제가 입시를 했던 학원에 동생들이 콩쿠르를 준비한다고 콩쿨장에도 따라 갔었는데 그때의 콩쿨장에서 아이들이 나가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인데 이걸 보니 행복해요!(김수아).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학교생활 속에서의 그들의 선생님, 선배, 후배와의 관계를 통해 스스로의 존재를 확립해나가고 있었으며, 자신의 무용후배 과거의 경험은 그들의 미래의 진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스스로가 선택한 '무용'에 자부심을 느끼며, 다른 것을 하는 시간이 아닌 '무용'에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예비무용수 혹은 예비무용지도자 나아가 예비 예술인으로써의 사회에 나갈 준비와 노력을 하며,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현재의 자신을 통합시키어 자아를 성찰하고 발전시키고 또 실현해 나아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논의 종합하여 본 연구는 인지하고 또 인식해야 할 것이 너무도 많아진 사회를 살아갈 청년대학생들 즉, '정체성 탐색의 시기'의 무용전공 대학생들이 사회적 요구에 따라 이론과 실기에 뛰어난 자질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꿈을 꾸기에 앞서 의식·무의식 중 표현되어지는 우리안의 깊은 내면에서 세상을 살아갈 자신의 삶의 주체인 '나' 자신부터 인지해야 할 것이고 나아가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들은 스스로를 '무용'이라는 학문을 공부하는 학생이라 규정하며, 현재 대학이라는 틀 안에서의 생활패턴이 미래진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인이 바라보는 무용수 이미지의 편견과 공연대비로 스스로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습관화 되어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무용이 아닌 다른 분야의 배움을 원하기도 하며 스스로가 정한 크고 작은 목표들을 향해 사회의 혼란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고 있는 무용전공생들의 정체성을 탐색해가는 과정에서 그들의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경험적 진실을 해석하고 공유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무용을 전공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이와 같이 논문은 일반전공대학생과는 다른 여건을 지니고 있는 무용전공대학생,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진정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나아가 그들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는 것에 앞서 스스로의 정체성 탐색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자기이해와 자기 인지를 통해 현실적 삶의 과정인 주관적 경험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고자 하였다. 과거의 경험과 그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 사진이라는 시각적 이미지로 그들의 경험적 사실과 앞서 제시한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연구참여자 언어에서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어지는 내용을 범주화하여 얻은 결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은 무용수로서의 정체성, 학생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의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 누군가의 자식으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연구참여자인 무용전공대학생, 모습과 그들의 삶 들여다 본 결과 개인의 슈즈, 전공시간후의 쉬는 자신의 발, 구멍 난 연습복, 강의실 칠판 등을 사진 속에 담아왔으며,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와 그들이 인지하고 있는 새로운 상징물로써 의미를 파악하였다.

셋째, 무용전공대학생, 그들의 생활 속에서는 스스로의 체중을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었으며 특히, 대학생활의 술 문화를 언급하며 개인적인 스트레스라 언급하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또한,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부상으로 인해 개인적인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넷째, 무용전공대학생 그들의 삶, 선택의 기준은 주변의 권유로 시작을 한 경우, 어릴 때 자신의 흥미로 시작하여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경우, 뒤늦게 자신이 좋아하고 잘 하는 것을 발견하여 시작한 경우 등 다양한 기준으로 무용을 시작하였으며, 다각 면에서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 늦은 밤 개인연습을 하고 또 건강을 위해 보양식을 챙겨먹고 실기와 이론을 섭렵하기 위해 끊임없이 인내하고 노력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다섯째, 사회에 나가기에 앞서 대학에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개발하고 성찰하며 노력하는 무용전공대학생들 그들은 주어진 학교생활이외에도 그들의 선생님, 선배, 후배와의 관계를 통해 스스로의 존재를 확립해나가고 있었으며, 그들의 선택으로 '무용'에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실기와 이론 어느 하나 놓지 않으려 하며, 예비무용수 혹은 예비무용지도자 나아가 예비 예술인으로써의 사회에 나갈 준비와 노력을 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상으로 본 연구는 무용전공대학생이 스스로를 무엇으로 인지하고 규정하는지 탐색과 자아 발견의 과정을 탐구하는데 있어서 현상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질적 연구방법론의 특성으로 연구자의 주관성 배제는 아직까진 어렵다고 판단되어진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자가 선정한 대학 이외의 또 다른 대학의 무용전공생을 대상으로 한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연구방법론의 특성상 본 연구참여자의 개인적 견해가 포함되어 있어 연구결과가 모든 무용전공대학생을 대변 할 수 없음을 감안하여 또 다른 무용전공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람이 태어나 진심으로 자기다움을 알고 자기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자기다움으로 자기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진정성 있게 느껴진다. 매사에 진심을 다하는 자세만으로 누군가에게 감동을 또 영감을 주는 대상이 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 참여한 무용전공대학생들 또한 그러한 무언가가 되기를 꿈꾸며 하나씩 차근차근 무엇이라는 것들로 하루하루를 채

워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순간에도 수많은 혼란 속에 의미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를 그들의 보다 밝은 미래를 위해 한 개인의 자아정체성을 그 자신에 대한 성찰과정에서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는 누구인가?' 에 대한 스스로의 질문을 통한 접근을 시작으로 자신의 모습을 인지하고 그러한 그들의 삶을 새로운 의미로 해석해 보았다. 그들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자신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초점에 두고 과학적으로 설명되어질 수 없는 그들의 자아를 포토보이스 기법으로 탐색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들의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설계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그들은 스스로의 자아에 대한 의미 있는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창수(2013). 노년기 죽음불안에 대한 목회적 돌봄 : Erik H. Erikson의 생애주기이론과 Paul Tillich의 실존주의적 관점. 박사학위논문. 한세대학교 대학원, 경기도
- 박가은(2010). 청년 초기의 자아정체감 형성 수준이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경기도
- 박현숙(2014). 자기성장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자기 표현력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충청남도
- 박정현(2014). 자아실현의 메타프락시스적 의미.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서울
- 오미숙(2012).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하여 살펴 본 간호사의 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방안모색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 윤정은(2004). 대학무용 전공자의 무대공연 경험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서울
- 이유희(2008). 중학생의 성역할정체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 리더십생활기술을 매개로.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서울
- 하은지(2015). 포토보이스를 활용한 유아의 신체활동영향요인 탐색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 김선정, 최리나(2012). 무용전공 대학생들의 정서와 내적동기가 신체적 자기개념에 미치는 영향. **대한무용학회**, 70(2). 223-245
- 이현주(2015).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 포토보이스 방법론을 이용하여. **한국위기관리논집**, 11(4). 243-268.
- 이솔지, 최송식(2014). 알코올중독자의 삶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30(3). 43-71.
- 박봉수, 임지혜(2015). 사할린 동포의 연주귀국 경험과 그 의미 탐색. 인하대학교,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11(2). 161-192.
- 박봉수, 정경희(2015). 포토보이스를 활용한 사할린동포 어르신들의 삶 엿보기. **한국인간발달학회 학술대회지**, 2015(1). 79-80.
- 김현준, 김명권, 박기동 (2013). 중도탈락한 체육특기자의 자아정체성 형성과정. **스포츠인류학**, 8(1). 15-39
- 김경오(2015). 인문, 사회과학편: 시골거주 노인들의 신체활동과 관련된 사회생태학적 의미, 문제, 그리고 개선방안: 혼합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54(2). 41-57.
- 김계현, 조애리(2011). 대학생의 자아정체성 지위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 전략의 차이. **한국상담학회**. 12(1). 283-300.

- 박향숙(2014). ‘신생 성인기’를 위한 기독교신앙교육. *기독교교육논총*, 37(1). 295-323.
- 박재복, 박상현, 이무성, 이종서, 하상섭(2008). *국제정치의 신패러다임 존재론, 인식론, 방법론적 고찰*. 서울 : 높이깊이
- 김준연, 배용준(2005). *존재와 인식 : 고대와 근대의 존재론과 인식론*. 대전: 문경출판사
- 김영석, 김한별, 유기웅, 정종원(2012). *질적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박영사.
- Giddens, Anthony, 권기돈(편). (1998). *현대성과 자아정체성: 후기 현대의 자아와 사회*. 서울: 새물결
- 박아청(2003). *정체감 연구의 전망과 과제*. 서울: 학지사.
- Baker, T. A., & Wang, C. C. (2006). PhotoVoice: Use of a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method to explore the chronic pain experience in older adults. *Qualitative health research*, 16(10). 1405-1413
- Buthe lezi, T., Lange, N., Moletsane, R., Mitchell, C., Stuart, J., & Taylor, M. (2007). Photo-voice as a tool for analysis and activism in response to HIV and AIDS stigmatisation in a rural KwaZulu-Natal school. *Journal Of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19(1). 19-28

Abstract

Finding 'Self' of Dance-Majored Collegiate Students

Choi, Jin-Sil

Hanyang University

Purpose of this study was an exploration of the self-identity of dance-majored collegiate students. All of the data was analyze within photo-voice and participants who are majored in dance are belonging to H University in Ansan Gyunggi. Helps to understand seeking students' self-identity whose major is dance, and realize who they are. As a result of the research, they define themselves as students studying 'dance', and it has been shown that the life pattern within the framework of university now has an important influence on future career.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it is customary to manage oneself thoroughly in comparison with prejudice and performances of dancers image that others see. In the process of exploring the identity of the dance students who are meaningful for their daily life in the confusion of society toward their big and small goals, There is significance in interpreting and sharing the truth.

key words : dance-majored collegiate students, self-identity, photo-voice

한국무용과학회지 투고 안내

1. 한국무용과학회지 논문투고

- ▶ 논문투고 및 학술지 발행일정

	1호	2호	3호	4호
투고 마감일	11월 31일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학술지 발행일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 ▶ 한국무용과학회지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입니다.
- ▶ 논문투고에 관한 모든 내용은 학회 홈페이지 www.dancescience.or.kr 학회지논문투고에 가시면 상세히 볼 수 있습니다.
- ▶ 한국무용과학회는 온라인 논문투고 (<http://ksds.jams.or.kr>)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 ▶ 논문투고 심사비 입금계좌는 회비입금 계좌와 다르니 아래의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투고논문 심사비회비: KEB 하나은행 540-0910384-54907 (홍애령)
 - 문의처: 총무이사 홍애령 (010-4288-1725)
 - 간 사 이지혜 (010-7550-8094)
 - 사 무 국 (02-760-5872)

2. 회원가입 안내

- ▶ 한국무용과학회는 “변화를 주저하지 않는 열린 학회”입니다. 무용에 대한 합리적 연구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누구나 회원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학회 홈페이지 www.dancescience.or.kr 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회원가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시고 회비를 납부하신 후 학회사무국으로 반드시 확인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회비 납부계좌: IBK기업은행 689-000425-01-031 (박재홍)
 - 연락처 : 사무국(02-760-5872), 간사(010-7550-8094)
- ▶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하며, 회비와 가입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원유형	연회비	비 고
정회원 (이사)	이사 20만원 부회장 30만원	대학에서 무용 또는 관련 과정을 수학(혹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라고 이사회에서 인정한 자)하고 무용과학에 관심을 가진 분으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 승인으로 가입
준회원 (일반, 학생)	3만원 (가입비 2만원)	무용과학에 관심 있는 사람은 가입가능하며, 최초 가입 시 연회비 이외 가입비 2만원을 별도 납부

- ▶ 온라인 가입이 어려운 경우, 가입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후 학회 이메일로 보내시고 반드시 사무국으로 연락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무용과학회

제36회 춘계학술세미나

인 쇄 / 2017년 5월 18일

발 행 / 2017년 5월 20일

발행처 / 한국무용과학회

전화: 02) 760-5872

팩스: 02) 760-4485

www.dancescience.or.kr

ksds.jams.or.kr

제작처 / 레인보우박스

전화: 02) 2032-8800

팩스: 02) 871-0935
